

목 차

■ 아시아대양주 5

싱가포르-싱가포르무역관	7	인도-첸나이무역관	18
미얀마-양곤무역관	8	인도-뭄바이무역관	19
라오스-비엔티안무역관	9	인도네시아-자카르타무역관	20
방글라데시-다카무역관	10	태국-방콕무역관	21
베트남-호치민무역관	11	파키스탄-카라치무역관	22
베트남-하노이무역관	12	필리핀-마닐라무역관	23
캄보디아-프놈펜무역관	13	뉴질랜드-오클랜드무역관	24
스리랑카-콜롬보무역관	14	호주-시드니무역관	25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무역관	15	호주-멜버른무역관	26
인도-뉴델리무역관	17		

■ 일본 27

일본-도쿄무역관	29	일본-후쿠오카무역관	31
일본-오사카무역관	30	일본-나고야무역관	31

■ 중국 33

중국-베이징무역관	35	중국-샤먼무역관	43
중국-상하이무역관	36	중국-난징무역관	44
중국-다롄무역관	37	중국-우한무역관	45
중국-광저우무역관	39	중국-창사무역관	46
중국-시안무역관	40	홍콩-홍콩무역관	48
중국-선양무역관	41	대만-타이베이무역관	49
중국-정저우무역관	42		

■ 북미 51

미국-뉴욕무역관	53	미국-실리콘밸리무역관	57
미국-로스앤젤레스무역관	54	미국-마이애미무역관	58
미국-시카고무역관	55	캐나다-토론토무역관	60
미국-달라스무역관	56	캐나다-밴쿠버무역관	61
미국-워싱턴무역관	57		

■ 중남미 63

멕시코-멕시코시티무역관	65	아르헨티나-부에노스아이레스무역관	70
도미니카공화국-산토도밍고무역관	66	칠레-산티아고무역관	71
과테말라-과테말라무역관	67	파나마공화국-파나마무역관	72
베네수엘라-카라카스무역관	68	페루-리마무역관	73
브라질-상파울루무역관	69		

■ 구주 75

독일-프랑크푸르트무역관	77	스페인-마드리드무역관	91
그리스-아테네무역관	78	영국-런던무역관	92
네덜란드-암스테르담무역관	79	오스트리아-빈무역관	93
덴마크-코펜하겐무역관	80	체코공화국-프라하무역관	94
루마니아-부쿠레슈티무역관	81	크로아티아-자그레브무역관	96
벨기에-브뤼셀무역관	82	폴란드-바르샤바무역관	97
불가리아-소피아무역관	83	프랑스-파리무역관	98
스웨덴-스톡홀름무역관	89	핀란드-헬싱키무역관	99
스위스-취리히무역관	90	헝가리-부다페스트무역관	100

■ CIS 103

러시아-모스크바무역관	105	아제르바이잔-바쿠무역관	110
러시아-블라디보스톡무역관	107	우크라이나-키예프무역관	112
러시아-노보시비르스크무역관	108	카자흐스탄-알마티무역관	113
러시아-상트페테르부르크무역관	109	우즈베키스탄-타슈켄트무역관	114

■ 중동 115

UAE-두바이무역관	117	요르단-암만무역관	122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무역관	118	터키-이스탄불무역관	123
모로코-카사블랑카무역관	119	이스라엘-텔아비브무역관	124
알제리-알제무역관	120	이집트-카이로무역관	125
오만-무스카트무역관	121	쿠웨이트-쿠웨이트무역관	126

■ 아프리카 127

남아공-요하네스버그무역관	129	가나-아크라무역관	132
수단-카르툼무역관	130	에티오피아-아디스아바바무역관	133
케냐-나이로비무역관	131		

2013년도 해외시장(국가 및 무역관별) 진출 호·부진 예상 품목

아시아대양주

싱가포르 - 싱가포르무역관

미얀마 - 양곤무역관

라오스 - 비엔티안무역관

방글라데시 - 다카무역관

베트남 - 호치민무역관

베트남 - 하노이무역관

캄보디아 - 프놈펜무역관

스리랑카 - 콜롬보무역관

말레이시아 - 쿠알라룸푸르무역관

인도 - 뉴델리무역관

인도 - 첸나이무역관

인도 - 뭄바이무역관

인도네시아 - 자카르타무역관

태국 - 방콕무역관

파키스탄 - 카라치무역관

필리핀 - 마닐라무역관

뉴질랜드 - 오클랜드무역관

호주 - 시드니무역관

호주 - 멜버른무역관

2013년도 시장전망 요약

- 최근 3년간 복합리조트 개장 및 바이오제약 등 신성장동력산업의 성장에 힘입어 꾸준한 경제성장을 기록
 - 2012년 말까지 연간 1.5%~2.5% 경제성장을 달성 전망
 -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시 교역량이 20% 감소하였으나, 2011년에는 상대적인 영향이 미약하였으며, 아시아 역내교역 증가로 유럽 및 미국 수출 감소분을 상쇄시킴
- 한-싱가포르간 수출입 동향은 2012년 상반기 중 우리 수출이 113억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8.6% 증가, 전체교역액은 162억달러로 8.9% 증가
 - 수출 및 수입이 함께 증가하고 있으나, 무역수지 폭은 좁혀지는 추세임
- 현지 시장여건을 고려할 때, 2013년 기간 중에도 다소 둔화되기는 해도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유지 및 한-싱가포르 교역량 증가세 지속 전망
 - 특히 한류열기가 전방위로 확대되며, 한국산 소비재 및 생활용품의 진출기회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호조 예상 품목

1. 산업부문
 - 공기청정기, 유압브레이크, 케이블류, 전기식 밸브류, 냉방기 부품, 플라스틱 필름, 산업용 카메라장비(배관설비 보수용), 신재생에너지 장비, 친환경설비, 오폐수 처리시설 및 관련 장비 등
2. 일반소비재
 - 고효율 친환경제품(가전제품-세탁기, 에어컨, 냉장고 등), 건강음료 및 유기농 제품, 식료품 및 생활용품, 보안제품(금고, 도어락, CCTV/DVR, 의류, 차량용 블랙박스), 각종 아이디어 상품, LED제품, 선물용품, 패션용품 등
3. 기타
 - 건축/건설 기자재, 조선기자재 등

부진 예상 품목

- | | |
|--------------------|-------------------------------------|
| 1. 의약품 | 2. 의료장비 |
| 3. 자동차 제조용 장비 및 부품 | 4. 산업용 장비(크레인, 고정밀감속장치, 반도체 생산설비 등) |
| 5. 배전반/분전반 | 6. 화장품 |
| 7. 실험실용 장비 | 8. 디지털컨텐츠 |
| 9. e-learning | 10. 모바일컨텐츠 등 |

2013년도 시장전망 요약

- 미얀마 정부는 인프라 구축 확대에 의해 건축자재, 철근, 중장비 등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 특히 2013년 동남아게임(SEA Game) 개최로 관련 음향, 방송 장비, 개막식용 장비 및 제품 등의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
- 또한 미얀마 외화관리 시스템 개선으로 인해 미얀마 금융시장 개방으로 인해 ATM 기계, 소프트웨어 구축 시스템, 외환거래 시스템 제품, 계산기, 금고 등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호조 예상 품목

- | | |
|-----------------|-------------|
| 1. 건축자재 | 2. 건설장비 |
| 3. 중장비 | 4. 승용차 |
| 5. 상용차 | 6. 화장품 |
| 7. 컴퓨터(Desktop) | 8. 휴대폰 단말기 |
| 9. 제지 | 10. 전자 부품 |
| 11. Tablet | 12. 의약품 |
| 13. 의료기기 | 14. 방송장비 |
| 15. 철강제품 | 16. 자동차 부품 |
| 17. 식품 가공기계 | 18. 포장 기계 등 |

부진 예상 품목

- | | |
|--------|-----------|
| 1.비료 | 2. 정밀화학원료 |
| 3. 원사 | 4. 일반생활제품 |
| 5. 반도체 | 6. 정밀기계 등 |

2013년도 시장전망 요약

- 라오스는 성장동력인 수력발전과 광업부문에 국가적인 내실 다지기 노력과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를 기반으로 2008~2012년 현재까지 연 평균 7.5~8%의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3년에도 라오스의 경제는 평균 7.9%대의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임
- 성공적인 평가를 받고있는 제6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2006~2010년)이 추진되는 동안 국제행사인 동남아(SEA)게임, 한국인 Visa 사증면제조치, 외국인 관광객 200만명 돌파 등으로 은둔의 땅 라오스가 대외적으로 기지개를 펴기 시작함에 따라 지방도시의 산업화 가속, 인프라구축,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음. 2020년 저개발국 탈출을 목표로 제7차 사회경제개발계획(2011~2015년)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8개 경제특별구역을 선정하여 투자자들 끌어 모을 계획을 갖고 있음. 현재, 남쪽의 싸완나 주 경제특별구역은 인도차이나 지역에 추진 중인 동서회랑(코리도/Corridor), 남북회랑의 중심지로 조명받고 있음. 이와 더불어 서민과 밀접한 농업분야의 투자로 국가차원의 균등한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라오스의 대외교역은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를 보이고 있으며, 대외수출은 구리, 기타 광물, 금, 규소, 다이아몬드 등 광물수출이 전체의 82.9%를 차지하고 있음. 이중에서도 구리는 전체 수출의 33.2%를 차지해 단연 1위 수출품목이며, 2위 전력, 3위 의류를 제외하고는 아직 제조업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이 외에 커피, 설탕, 옥수수 등 농업관련 수출이 여타 순위를 차지하고 있음
- 2012년 11월 5~6일까지 아시아-유럽의 48개국 정상이 참석하는 제9차 ASEM 회의는 라오스 정부가 개최하는 역대 최대 행사이며, 연내 WTO 가입이 확실시 되면서 국가이미지 상승, 국제기준의 제도개선, 교역확대 및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 등의 성장이 기대되고 있음

호조 예상 품목

1. 승용차, 의료기기, 의약품, 자동차/중장비 부품: 비싸지만 생활에 꼭 필요한 제품
2. 건설중장비, 건축자재, 인테리어 소비재: ASEM 회의 준비로 인한 건설시장 호황
3. 변압기 등: 라오스 성장 동력 분야인 수력발전 및 송배전 관련 품목
4. 화장품, 장신구, 가구, 위생용품: 여성의 사회진출과 소득수준의 향상

부진 예상 품목

1. 제조설비(기계류)
 - 제조업(공장)이 거의 없어 제조설비(기계류) 수요 매우 미미 (대부분의 공산품은 수입에 의존)
2. 일반 생활소비재
 - 가격에 민감하며, 해상과 내륙 운송(라오스는 5개국에 둘러싸인 내륙국으로 항구가 없음)으로 단가가 상승하여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있는 인근 태국 및 중국제품을 선호
3. 컴퓨터, 컴퓨터 주변기기
 - 가격에 민감하며 인근 태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저가 제품을 선호함(HP, ACER, 레노버)

2013년도 시장전망 요약

1. 방글라데시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

- 대내외 경제여건의 악화로 경제에 불확실성과 위기감 고조
- FY 12년, 경제성장이 큰 폭으로 둔화되지는 않을 것이나, 당초 전망치(7%) 보다 둔화전망

2. IMF 차관(10억 달러) 관련 향방이 주목

- 승인 시 방글라데시의 국제수지 압박과 다카화 가치 회복에 일조할 것
- 그러나 IMF 자금은 조건이 붙으므로 정부지출, 보조금 축소 등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
- 방글라데시 정부의 경제정책 수단이 제한되므로 단기적으로 성장을 낮추는 요인이 될 가능성

3. 수입수요 둔화 예측

- 경제성장과 수출 둔화로 전반적인 수입수요가 위축될 가능성
- 수입은 발전을 위한 연료와 긴급물품 중심으로 수행
- 이미 자본재(기계장비), 산업용 원재료, 소비재 등에 대한 신규 수입신용장(L/C) 개설이 감소하고 있는 바, 향후 이들 제품에 대한 수입 부진 예고

4. 개발 프로젝트 실행 지연 우려

- 정부 지출과 해외원조 감소세 등을 감안하면 인프라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 실행이 지연되거나, 우선순위를 두어 선별적으로 수행될 가능성
- 유럽발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으로 민간협력사업(PPP)에도 부정적인 영향 초래
- 방글라 정부와 해외원조기관(세계은행)과 마찰 또한 프로젝트의 빠른 실행에 걸림돌
 - 세계은행 등이 자금지원하는 파드마 대교 건설 프로젝트 진행이 중단되어 있는 실정

5. 경제에 플러스 요인이 되는 두가지 트렌드(EIU 제시)

- 첫째, 해외 주요 의류 바이어 사이에서 방글라데시가 중저가 의류 부문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국가라는 인식 고착화
 - 방글라데시로 직접투자 및 오더 쇄도 : 최근 다카 시내 호텔룸 예약이 어려움
- 둘째, 지난 2007~08년 과도정부가 추진한 반부패 정책 때문에 제도권에서 이탈했던 막대한 자금이 공식경제에 투자되고 있다는 점

호조 예상 품목

1. 기계/장비: 포장기계, 식품가공기계, 냉동설비, 농기계, 제약기계
2. 컴퓨터/정보통신: 핸드폰, LCD 모니터, 컴퓨터 주변기기
3. 섬유/피혁: 원단, 실, 섬유원부자재, 중고 섬유기계
4. 화학/플라스틱: 제약 원료, 플라스틱제품 원료, 염색원료
5. 의료/건강: 의료기기, 헬스용품
6. 전기/전자: 발전 및 송배전 관련기기

부진 예상 품목

1. 섬유/피혁: 범용의류, 가죽제품
2. 농수산물/식품: 각종 식품류
3. 스포츠/레저: 스포츠용품, 레저용품
4. 목재/가구: 목재, 가구

2013년도 시장전망 요약

1. 베트남 물가상승률 안정화 추세

- 2011년 18%에 달하였던 물가상승률이 전년 동기대비 8.34% 정도로 안정화되어 가는 추세임
- 금리도 2011년 20 ~ 25%에 달하던 것이, 최근에는 12% 내외로 안정화됨
- 다만 전기요금인상, 인건비(최저임금수준 상향조정) 인상 등 물가불안정 요소는 상존함

2. 베트남 경제성장 둔화

- 2012년 상반기 GDP 증가율은 4.38%로,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임
- 베트남 제조업 PMI(Purchasing Manager Index)도 지수설정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베트남 내수시장 침체로 인한 시장수요감소와 유럽경제악화에 따른 수주량 감소 등 반영)
- 베트남 정부는 세금감면정책을 추진중이나, 재정적자 등의 이유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3분기부터 경기부양책을 쓸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3. 수입감소에 따른 베트남 경상수지 개선

- 베트남 수출은 삼성핸드폰, 전자제품공장 투자 등으로 상반기에 22.2% 증가하였지만, 상반기에 수입은 6.9% 증가에 머물렀음(정유, 철강, 자동차 등 수입이 전년에 비하여 크게 감소)
- 2012년 1~7월 누적경상수지적자는 5,300만 달러로 낮지만, 매월 수입금액이 꾸준히 감소중으로 내수소비목적의 수입이 전년동기대비 7.3% 감소하여 불황형 경제구조를 보임

4. 호치민 (베트남 남부) 경기 침체중

- 은행권의 대출 부진 (연초대비 상반기 0.76% 정도 증가)으로 투자소비 위축
- 유럽권 위기에 따라 봉제제품 주문 감소

5. 노동집약산업에서 기술집약산업으로 이동중

- 삼성전자의 박닌성 핸드폰 공장 (생산착수), 노키아의 핸드폰 공장 (설립 중) 유치로 후방산업이 투자가 늘고 있음
- 인텔은 반도체 Chip 패키징 공장을 투자하여 운영시작함
- 과거 봉제산업 위주의 투자진출이 하이테크산업으로 전환되면서, 관련 산업의 동반진출이 예상되며, 일본은 2012년 들어 베트남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며, 관련 부품기업 생산기지도 동반 진출하는 것으로 보임

호조 예상 품목

- | | |
|--|---|
| 1. Industrial valves and pumps | 2. Industrial couplings, pipes and fittings |
| 3. Security equipment: Access control equipment, CCTV system | |
| 4. Fire protection & fire fighting equipment | 5. Industrial laundry equipment |
| 6. Interior fabrics | 7. Wallpaper |
| 8. Medical equipment for hospital: Ultrasound imaging system, X-Ray machine | |
| 9. Drugs (antibiotics, gastro-intestinal drugs, cardiovascular...) | |
| 10. Facial cosmetics | |
| 11. Industrial filter (air filter, fan coil unit filter, pre-filter, medium filter, oil filter, non-woven filter...) | |
| 12. Interactive electronic board | 13. Bio organic fertilizer |
| 14. Used special vehicles (used truck mounted-crane, firefighting truck, excavator...) | |
| 15. Water and waste-water treatment chemicals | 16. POS equipment |
| 17. Repair equipment for automobile (garage equipment, wheel alignment) | |
| 18. Generator | 19. Automatic doors |
| 20. Mobile games and online games | |

부진 예상 품목

- | | |
|---|------------------------------------|
| 1. Software | 2. Marine & shipbuilding equipment |
| 3. Ginseng products and functional food, supplements | 4. Paint and coatings |
| 5. Garment, clothing, apparel, footwear, bag, accessories | |
| 6. Furniture (cabinet, closet, bed, bathroom shelves/ accessories, kitchen shelves/ accessories...) | |
| 7. Electronic products and electronic parts | |

2013년도 시장전망 요약

1. 국내

- 전반적 경기는 경제성장률 6%로 회복, 물가안정, 환율하락안정세 지속 등으로 호조세

2. 대외

- 중국의 경기부양, 유럽 재정위기 불확실성 부분적 해소, 미국 고용시장 개선, 일본의 경기 회복 및 베트남 투자 증가

3. 종합

- 국내외 우호적 경제환경으로 베트남 경제 회복, 한-아세안 FTA 이행계획에서 관세철폐 대상 품목이 50%로 확대됨에 따라 소비재시장 개방 확대, 경기회복에 따른 산업재(부품소재 품목) 수입 증가 예상

호조 예상 품목

1. 생활소비재 : 화장품, 미용도구, 건강식품, 주방용기
2. 가전/IT : 스마트폰 및 관련 액세서리, SI 프로젝트
3. 부품소재 : 자동차 및 오토바이 부품/액세서리, 고급의류원부자재
4. 의료 : 의료기자재, 건강보조기기
5. 문화컨텐츠 : 캐릭터 상품, 모바일게임
6. 기타 : 경찰용품(방탄복, 최루탄 등), 특수장비차량(앰불런스 등)

부진 예상 품목

1. 건설 : 건축용 고급기자재, 건설중장비
2. 생활소비재 : 섬유, 의류 등 중저가제품
3. 기타 : 저가형 CCTV, 액세서리(안경테 등 중국제품과 가격경쟁이 떨어지는 중저가 액세서리 제품) 등

2013년도 시장전망 요약

1. 기회요소

- 부유층 중산층의 확대 및 소득의 증대
 - 최저임금도 두 자릿수 성장률로 급격히 증가['10년(55\$) → '11년(61\$) → '12년(73\$)]하여 잠재적 소비층으로 부상
 - '13년 이후 1인당 GDP 1,000불의 시대가 곧 도래할 것으로 기대
- 서구식 생활패턴으로의 변화
 - 경제활동인구 및 신용카드사용의 증가
- 기존 전통적인 소매유통시장에서 기업형 유통망으로의 빠른 변화

2. 위협요소

- 높은 관세
 - 일반관세 15%~35%에다 특별관세 및 VAT가 부과되면 50% 이상의 관세가 됨
- 주변국인 태국과 베트남으로부터의 밀수된 제품이 재래시장뿐만 아니라 현대식 슈퍼마켓까지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어, 정식으로 수입되는 한국제품의 경제력을 약화시킴
 - 생필품, 잡화, 화장품, 기계부품 등 거의 전품목이 밀수로 유통되고 있음

호조 예상 품목

1. 필수 소비재(현지 생필품 생산시설 부재로 가격 경쟁력 높은 상품은 진출 가능성 높음)
 - 화장품, 사무용품, 정수기, 음료, CCTV 등
2. 상용차 및 관련 부품
 - 중고 트럭, 차량용 배터리, 오토바이 헬멧 등
3. 농축산업 관련 제품(전형적인 농업국가로 농축업생산성 증대 제품)
 - 농기계, 곡물건조기, 축산 백신 등

부진 예상 품목

1. 인삼(열대지방 특성상 발열제품으로 알려진 인삼 등은 현지인 비선호)
2. 농산물 및 그 가공품(현지생산 저렴한 농산물 다수 존재)
3. 한국식품(포장삼계탕, 냉동만두 등 한국특산품. 높은 가격과 다른 입맛 때문에 일반적인 현지인 수요 아주 낮음)
4. 기계부품류(2차 제조산업이 부재하여 관련 산업에 소요되는 부품 수요 없음)
5. 고가 자동화기계(비싼 전기료, 낮은 인건비로 인해 교체 수요 낮은 편)

2013년도 시장전망 요약

1. 소비재품 수입규모 축소를 위해 환율인상 단행, 사치성 소비재품 수입 감소 예상
 - 외국 식품, 음료, 주류 등의 세금인상으로 소비자 구매수요 감소
 - 가전, 자동차 등 고가성 가정용품 구매수요 감소
2. 국내 제조기업이 취약하여 수입수요는 대폭 증가하고 있으나 수입제품간 경쟁이 격화
 - 외국제품의 신규진출에 적기인 반면 수입제품이 범람하고 있어 적절한 현지파트너 발굴에 애로
3. 투자재 및 중간재의 수입수요 지속적 증가
 - 스리랑카 최고 주력산업인 의류 및 차산업의 수출증가에 따라 관련 원부자재 수입 증가
 - SOC확충과 관련된 건설 원부자재 및 장비 수요
 - 관광산업 활성화로 호텔, 상가, 오피스텔 건립 증가, 이로 인한 건설 원부자재 수요

호조 예상 품목

1. 건설원부자재 : 페인트원료, 방수재, 철강, 압연제품, 빌렛 등
2. 전력기자재 : 발전소 및 송배전선용, 변전소용, 차단기 등 가정용장비
3. 의류원부자재 : 섬유원단 및 의류생산용 기계 및 기자재
4. 석유화학제품 : PP/PE레진 및 필름, 접착제, 방수제, 염료 등
5. 에너지 재활용 제품
6. 의료용품 및 장비(단, IT를 응용한 시스템구축 장비 제외)

부진 예상 품목

1. 식품류 :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관세 높음
2. 인테리어제품 : 공기정화기, 고가의 인테리어 제품
3. 반도체, LCD, LED 등 첨단산업 제조용 원부자재(완제품 생산공장 없음)

2013년도 시장전망 요약

1. '13년 주요 경제지표

- GDP 성장률 : 5.1%('12년 4%대 예상)
- 민간소비 증가율 : 6.3%('12년 6.7% 예상)
- 수입증가율 : 6.4%('12년 5.5% 예상)
- 환율 : 2.94 링깃/달러('12년 3.05 예상)

2. '13년 시장 전망

- '13년 말레이시아 경제성장률은 5%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 '12년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여파로 성장률이 4%대로 하락했지만, 국내수요가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정부주도의 ETP의 지속적인 실행으로 공공부문의 수요가 뒷받침함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다시 5% 대로 회복할 것으로 예상
- 민간소비의 경우 '12년 이후 공공부문 임금이 상향조정되고, 중저소득층에 대한 금융지원이 실시됨에 따라 안정적으로 증가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
- 수출입과 관련, '12년에는 전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수입도 침체가 예상되나, '13년에는 경기회복에 따른 소비의 증가로 다시 6.4% 대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
- 환율은 달러화 대비 말레이시아 링깃화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

호조 예상 품목

1. 식품: 한류로 인해 한국식품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말레이시아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상승하면서 한국식품의 현지진출여건이 개선되고 있음
2. 화장품
 - 한류가 확산되어 한국연예인들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어 한국화장품의 인기가 증가
 - 고급제품은 미국, 유럽, 일본제품이 선점하고 있고, 저가는 현지브랜드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품목보다는 기능성제품 등 특화된 제품으로 진출하는 것이 유망
 - 미백제품, 안티에이징제품, 한방화장품 등에 대한 바이어 문의 증가
3. 기능성 식물: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고급 섬유 수요 증가,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섬유가 필요
4. 자동차 부품: 40만대 생산량 규모의 현지 완성차 업체가 있고, 신차개발이 꾸준히 이루어져 한국 부품기업의 시장진출 기회 존재
5. 건설 중장비: 건축시장 활성화에 따른 건설장비 수요 증가
6. 조선 플랜트 기계류
7. LED 조명: 정부친환경정책에 따른 수요증대
8. 태양광 모듈: 정부친환경정책에 따른 수요증대
9. 의약품: 말레이시아 의약품 산업의 경쟁력이 크지 않아 수입제품에 대한 수요가 크며 현지 의약품 업체들의 한국제품에 대해 관심이 큼
10. 의료기기: 한국제품의 현지 수입이 늘어나고 있고 제품 인지도도 상승하고 있어 향후 對 말레이시아 수출 확대가능성이 높음
11. 스테인리스 스틸 플랜지: 현지 바이어들 면담에 따르면 한국 플랜지 제품이 현지 시장에서 인지도가 높은 제품으로 나타나고 있음
12. 반도체 장비: 우리나라로부터의 수입이 최근 3년간 전체 수입의 10%대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 일본과 함께 3대 수입 대상국임

13. 배터리: 자동차용 배터리 및 2차 전지 수요 증대
14. PCB: 최근 3년간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이 5위 이내 기록
15. 건설용 중장비 부품: 한국산 부품에 대한 수요 증가
16. 인테리어 부자재: 타일, 벽지 등 고급 인테리어 부자재에 대한 수요 상존
17. 기능형 IT 기기: 회의용, 교육용으로 쓰이며 특별한 기능이 있는 IT 기기
18. 반도체: 아날로그 반도체 등 특수 반도체
19. 휴대용 정보처리기기: 넷북, 노트북 등 휴대용 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수요가 큼
20. 기능성 음료 및 식품: 주스, 건강보조제 같은 기능성 식음료에 대한 바이어의 반응이 좋음

부진 예상 품목

1. 가정용 전기기기 : 파나소닉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으로 글로벌기업에 의해 시장 장악
2. 고무제품 : 현지 생산기업 포화 상태
3. 신발
4. 의류 : 중국산 저가제품이 시장 장악
5. 고무 및 팜플랜테이션 관련 기기 : 현지 제조 기업 다수 존재

2013년도 시장전망 요약

- 유로경제위기 영향으로 대외여건이 악화되고, 무역수지 적자폭 확대 및 재정적자로 인한 루피화 하락, 인플레이션 위협으로 인해 고금리 지속,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금융 정책 수단의 한계 등으로 인해 '11-'12년 인도경제는 6%대로 성장율이 하락하였으나
- 루피화 절화로 인해 무역적자 개선이 기대되고, 대외무역의존도가 낮아 외부충격이 덜한 편으로 BRICs국가 중 여전히 중국 다음으로 높은 성장률을 지속하고 있음
- 평균 26세의 젊고 풍부한 노동력과 12억 인구에 기반한 풍부한 내수시장이 성장의 원동력으로 인도 정부는 12차 경제개발계획에 인프라 개선에 1조달러의 대대적인 투자를 계획하고 있고, 경제개혁정책이 수반될 경우 빠른 회복이 가능. 인도 경제 리스크의 많은 부분은 정치리더십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유통시장 외국인 투자 개방, 세무정책 신뢰도 제고 등 몇 가지 조치만으로도 빠른 성장궤도로 다시 진입 가능할 전망

호조 예상 품목

1. 인프라 투자확대에 따른 수요증대품목
 - 발전설비, 송배전설비, 변압기, 건설장비, 광산설비, 철도기자재 등
2. 자동차산업 및 제조업 성장에 따른 수요증대품목
 - 자동차부품, 금형, 다이, 플라스틱제품, 철강제품, 알루미늄, 공작기계, 공구
3. 기타 제조 및 서비스산업 발전에 따른 수요증대품목
 - IT통신장비, 보안제품, 열교환기, 비료, 석유화학, 산업용배터리, 포장기계
4. 생활수준 증대에 따른 소비재
 - 건축자재, 핸드폰, 이·미용품

부진 예상 품목

1. 자국문화 이외의 무관심, 한류 미발달로 인한 부진품목
 - 식품(김, 한국음식), 건강식품(홍삼 등), 한류관련 상품(드라마, 캐릭터, 음반)
2. 가격 중심 시장으로 인한 진입 어려운 품목
 - 각종 생활용품, 가전(현지진출 제외)
3. 법규로 인한 제한품목
 - 자동차용 열차단필름(대법원에 의해 부착금지)

2013년도 시장전망 요약

- 2012년 인도 경제는 급격한 무역수지 적자 확대와 루피화 절하로 구매력이 급격히 저하되어 시장개척에 애로사항으로 작용
- 이러한 여파로 IMF의 올해 성장전망도 6.5%로 하향조정되었으며 피치, S&P의 인도 신용등급도 BBB-Negative로 강등됨
- 2013년에는 그간 인도 경제의 발목을 잡았던 인플레이션이 진정되면서 기업투자가 다소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되며, 외국인 직접투자도 활발할 것으로 보임
- 또한 금리인하가 진행되어 투자 및 소비가 활성화 될 것으로 사료됨
- 2012년 다소 부진했던 자동차, 철강 등 제조업 분야의 회복이 예상되며 소비재 부분도 구매력회복에 힘입어 성장이 예상됨
- 한편 루피화 절하추세는 올해 말부터 진정되어 내년에는 2011년도 초 수준으로 돌아올 전망이어서 전반적인 수입수요 증가로 이어질 것임

호조 예상 품목

1. 자동차부품 (OEM, A/S) 첸나이 자동차산업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
2. 전자통신장비 및 부품 통신장비 및 부품 수요 크게 증가
3. 컴퓨터부품 인도 하드웨어부분이 매우 취약함
4. 각종 기계류, 공구, 중장비 등 제조업 분야 성장이 매우 두드러짐
5. 건설장비 및 건축기자재 건축분야 수요가 크게 증가, 정부건설포함
6. 석유화학 및 합성수지 제조업분야 성장과 함께 수요가 크게 늘고 있음
7. 의료기기, 정수기 등 생활의 질이 향상되며 수요가 확대되고 있음

부진 예상 품목

1. 의류 인도는 중국다음으로 의류 생산국가임
2. 건강제품, 허브제품 일반적 건강제품 종류가 다양하고 가격경쟁력 없음
3. 소프트웨어, 문화컨텐츠 경쟁력이 없음, 인도 세계2위 소프트웨어 개발국가임
4. 농수산물, 식품 인도 음식문화가 매우 상이
5. 화장품 기능성화장품이외 화장품류는 현지 공급업체 다수
6. 일반 소비재 고관세 및 유통구조가 복잡하여 경쟁력 미약

인도 - 뭄바이무역관

2013년도 시장전망 요약

- 전세계적인 경기 침체에 인도 역시 예외는 아니며, GDP 성장률이 6% 이하로 떨어지고 향 후 전망도 밝지 않음('13년에도 5~6%의 둔화된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
- '11년 6월, 7월 수출과 비교하여 올해는 15% 이상 폭락하였음(주요 제조업 분야의 생산량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음)
- 인플레이션은 목표치인 5%를 웃돌고 있으며, GDP 5%의 재정적자를 보이고 있음('12년 인도 루피화 미 달러 대비 12~13%의 가치 하락을 기록)
- 루피화 약화로 인한 수입 구매력 감소로 승용차, 상용차 등 고가제품의 수입은 줄어들고 있으나, 지속적인 소비수준 증가로 생활용품, 전자기기 및 핸드폰, 보안 장비 및 교육 분야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음
- '12년 정부 주도 인프라 사업 발주는 계속되고 있으며, 이는 2013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임

호조 예상 품목

- 인도 엔지니어링 산업의 자동화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한 변화로 전력기자재, 건축자재, 해양 제품 및 공장 자동화 기술을 한국에서 들여오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또한 한국산 플라스틱/고무 제작, 보안 장비, LED, 화장품, 제약 장비, 승용자동차 부품 및 태양광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이는 2013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임

부진 예상 품목

- 산업 수요 감소로 중형 상용차의 판매가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관련 제품은 2013년 수요가 부진할 것으로 보임
- 신재생에너지 중 풍력발전은 필요 용량 이상의 장비가 투입되었기 때문에 추가 시장수요는 없을 것으로 예상

2013년도 시장전망 요약

1. 세계 경기 위축 속에서도 2013년 6%대 경제 성장 지속 전망
 - 2012년 2/4분기에 세계경기의 위축에도 불구하고 6% 성장함
2. 수출 경기는 부진할 것으로 보이나 내수와 외국인투자 호조 예상
 - 수출은 유럽발 위기로 인해 부진을 보이고 있으며 수입은 상대적으로 많아 무역수지는 적자가 예상
 - 그러나 중산층의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있고, 젊은 인구수가 많아 내수가 경제를 지탱
 - 특히 2012년 200억불의 외국인 투자에 이어 2013년에도 공장이전, 서비스 산업 진출 등에 외국기업의 진출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됨
3. 자원개발은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부진
 - 국제 원자재 가격이 세계경기 위축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인니 정부도 부가가치를 높여 자원을 수출하도록 하는 등 자원분야의 발전은 상대적으로 부진 전망
4. 정부의 비관세 무역장벽 정책 주의 요망
 - 과일, 신선채소 수입절차를 복잡하게 하거나 수입업자 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정책이 2012년 발효
 - 2013년에도 수입억제를 위한 정책에 대해 주의 깊은 관심 필요

호조 예상 품목

- | | |
|------------------|------------------------------|
| 1. 화장품 | 2. 식품(프랜차이즈 포함) |
| 3. 프라이팬 | 4. 밀폐용기 |
| 5. 주서기 | 6. 미용기구(마사지기 등) |
| 7. 밸프(오일 및 가스분야) | 8. 파이프(오일 및 가스분야) |
| 9. 소형 발전기 | 10. LED 제품 |
| 11. 스티커, 팬시 제품 | 12. 건강보조식품 및 건강보조장비(헬스 장비 등) |
| 13. 발전기자재 | 14. 섬유 및 봉제 액세서리 |
| 15. 사출 및 금형기 | 16. 의료장비 |
| 17. 의약품 | 18. IT 소프트웨어(사무실 사용) |
| 19. 산업용 기계 | 20. 소형 가전 및 전자장비 |

부진 예상 품목

- | | |
|---------------------------|-----------|
| 1. 자동차 부품 | 2. 일반 문구류 |
| 3. 단순 완구 | 4. 섬유 원단 |
| 5. 합성수지(PE, HDPE, LDPE 등) | |

2013년도 시장전망 요약

1. GDP 현황과 전망

- 2011 GDP는 3,456억불로 전년비 0.1% 성장, 그 이유는 하반기 대규모 홍수사태로 주요 산업단지 침수 피해 발생
- 2012~13년 태국경제는 5% 수준의 양호한 경제성장 전망

2. 태국 수출입 동향

- 태국 2011 수출은 2,254억불로 전년비 16.4% 증가, 2012 수출은 2,595억불로 전년비 15.1% 증가 전망
- 태국 2011 수입은 2,019억불로 전년비 24.7% 증가, 2012 수입은 2,468억불로 전년비 22.3% 증가 전망
- 태국 2012 수출은 5.8%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 이는 지난 3년간 가장 낮은 수치임. 수출증가세 둔화 이유는 유로존 위기의 영향 때문
- 유로존 위기와 직접 관계되는 수출품은 식품, 보석, 가전, 섬유, 고무 등임

3. 금융부문

- 태국 중앙은행에 따르면 유로존 위기로 단기적으로 태국 금융시장의 유동성 증가 전망
-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국 금융시스템은 기초가 견고하기 때문에 위기상황은 없을 것으로 예상

호조 예상 품목

1. 화장품: 한류붐에 따라 국산 화장품에 대한 인기 지속, 2011 한국 수입국 7위
2. 합성고무: 태국 자동차, 신발, 섬유, 전자 분야에서 합성고무 수요 높음
3. 문구: 국산 문구류 태국 소비자에 우수한 디자인, 기능성으로 호평
4. LED조명: 태국 LED조명 수요 매년 확대 추세, 광고, 쇼핑몰에서 수요 높음
5. 건강보조식품: 가계소득 증가에 따라 건강유지에 관심 상승, 건보식품 수요 확대
6. 완구: 도시화 및 가처분소득 상승으로 수입산 완구에 대한 구매층 증가
7. 보안장비: 범죄증가, 보안의식 향상으로 각종 보안장비, 기기 수요 확대
8. 의료기기: 한류스타 영향으로 성형, 피부관리분야 국산 의료기기 수입 증가
9. 제과: 국산 스낵류, 과자류의 태국 수입 증가, 김 스낵류의 인기가 높음
10. 식품첨가제: 태국은 각종 식품 첨가제를 외국산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부진 예상 품목

1. 금형: 일본계 금형공급업체가 시장을 장악, 국산금형의 신규 진출 난망
2. 자동차부품: 태국 자동차시장은 일본계 메이커가 시장을 과점, 국산 자동차부품의 채택 가능성이 낮음
3. 정수기: 태국 현지 메이커 출시 저가제품의 성능, A/S수준 향상 지속
4. 인삼, 홍삼 관련 제품: 중국산 저가 제품이 주로 소비, 국산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짐
5. 주방용품: 태국산, 중국산 저가품 대비 비싼 국산 제품의 선호도가 낮은 실정

2013년도 시장전망 요약

1. 줄어드는 산업생산으로 인해 물가상승 전망

- 올해 하반기 성장은 3%로 기획하고 있음. 상반기 성장률은 2.5% ~ 2.7%로 추측됨
- 소비자물가지수 인플레이션율은 상반기 13.7%에서 올 한해 11% 정도로 예상됨
- 산업 생산물은 전기, 가스 부족, 계속된 에너지가격 상승 때문에 더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 교통비용도 석유가격 상승으로 생산비용 증가가 예상됨. 미 달러화의 가치가 연일 상승하고 있어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 수입원료의 가격상승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
- 기타 주요이슈, 법률, 정국불안 등도 경제와 산업생산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음
- 현재까지 2012년 하반기 파키스탄 경제에 긍정적인 신호는 없음. 오히려 앞으로 닥칠 위기로 인해 부정적인 길로 가고 있음

호조 예상 품목

- | | |
|--------------|-----------|
| 1. 정밀기계 | 2. 자동차부품 |
| 3. 철강제품 | 4. 의료기기 |
| 5. 보안장비 | 6. 화장품 |
| 7. 섬유기계 | 8. 공작기계 |
| 9. LED Light | 10. 화학 |
| 11. 수산물 | 12. 건설장비 |
| 13. 발전기 | 14. 태양광패널 |
| 15. 의약품 | 16. 화장품원료 |
| 17. 배터리 | 18. 방충제 |
| 19. 산업용화학품 | 20. 커넥터 |

부진 예상 품목

- | | |
|---------|-----------|
| 1. 섬유류 | 2. 무선통신기기 |
| 3. 자동차 | 4. USB |
| 5. 액세서리 | |

2013년도 시장전망 요약

1. 안정적인 내수기반과 견고한 소비 유지

- 필리핀 해외근로자의 본국송금액 증가에 따른 필리핀 내수 소비시장 이 안정적이고 건설경기도 호황 전망. 이에 따른 가전, IT제품, 무선통신기기, 건설기자재 등의 수요 증가 예상

2. 해외근로자의 본국송금액 기반의 민간소비 활성화

- 2011년도 필리핀 해외근로자의 본국송금액은 201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필리핀 중앙은행(BSP)은 올해 전년대비 5% 증가한 211억 달러의 송금 전망

3. IT-BPO 산업 성장

- 2011년 필리핀 IT-BPO 산업은 전년 대비 24% 증가한 110억불의 총 매출액을 달성하였으며 올해에도 증가 전망. 이로 인해 관련 산업 및 기자재의 수요가 기대되고 있음
- 2016년까지 매년 20% 이상의 성장, 총 매출액 250억불 달성, 필리핀 GDP의 9% 기여, 세계시장점유율 10% 차지 등을 달성한다는 'Roadmap 2016' 플랜 추진 중
- 필리핀은 제조업 기반이 약한 반면 서비스 부분 비중이 GDP의 50% 이상을 차지

4. 정부주도의 민관협력방식(PPP) 프로젝트 활성화

- 도로, 공항 등 사회기반시설 프로젝트로 관련 기자재 수요 증가 예상

호조 예상 품목

1. 기계류: 디젤발전기, 곡물건조기, 집진기, 컨베이어 벨트 등
2. 전기, 전자제품: LCD TV, 디지털카메라, 핸드폰, 영수증 인쇄기 등
3. 의료용품: 진단시약, 혈당 측정기, 환자감시장치, 내시경, 동물치료약 등
4. 생활용품: 화장품, 주방용품 등
5.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휠얼라이먼트 장비, 견인차, 연료전환장치, 트럭냉동장치, 연료 펌프
6. 화학제품: PVC 필름, 에폭시, 비농업용 살생물제, 에틸알코올 등

부진 예상 품목

1. 철강, 금형: 강철 문, 플라스틱 사출금형 등
2. 식품: 고추가루, 김 등
3. 의료기기: 침
4. 자동차부품: 자동차 배터리

2013년도 시장전망 요약

1. 외진 곳에 위치한 작은 시장

- 뉴질랜드 세계의 주요 도시 및 시장과 멀리 떨어져 있어 호주를 제외하고는 협력이 가능한 국가 및 주요 시장이 주위에 없음
- 443만 명에 불과한 인구로 절대 수요가 낮음
- 바이어들은 다품종 소량 구매 경향이 뚜렷하고, 최소 주문량에서 우리 기업들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2. 호주에 대한 높은 의존도

- 호주, 뉴질랜드, 뉴기니 등 남태평양 제도 전체를 통칭하여 '오스트랄라시아(Australasia)'로 부를 정도로 호주가 이 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큼
- 뉴질랜드 시장이 호주 시장의 일부로 인식되는 경우도 많으며, 실제로 호주 바이어가 뉴질랜드 시장을 관할하는 경우도 많음

3. 거대시장 중국에 대한 높은 기대감 (중국, 최대 수입대상국으로 부상)

- 중국과 FTA체결(2008년) 후 양국간 거래량이 급증하였고, 2011년에는 수입대상국 순위에서 중국이 호주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함

4. 1차 상품에 대한 수출의존도 과다

- 전체 수출에서 1차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60%를 넘고 있어, 이들 상품의 국제가격 변동에 따라 전체 수출액과 무역수지가 영향 받는 현상이 나타남

5. 중소기업 비중 높아

- 뉴질랜드 기업의 97%가 종업원 20명 이하의 중소기업이며, 종업원 100명 이상의 기업은 1% 미만에 불과할 정도로 중견기업 및 대기업의 숫자가 미미한 상태

6. 바이어의 보수적 성향

- 대부분의 뉴질랜드 기업은 일단 좋은 거래관계를 유지하면 거래처를 잘 바꾸지 않는 보수적 성향을 갖고 있음. 이러한 유럽형 보수성 때문에 상호 신뢰가 쌓이면 안정적인 거래를 지속하는 장점도 많음

호주 예상 품목

- | | | |
|--------------|----------------|---------------|
| 1. 식품포장재 | 2. 핸드툴 | 3. 플라스틱수지 |
| 4. 건축단열재 | 5. 건축용 슈링크랩 | 6. 페인트수지 |
| 7. 휴대전화 액세서리 | 8. 한국가공식품 | 9. 농부자재 |
| 10. 농기계 | 11. 중장비부품 | 12. 중장비 어태치먼트 |
| 13. 철강제품 | 14. 건축내외장재 | 15. 안전장비 |
| 16. 첨단미용기기 | 17. 의료기기 | 18. 자동차 소모품 |
| 19. 소방호스 | 20. 산업용 플라스틱제품 | |

부진 예상 품목

- | | | |
|-------------|---------------|----------------------|
| 1. 농축산물 | 2. 임산물 | 3. 의약품 |
| 4. 의류 | 5. 안경 및 콘택트렌즈 | 6. 유행에 민감한 소비재 및 팬시류 |
| 7. 비누 및 치약류 | | |

2013년도 시장전망 요약

- 현재 호주 경제는 약 3%대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자원개발 분야가 뒷받침 해주기 때문임. 그러나 자원개발 분야도 자원가격의 하락, 원가상승, 노동생산성 저하, 타국가와의 경쟁 등으로 인하여 고점을 지나고 하락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 지배적임
- 호주 경제는 아시아 경제와 매우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으며 특히 중국, 일본, 한국, 인도 등의 경제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
- 또한 인건비, 물가 등 원가 상승에 따라 현지 제조비율이 축소되어 이 부분에 대한 수입 증가가 확대될 것으로 판단되고 당분간 호주화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바잉파워 증가에 따른 수입 확대 기대
- 중국경제가 큰 변수이긴 하나 금년도(GDP 3% 성장)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중국 등 아시아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원자재 가격이 회복된다면 3% 이상의 성장을 기대 가능

호주 예상 품목

- | | |
|---|---------------------|
| 1. 보안장치 및 기기 | 2. 농기계 및 기자재 |
| 3. 헤어 용품 및 기기 | 4. 의료기기 (예: 치과 소모품) |
| 5. 건축기자재(예: 알루미늄 패널 및 내/외장재) | 6. 친환경 생활 용품 |
| 7. LED 및 LCD 디스플레이(40인치 이상의 대형 및 야외사용 기능제품) | |
| 8. 축전지 | 9. 산업용 히트 펌프 |
| 10. 친환경 장난감 및 유아 제품 | 11. 화학 및 천연 비료 |
| 12. 타이어 (중고타이어 포함) | 13. 사무용 가구 |
| 14. 옷감 직물 | 15. 동파이프 |
| 16. 산업용 밸브 및 피팅류 | 17. 애견 용품 |
| 18. 전자제품 (아이디어 상품) | 19. 전력 케이블 |
| 20. 유압브레이크(부품 등) | |

부진 예상 품목

- | | |
|--------------------|--------------|
| 1. 화장품(예: 색조 및 한방) | 2. 자동차 부품 |
| 3. LED 및 OLED 라이팅 | 4. 주방용품 및 기기 |
| 5. 의료기기 (대형 제품) | |

2013년도 시장전망 요약

1. 자동차산업

- 자동차 생산량이 감소 추세이긴 하나, 자국내 고용효과가 큰 산업인 만큼 정부지원금을 투입하며 유지하고 있음
- 호주 빅토리아 및 남호주 지역에 GM Holden, Toyota, Ford사가 제조공장을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동차 부품 OEM 시장에 수출을 하고 있음
- 아울러 자동차 보유량이 약 100만대 수준이며 자동차 평균 사용기간도 길어 자동차 부품 A/S 시장이 유망하나 가격경쟁력이 중요함

2. 탄소세 적용

- 2012.7.1일자로 탄소세를 도입함에 따라 각종 전기세, 가스세 등이 10% 이상 인상되고 있어, 에너지 절감 제품에 관심이 모여지고 있음

3. 기타

- 공산품의 약 90%를 수입에 의존, 생활소비제도 수출 유망한 품목이라 할 수 있으나 가격에 민감한 시장인 만큼 가격 경쟁력이 진출에 관건임

호주 예상 품목

- | | |
|--------------------------|--------------------------------|
| 1. 자동차 부품 OEM, A/S | 2. 건설용 중장비, Hydraulic fitting류 |
| 3. 플라스틱 레진(PP, PE, ABS등) | 4. 철강제품/ 비철금속 제품 |
| 5. 기계/공구류 | 6. 보안장비 |
| 7. LED 전용 전광판 등 | 8. 치과용 의료기기 |
| 9. 신기술 도입 제품 등 | |

부진 예상 품목

1. 식약청 허가품목(의료기기 및 식음료품)
2. 광산 개발장비(최고급 선진국 제품 또는 현지 기반이 있는 장비만을 선호)
3. 농수산물, 유가공 식품류, 한방 관련 식품류
4. 제조업이 미약한 관계로 전기, 전자 제품 부품의 수요가 없음

일본

일본 - 도쿄무역관

일본 - 오사카무역관

일본 - 후쿠오카무역관

일본 - 나고야무역관



2013년도 시장전망 요약

- 엔고의 지속, 재정적자의 확대, 유럽재정위기 등 대내/외 악재가 겹치면서 2013년 일본 경기 또한 두드러진 회복없이 낮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이 전망됨
- 단, 엔고로 인한 수입수요의 확대는 우리 기업들에게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한류열풍이 유행에서 일본 문화의 일부로 확실히 정착되면서 'KOREA' 브랜드는 지속적으로 소비자들 사이에서 제고될 것으로 예상됨
- 일본을 지탱하는 제조업을 중심으로도 우리 제품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데, 지리적 이점, 우리나라의 적극적 FTA체결(제3국 소재 일본 생산거점으로서의 조달용), 삼성, 현대차 등 우리 대기업의 글로벌 무대에서의 약진(대기업 기용 부품들에 대한 대기업 구매 수요)이 주된 요인으로 꼽힘

호조 예상 품목

1. 전기전자 전반(LED, 모바일부품, 센서, 모듈 등)
2. IT컨텐츠(보안솔루션은 제외)
3. 자동차부품(일본기업에 대해 납품실적이 있는 경우)
4. 기능성 화장품(주름방지, 미백, 한방 다이어트 기능 등)
5. 가공식품(부침개, 삼계탕, 냉면 등 냉장식품 및 즉석 식품)
6. 생활소비재 품목(주방용품, 아이디어 상품, 생활잡화 등)
7. 절전 관련 상품
8. 친환경 및 에너지절약형 제품
9. 보안장비 제품
10. 기타 일본 글로벌기업에 납품실적이 있는 경우 상담주선에 매우 유리함

부진 예상 품목

1. 의료기기 관련 상품
2. 금형 및 금형 부품
3. 기계부품(공작기계, 농업용기계 등)
4. 항공우주 분야
5. 건축자재
6. 게임 분야
7. 식품류(김치, 젓갈, 고추장류, 인삼, 홍삼 등)
8. 패션 액세서리
9. 의류, 섬유 및 직물류

2013년도 시장전망 요약

- 2013년 일본경제는 부흥수요의 지속 및 견조한 소비세 등으로 개선추세가 이어지겠지만, 유럽재정문제와 엔화강세, 전력부족문제, 재정적자문제 등이 계속하여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2013년 GDP 성장률은 1.5%로 2012년의 2.2%에 비해 둔화될 전망이며, 지진복구 수요 이외 민간 소비 등이 살아날 수 있는 자극요인이 매우 적음.
- 단, 엔고회피 및 재난대비 등에 따른 일본 기업의 해외생산 및 해외 아웃소싱은 증가 전망

호조 예상 품목

- | | |
|-------------|-------------|
| 1. 피부미용기기 | 2. LED 조명기기 |
| 3. 플라스틱필름 | 4. 가공식품 |
| 5. 축전지 | 6. 전자재 |
| 7. 패션의류 | 8. 태양광모듈 |
| 9. 밸브류 | 10. 소형펌프류 |
| 11. 화장품 | 12. 철강제품 |
| 13. 기능성섬유제품 | 14. 특수금형 |
| 15. 건설기계부품 | |

부진 예상 품목

- | | |
|------------|---------|
| 1. 패션액세서리 | 2. 일반금형 |
| 3. 일반 주방용품 | |

일본 - 후쿠오카무역관

2013년도 시장전망 요약

- 지속적인 엔고로 자동차 부품 및 금형 관련 수입 증대 예상
- 한류의 영향으로 생활소비재 및 패션관련 상품 호조 예상
-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하여 고급시장, 저가시장 양분화 현상 뚜렷함

호조 예상 품목

1. 자동차부품 및 금형
2. 생활소비재(식음료, 주방용품, 아이디어 상품, 생활잡화 전반)
3. 보안장비
4. 패션관련(화장품, 의류, 액세서리, 구두 등 패션관련 상품 전반)
5. 태양, 자연 및 재생 에너지 관련 품목

부진 예상 품목

- | | |
|-----------------|-------------|
| 1. 공장 설비 관련 품목 | 2. 건설 관련 품목 |
| 3. 조선 기자재 관련 품목 | 4. 전기 관련 품목 |

일본 - 나고야무역관

2013년도 시장전망 요약

- 글로벌경기둔화 및 엔고지속으로 인한 수출부진과 가계수입 및 고용불안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으로 '13년도 일본경제는 올해 성장률을 밑돌 전망
 - 닛케이신문 실질경제성장률 전망치 : '12년도 - 2.3%, '13년도 - 1.6%
- 자동차, 금형, 전기/전자업체의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해외부품조달 움직임이 지속 또는 확대될 전망
- 민간소비심리 위축과 일본 정부의 소비세인상 움직임으로 인해 일반 소비재 시장은 위축될 전망

호조 예상 품목

1. 자동차부품 : 내외장품, 타이어, 기어박스, 전장품, 엔진부품 등
2. 과학광학기기 : 편광판필름(액정용), 스탬퍼(반도체제조장비), 안경, 렌즈, 쌍안경
3. 금형부품 : 코어, 몰드베이스, 핫러너, 기타구성품(핀, 스프링 등)
4. 반도체 등 전자부품 : IC, 트랜지스터
5. 항공기부품

부진 예상 품목

- 의류, 식료품, 가구류, 의약품 등 일반 소비재

중 국

중국 - 베이징무역관

중국 - 상하이무역관

중국 - 다롄무역관

중국 - 광저우무역관

중국 - 시안무역관

중국 - 선양무역관

중국 - 정저우무역관

중국 - 샤먼무역관

중국 - 난징무역관

중국 - 우한무역관

중국 - 창샤무역관

홍콩 - 홍콩무역관

대만 - 타이베이무역관

2013년도 시장전망 요약

- 글로벌 경제위기 장기화에 따른 중국 내외수 동시 위축으로 경기부진 지속
 - (성장) 상반기 7.8% 성장에 그치며 '09년 이후 처음으로 8% 붕괴
 - (수출) 1-7월 대외수출증가율 7.8%에 그치며 정부 목표치(10%) 미달
 - (투자) 고정자산투자증가율 역대 최저수준으로 하락
 - (소비) 소비증가율 지속적 하락세, 수출 및 투자 부진 만회 역부족
- 중국정부는 경기급락 방지 위한 성장 삼두마차(소비, 투자, 수출) 진흥책 전개, 경기부양 추진
 - 경착륙 가능성 존재하나 연착륙 전망(12년 중국 8% 성장 예상)
 - 물가안정, 내수부양 효과 가시화로 소비와 투자 회복 전망
- 중국내 우리기업의 경영비용 상승에도 불구하고, 내수시장 잠재력, 다양한 사업기회 발굴 가능성 상존

호조 예상 품목

1. IT 전기전자 제품 및 통신관련 부품
2. 고급 소비재: 생활수준 향상 및 품질, 기능에 대한 소비자 선택 다양화
3. 수입산 유아용품: 품질에 대한 신뢰도 및 교육열, 기능성 감안
4. 친환경 주방가전 및 주방용품: 온·오프라인에서 중국 소비자 확대 추세

부진 예상 품목

1. 건강식품류: 인지도가 저조한, 인증미획득 건강식품 진출 매우 어려움
2. 한국산 가공식품: 된장, 고추장, 장아치 등 소비층이 교포사회에 국한되는 경향 있음
3. 위생허가 미획득 화장품: 위생허가 취득에 소요시간, 비용이 많이 투입되어야 함
4. 일반적인 생활소비재: 중국산 저가 동종제품과 경쟁시 가격경쟁력 열위

2013년도 시장전망 요약

- 최근 중국은 경기 부진으로 생산자 및 소비자 물가 지수, 소비자 구매 지수 등이 2010년 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 또한 중국 최대 교역대상국인 유럽 경제권의 수요감소로 수출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중국 정부에서는 에너지 절감형 가전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소비진작책을 실시할 예정임
- 과거처럼 미국, 유럽에 대한 수출 확대에 급격한 경제성장이 어려운 만큼 중국 정부가 내수를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성장 및 선제적 미세 조정으로 정책을 펼치면서 내년도 고정 투자 및 소비 시장은 완만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호조 예상 품목

1. 중국 인증을 받은 한국산 화장품, 가공 식음료(현지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 바이어들이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음)
2. 칼라렌즈, 기능성 주방용품 등 추가 기능과 한류 이미지가 있는 소비재
3. 여성의류용 기능성 원단
4. 자동차 부품
5. 고급 기념품 및 선물용 제품
6. 디지털 제품(전자 도어락, CCTV 카메라 등)

부진 예상 품목

1. 전통 식품(한인 사회에는 현지 생산 제품이 많이 유통되고 있으며, 중국인 대상으로 할 경우 초기 마케팅 비용이 많이 필요함)
2. 정밀도, 기술 함량이 낮은 일반 기계 및 부품(현지에서의 가격경쟁력이 낮음)
3. 현지에서 보편화되지 않은 신소재 건축자재, 생활용품(비데, 자외선 치료기 등)
(새로운 개념의 제품은 현지 시장을 뚫는데 장기간 시간과 비용이 소요됨)

2013년도 시장전망 요약

1. 다렌 투자환경 변화

- 투자진출기업의 경영관리 비용 지속 증가
 - 다렌 평균임금 상승 추세, 외지노무공 양로보험 적용으로 인건비 부담 확대
- 글로벌 경제위기 장기화와 조선산업 불황에 따른 다렌 지역 조선소들의 선박 오더 및 수주 감소로 STX 다렌 협력업체들의 경영상황 악화 우려

2. 향후 전망

- 다렌지역의 경우, 제조업 및 임가공 등 노동 집약형 업종들은, 인건비 상승 등 현지 투자환경 악화로 인해 신규진출이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다렌을 동북지역 내수시장진출의 교두보로 삼아 서비스 업종, 유통업종 등의 진출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
- 지린성, 헤이룽장성의 경우, 한국산 식품과 생활용품 의류제품 진출이 유망하고, 농산품과 광산물의 원료공급지 및 현지가공, 풍력, 폐기물오수처리 등 환경산업을 중심으로 투자진출이 가능할 전망

호조 예상 품목

1. LCD 패널

- 패널은 자금, 기술 밀집형 산업으로 시장 진입장벽이 비교적 높으며 중국 핵심 기술의 수준은 한국과 대만 대비 상당히 뒤떨어짐
- 중국 LCD 생산업체들은 대부분 남방지역에 밀집, 동북3성 지역은 생산업체 미비
- 중국은 액정 TV 수요가 많으며 LCD 디스플레이 등으로 회사 광고 및 홍보를 많이 하기 때문에 관련 상품을 대부분 남방에서 구매하여 옴. 때문에 동북 3성에 진출한다면 이 지역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기어박스

- 중국 자동차 시장의 빠른 성장에 따라 기어박스 수요 증폭. 시장규모 300억 위안 이상
- 지린성은 자동차 공업단지로 CHINA FAW GROUP을 중심으로 많은 1차 벤더들이 밀집, 자동차 부품을 대부분 일본과 독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상황임

3. 아동가구

- 현재 아동가구는 특정 브랜드가 부재. 외국 상품이 중국 시장의 30% 이상을 점유함. 나머지 70%는 중국 브랜드이지만 그 중 30%만이 브랜드를 소유하고 나머지는 브랜드조차 없음. 때문에 대중의 관심을 받는 특정 브랜드는 딱히 없으며 일부 부모들은 거금을 들여 해외 친척이나 친구를 통해 해외 브랜드의 가구를 들여와 아이가 사용할 수 있게 함

4. 연축전지

- 중국인의 자동차 보유량이 증가함에 따라 자동차 산업이 발전하였고 축전지의 교체량이 높아짐
- 중국의 연축전지의 시장수요가 매년 15~40%의 성장률을 보임
- 자동차용 연축전지의 생산 및 수요는 향후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측됨

5. 방직기계

- 중국 의류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방직기계의 동반 성장 여지가 생김
- 본토 제품은 품질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향후 몇 년간 수입 의존도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

6. PVC 바닥재

- 자체 생산기반 미비로 전량을 수입함. 중국산은 대부분 모방 제품으로 품질이 낮음
- 중국인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외국산 PVC 바닥재에 대한 선호도가 상승, 수입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임

중국 - 다렌무역관

7. 피아노

- 중국은 세계 최대 피아노 생산국이자 소비국이기도 함
- 2010년 중국의 피아노 수입량은 수출을 초과하여 순 수입국으로 부상. 2011년 수입액이 1억 600만 달러로 45.59% 증가함. 수입산 피아노가 품질이 좋아 중국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음

8. 스마트 전기밥솥

- 중국 동북 3성은 한류의 영향과 조선족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한국 주방용품에 대한 수요가 큼
- 중국산 스마트 밥솥은 한국산에 비해 가격경쟁력을 지니고 있으나 한국 상품이 품질과 성능이 우수하여 한국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음

9. 막걸리

- 막걸리는 한국의 대표적인 술임
- 동북은 기후로 인해 술 문화가 발달하였고 생활수준 제고와 건강의식 상승으로 몸에 좋은 술을 찾음
- 젊은 층은 한국 드라마의 영향으로 막걸리를 선호함

10. 장식품

-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 배우들이 착용했던 장식품이 젊은층의 소비 욕구를 부름
- 한국 장식품은 합금을 주재료로 하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하고 문화가 중국과 비슷한 점이 있어 사랑을 받음
- 중국도 장식품이 많이 생산되지만 개성이 부족하고 젊은층의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음

11. 생활용품 일용품

- (세부품목) 주방용품, 욕실용품, 인테리어 및 가구 장식품, 침대용품 등
- (사유) 상기 한국제품이 미관, 질량, 세밀도에서 경쟁력이 있고 소비자들의 선호를 받음. 다렌지역의 유력 유통상 등 주선을 통해 수출입 제고 효과 가능

12. 식품

- (세부품목) 수입금지 품목(소금 등) 이외 가공식품 등
- (사유) 한국식품의 선호도 및 현지판매수요가 꾸준히 있고 4~5개 한국식품전문무역상들이 국내기업의 수입상 및 유통상 역할 가능. 해당 세부품목별 시장성 검토 필요

13. 의류패션

- (세부품목) 아동복, 여성복 등 고품질 의류
- (사유) 한류 패션에 대한 선호도가 높으며, 세련되고 품질이 좋은 의류를 중심으로 현지판매수요가 많음

14. 조선, 해양

- (세부품목) 조선분야 비교적 기술력이 앞선 부품, 기자재, 설계, 친환경/IT 등이 융합된 첨단기술 제품, 해양플랜트 분야 제품
- (사유) 다렌 중심의 발해만 지역은 대규모 조선소들과 부품공급에이전트, 수리업체 등이 모여 있는 북방조선기지이며, 기존 부품공급상과의 차별화가 필요하며, 조선산업의 침체와중에 해당제품의 수요틈새시장을 모색해야 함

15. 정밀화학, 신소재, 첨단부품 등

- (세부품목) 석유화학 제품, 고부가가치 신소재와 부품
- (사유) 다렌에는 동북지역의 대표적인 항구이며, 석유화학단지와 제품수입딜러들이 많음. 윤활유, 고부가가치유 등을 중심으로 수입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짐. 신소재, 부품 중 고부가가치 제품들은 최근 중국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업종임

부진 예상 품목

1. 식품 : 건강식품 등 수입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한 식품류
2. 화장품 : 중국에서 지명도가 낮거나 필요한 증서를 획득하지 않은 화장품
3. 자동차 부품 : 자동차 새시(chassis)부품 등 기술력 없는 자동차 부품
4. 의료 관련 용품 : 붕대, 엑스레이검측기 등 중국 상품의 품질과 기술면에서 별차이 없는 의료상품

2013년도 시장전망 요약

1. 광둥성 경제전망

- 2012년 상반기 광둥성의 경제성장률은 최근 최저치인 7.4%를 기록했음. 하지만 2분기 들어서서 경제성장 속도가 점차 안정돼 1~6월 성장률이 1분기보다 0.2%p 높아졌음
- 또한 물가는 비교적 안정돼 소비자물가지수가 3.5% 상승하는데 그쳤고 물가상승률은 전년 동기대비 1.7%p 낮아졌음
- 광둥성 경제는 대외의존도가 높음. 2012년 상반기 광둥성의 수출 규모 감소로 수출 위주의 기업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하지만 광둥성 상반기 수출은 낮은 수준에서 점차 안정세로 들어섬. 광둥성 수출입, 수출, 수입은 1월의 마이너스 성장률에서 벗어나 5월까지 각각 5%, 6.9%, 2.4% 증가율을 기록함
- 하반기에 광둥성 투자는 늘어날 것이며 특히 중점 프로젝트가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됨

2. 소비전망

- 비록 광둥성의 소비자물가수준 수치가 하락세를 보였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물가가 높다고 느끼고 있으며 가격에 비교적 민감한 편임
- 중국 소비자들은 식품안전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고 특히 분유, 노인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
- 중국 소비자들은 보다 편리하고 질 높은 삶을 추구하며 온라인 쇼핑, 기능성 가전제품 등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광둥성 정부의 환경보호분야에 대한 중시와 환경보호의식이 강화되면서 녹색제품, 환경보호 제품의 시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됨

호조 예상 품목

1. 스마트폰

- 최근 중국의 스마트폰은 호황기를 누림. 특히 차후 출시 예정인 아이폰5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큼
- 광둥성은 홍콩과 인접한 지리적 위치로 기타 지역보다 쉽게 시중 판매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음
 - 아이폰의 초기 판매 지역리스트에는 중국이 포함되지 않아 중국시장에서는 암암리에 수입한 아이폰을 팔기 때문에 홍콩, 미국 등 기타 국가보다 가격이 비쌈

2. 에너지 절감 가전제품

- 올해 6월부터 실시하는 에너지 절감 가전제품 구매 보조정책이 아직은 효과가 미흡한 단계지만 머지않아 중국 정부에서는 소비확대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추측됨

3. 유아, 어린이 상품

- 올해의 '용띠 베이비' 출산으로 유아, 어린이 상품이 지속적으로 호황기를 누릴 것임. 특히 영유아의 분유는 안전성 문제로 외국 브랜드를 선호하는 추세임

4. 음식물 처리기

- 광둥성의 친환경 정책으로 쓰레기 수거, 소각, 재이용 산업이 현재 추진 중임. 음식물 처리기는 가정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음

5. 기능성 가전제품

- 광둥성은 아열대성 기후로 난방시설이 없는 지역임. 하지만 최근 기후 이상으로 겨울철에 라디에이터, 온풍기, 전기담요 등 보온제품이 인기를 끌었음
- 또한 매년 3,4개월 동안의 우기에는 실내 습도가 높기 때문에 제습기 등 기능성 가전제품이 많이 판매됐음

부진 예상 품목

1. 가구

- 중국의 부동산 억제정책으로 가구에 대한 수요량이 감소함.
- 지난 몇 년간 가구산업은 부동산 호황기와 함께 규모가 확대됨. 부동산 억제정책과 가구의 과잉생산으로 앞으로의 가구산업 성장세가 늦어질 전망이다

2. 의류산업

- 임금상승,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광둥성 의류산업의 우위가 사라지고 있음. 노동집약형 산업은 중국의 중서부 또는 동남아 국가로 이전되는 추세를 보임

2013년도 시장전망 요약

- 산시성은 최근 5년 연평균 GDP성장률이 중국평균을 상회하는 14%를 기록하고 있으며, 서부대개발이 심화되는 향후 10년간은 이 증가율을 유지할 전망이다. 산시성은 중국 최대의 에너지(석유, 석탄, 천연가스)생산지역으로서 에너지화공, 기계장비(중형트럭, 비행기, 수송배관 등), 금속가공, 농업 등의 산업이 발달해 있으며 전반적으로 중화학 공업 위주로 발달해 있으나 '12년 삼성전자의 진출과 더불어 IT산업도 집중 육성하고 있음
- 우수한 대학과 연구소가 집중되어 있어 산업 기초가 탄탄한 편임. '12년 10월 예정된 18차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차기 주석으로 유력시되는 시진핑이 집권하게 되면 시진핑 가계와 관계자 있는 산시성이 정치적으로도 많은 지원을 받을 전망이다
- 현재 시안은 지하철 6호선까지의 계획이 완료되었고 2040년까지 지하철 15호선을 완공하고 중국에서 베이징, 상하이 다음으로 국제화대도시로 거듭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한 대대적인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고급소비재에 대한 수도도 증가할 전망이다
- 시안시 일인당 GDP가 '11년 6800달러였으며 '12년은 8,000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고속철도 건설과 연계된 신유라시아횡단열차(TCR) 프로젝트 추진으로 연해지역과의 물류 연계성이 강화되고 중국의 중심부에 위치한 이점으로 중앙아시아, 유럽으로 이어지는 육상 물류의 중심으로 거듭날 전망이며 현재 미미한 대외무역도 향후 물류환경의 개선과 더불어 확대될 전망이다

호조 예상 품목

- | | |
|---|----------------------------|
| 1. 정밀계측기 | 2. 정밀기계 |
| 3. 공구 | |
| 4. 에너지절약기술 및 제품(흡수식열펌프, 고효율보일러, 폐열회수이용설비) | |
| 5. 친환경건축자재 | 6. 환경설비 및 기자재(대기오염, 폐수정화) |
| 7. 유아용품 | 8. 고급패션용품 |
| 9. 친환경식품 | 10. 농자재(과수원예, 친환경농약비료, 종자) |
| 11. 항공부품 | 12. 산업용특수섬유 |
| 13. 의료기자재 | 14. 고급주방용품 |
| 15. 화장품 | 16. 의약품생산기계 |
| 17. 보안기자재 | 18. 산업용 LED조명 |
| 19. 실험장비(연구소) | 20. 레저용품 |
| 21. IT솔루션(ITS, 보안, 자동화) 등 | |

부진 예상 품목

1. 전자부품, 섬유, 대형설비, OEM자동차부품, 사출성형기 등
 - 산시성은 중화학공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공업(전자, 의류, 플라스틱, 화장품 등)이 발달해 있지 않으며 자동차산업의 경우 산치(중형트럭), BYD(소형차)가 있지만 한국OEM 부품을 그의 사용하고 있지 않음. 대형설비의 경우 물류비용이 높아 경쟁력이 떨어짐

2013년도 시장전망 요약

- 동북진흥정책 추진, 2011년 대내지향형 경제발전패러다임으로 내수시장 진작 등 지역경제 특성을 보임
 - 자동차부품시장
 - 자원화관리 및 신에너지 창출/효율화 프로젝트
 - 농식품 등 자원시장들의 발전이 예상됨

호조 예상 품목

1. 미용기기류
 - 한류열풍으로 현지여성들도 피부관리에 점차 중요시
 - 여성뿐 만아니라 남성들도 피부미용 관심도 상승
 - 뷰티샵 피지제거, 주름개선, 제모 등 시술이 인기
 - 미용기기 개인소비자가 확대추이
2. 자동차 엔진부품
 - 중국내기업 기술수준이 전반적으로 낙후로 인하여 높은 기술수준이 요구되는 자동차 엔진 부품 및 전장품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
3. 가공식품
 - 라오닝성 특히 선양 조선족 및 한국인 기반으로 소비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한류 및 드라마 열풍으로 한국음식에 대한 관심이 많음
 - 농심 라면제조공장, 오리온 초코파이 등 한국 대표적 브랜드 성공적 사례(한국야쿠르트는 동절기가 긴 계절적 요인으로 실패)
 - 경제발전 및 생활수준의 향상결과로 중국 소비자들의 식품에 대한 관심과 국민경제서 식품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음

부진 예상 품목

- | | |
|----------|-------------------------------|
| 1. 석유화학 | 2. 조선기자재 |
| 3. 철강 | 4. 자동차 부품 중 기술력 요구가 낮은(없는) 부품 |
| 5. 보건의약품 | |

2013년도 시장전망 요약

- 미국, 일본경제의 회복력이 떨어지고 유로경제의 채무위기가 끊임없음에 따라 세계 경제의 시장믿음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음, 세계경제는 장시기 동안 지속적으로 불경기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중국은 중국정부의 화폐정책과 재정정책을 추진하여 국내수요가 세계경제와 함께 급속하게 동반하락하지 않게 하고 있음. 오히려 짧은 시기내에 소폭 증가태세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우리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 형세는 여전히 낙관적임
- 한류의 영향은 한국의 대하남성 수출에 강력한 촉진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됨, 한국 상품의 디자인과 품질은 하남성 사람들의 소비취향에 맞으며, 하남성 시장으로의 진출은 더욱더 가속화 될 것으로 판단됨
- 특히 하남성의 GDP는 2.7조 위안에 달하여 전국에서 5위, 중서부지역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어 시장잠재력이 풍부한 상황임

호조 예상 품목

- | | |
|-------------------------|-------------------|
| 1. 의류 | 2. 생활소비재 |
| 3. 미용용품(미용기기) | 4. 식품(농부산물가공품 포함) |
| 5. 식품가공기계, 포장기계, 검측기계 등 | 6. 농기계, 축산설비 |

부진 예상 품목

- | | |
|----------------|----------------|
| 1. 중간재(각종 부품류) | 2. 농산물(1차 농산물) |
|----------------|----------------|

2013년도 시장전망 요약

- 샤먼은 중국의 6대 경제특구의 하나로 다국적기업의 최적 투자도시의 하나로 꼽힘
- 주로 대만 자본 유치를 통해 발전하여 대만기업의 진출이 활발하며 중국과 대만의 ECFA(경제협력기본협정) 체결로 인해 대만과의 협력은 더욱 강화되고 있음
- 샤먼시 정부의 정보기술(IT) 산업 육성 노력으로 관련 부품 등 수요 증가 예상
- 푸젠성은 중국정부의 해협서안경제발전규획에 따라 개발 수요가 예상됨
 - 현대적 종합교통시스템을 형성하는 등 교통인프라가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음
- 전세계 경기가 저조한 가운데 샤먼시의 경제는 '12년 상반기 11.4% 성장하였으나 시장 수요의 감소로 공업 성장률은 전년도에 비해 낮아짐. 내수에서는 주민소득 증가로 사회소비품소매총액은 10.5% 증가하였음
- '12년 하반기 경제 전체적으로 볼 때 경기가 회복할 것으로 기대되나 전세계적인 경기 영향으로 그 회복세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됨

호조 예상 품목

- | | |
|----------------------|---------------|
| 1. LCD 패널 | 2. 컴퓨터용 디램 모듈 |
| 3. 액정디바이스 부속품 | 4. 렌즈 |
| 5. 인쇄회로 | 6. 플라스틱제 포장용기 |
| 7. 폴리카보네이트/생활 소비재 | 8. 원단 |
| 9. 피혁 | 10. 건설기계 부품 |
| 11. 가공식품 | 12. 건강식품 |
| 13. 수처리 등 환경보호 관련 설비 | 14. 미용용품 |
| 15. 의류 | 16. 액세서리 |
| 17. 주방용품 | 18. 선물용품 |
| 19. 인테리어 용품 | |

부진 예상 품목

- | | |
|------------------------------|--------|
| 1. 산업용 소프트웨어 | 2. 기저귀 |
| 3. 첨단 산업용 부품 | 4. 농산물 |
| 5. 중국진출시 필수적인 인증을 취득하지 않은 품목 | |

2013년도 시장전망 요약

1. 중국 31개 省市 중 종합경제실력 1위
 - 외자유치 전국 1위, 대외교역 2위(광둥성 다음)
 - * 세계 500대 기업 중 360개 진출
2. 도시별 중점산업 중국 首位수준 - 공고한 산업기반
 - 쑤저우(정보통신), 우시(반도체, 태양광), 난징(FPD, 화학, 자동차), 쉬저우, 창저우(중장비기계) 등 도시별 산업특화
3. 한국기업 최대 투자지
 - 2006~2010년 한국기업 대중 투자금액 1위
 - * 삼성, 포스코, LG, 기아, 효성, 코오롱 등 2000여개사 진출
4. 중요 2선 거점 도시 다수 보유 - 서비스 산업 육성
 - 난징, 쑤저우, 우시, 창저우 등

호조 예상 품목

1. 생활소비재(패션잡화, 화장품, 주방용품, 고급가전, 유아용품, 생활용품)
2. 건설 중장비기계 부품
3. 친환경 고기능 건자재
4. 환경설비(환경보호관련 설비 및 계측장비, 에너지 절감 장비 및 제품, 풍력발전 설비, 수처리 관련 제품 및 설비)
5. 전자부품소재(FPD, 반도체부품, 산업용 각종 전자부품)

부진 예상 품목

1. 중국내 인증 미획득 보건/식품/전자제품
2. 중국산 대비 품질 경쟁력 없는 범용 건자재, 소비재
3. 화학 관련제품

2013년도 시장전망 요약

1. 급속한 성장 지속 전망

- 우한은 중국정부의 중부굴기로 표현되는 따른 내륙지원 정책 수혜 지역으로,
- 정부주도의 투자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기업의 관심도가 높아짐

2. 글로벌기업의 진출 확대로 경제환경 개선

- 과거 우한의 정부 및 기업들은 연해지역에 비해 국제무역 경험이 적었으나 최근 글로벌기업과의 국제무역 경험이 급격하게 축적되어 경제 체질 개선이 급속도로 이뤄지고 있음
- 2010년 기준, 우한에는 약 70여개의 한국기업이 등록되어 있으나 내륙진출에 대한 한국기업의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한국기업의 진출 또한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

호조 예상 품목

1. 한류관련상품

- 식음료 : 전통차, 고급음료, 분유 등 유제품, 기타 웰빙 제품
- 주방용품 : 친환경 반찬통 등
- 미용제품 : 비비크림, 악세사리 등
- 의류 : 여성의류, 아동복 및 모자 등 가격경쟁력 및 디자인 우수한 제품

2. 건축자재: 도어락, 바닥재, 벽지, 난방자재, 기타 친환경 자재 등

3. 가스용품: 가스보일러, 가스누출 탐사기 등

4. 의료용품: 의료기기, 기타 의료 소모품 등

5. 오수처리기계 및 용품: 공업폐수처리 설비, 하천오수, 쓰레기 처리 설비 등

6. 자동차 관련 설비 및 부품: 블랙박스, 배기가스 절감장치 등

7. IT 전자 관련 제품: 광통신 모듈, 인터넷 통신 관련 제품, 창의적 컴퓨터, 휴대폰 주변 제품

부진 예상 품목

1. 중저가 대량생산이 가능한 범용 제품군: 중저가 원단류, 중저가 공작기계 등

2. 중국제품 대비 특별한 비교우위가 없는 제품군: LED 부품설비, 태양광 패널 등

3. 중국 소비자 기호에 맞지 않는 제품군: 보건(건강)식품, 전통주, 전통과자, 건어물류 등

2013년도 시장전망 요약

1. 후난성 내 대형유통기업으로 진출유망한 생활소비재 품목

- 일본계 평화당백화점, 독일계 메트로 유통업체, 후난성 유통업체(뿌뿌까오, 지아룬두오), TV홈쇼핑(해피고, 하이타오, 지아리고) 등 대형유통기업이 있어 시장접근성이 좋음
- 후난성은 다른지역에 비해 소비성향이 매우 높은 도시: 소비지출액(13위)저축액(23위) 전국 35개성 기준(2010)

2.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산업

- 중국 정보산업부 발표, 중국은 이미 미국을 넘어선 전세계 최대 스마트폰 시장으로 도약
- 2012년 2사분기 스마트폰 중국 판매량이 전년대비 164% 증가, 3310만개에 달함. 전세계 최대 핸드폰 판매 시장으로 성장

3. 물류산업 비중 증대

- 2015년 까지 후난성 사회물류 총액은 55,000억 위안 도달, 증가치 1,900억 위안
- 사회물류 총비용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18.46%에서 1.5~2% 감소
- 물류수입 50억 위안 이상 규모 물류개발구는 2~3곳, 국가 A급 물류산업원 150곳 건설예정

호조 예상 품목

1. 문화컨텐츠 산업(방송컨텐츠, 공연기획, 애니메이션 관련)

- 후난성 전체 GDP의 약 7%를 차지, 중국 중앙 방송채널CCTV를 제외한 중국 전국시청률 최고인 후난TV가 있어 한국 방송 프로그램의 수출기대가 크고, 애니메이션 시장 또한 수출기대가 큼

2. 자동차부품산업

- 다수의 로컬완성차기업(지리, 창평, BYD, Zotye 등)이 있어 자동차부품 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기대

3. 바이오산업(현대중의약, 의료기기 및 장비, 생물학제품)

- 후난성의 바이오산업 육성을위한 핵심 기지인 창사 국가바이오산업기지가 있고 약 100여개의 관련 기업 입주

4. 생활소비재

- 소비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후난성에서 TV홈쇼핑을 통한 시장접근력이 타 성시보다 잘 발달되어 있음
 - 패션잡화(의류, 신발, 가방 및 액세서리류)
 - 주방용품
 - 화장품(미백, 스킨케어 및 미용관련 기계류)
 - 고급소비자 가전(인지도 높은 브랜드이거나 기능상의 타사제품대비 경쟁력을 갖춘 제품)
 - 건강보조식품(허가증 취득이 어려우나 일단 취득후에는 많은 바이어들의 관심이 있음- 무역사절단 참가업체 의견임)
 - 유아용품(분유, 기저귀)
 - 기타 생활용품(고품질 학용품 등의 문구류, 일상 잡화 등)

5. 녹색, 환경산업(수처리 관련 제품 및 설비, 환경보호설비, 태양광 발전 설비)

- 성정부차원의 수질 개선을 위한 환경 프로젝트를 실시
 - 중장비 기계(굴삭기, 크레인, 콘크리트 기계)의 관련 부품재
- sany, zoomlion, sunward 등 중국 10대 중장비기계 기업 소재
 - 고급 농산물 및 관련 가공품 : 고품질의 경쟁력을 갖춘 농산물(일본 원전사고여파에 따른 상대적 경쟁력 확보)
 - 고급 수산물 및 관련 가공품 : 고품질의 경쟁력을 갖춘 수산물(일본 원전사고여파에 따른 상대적 경쟁력 확보)

부진 예상 품목

1. 가구제품

- 현지 저가의 가구제품의 품질경쟁력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일반 소비자용 가구제품은 경쟁력이 약함

2. 일반 전자제품

- 중국제품의 빠른 경쟁력 강화에 따른 단순 전자제품 등은 품질 경쟁력 없어 바이어가 비선호하는 제품임

3. 조선해양

- 내륙지역특성으로 제한되는 조선해양관련 제품

4. 저가형 국내 토종 농산품 또는 수산품

- 대부분의 제품이 중국내 조달 가능하며, 중국인들의 식습관상 판매경로를 찾기 어려운 제품이 많이 있음

5. 저가성 완구 및 교육제품

- 완구산업은 중국내 경쟁력 확보가 어려워 고급 기술이 접목된 제품이 아니면 사실상 시장이 전무하며, 교육관련 소프트웨어 등을 탑재한 제품의 경우도 언어호환성이나 제품연계 전자제품의 현지사용불가 또는 A/S문제 등의 이유로 바이어의 관심이 적은 편임

2013년도 시장전망 요약

1. 전자 제품 반도체 부품 수출 증가

- (경보신호기, 개별반도체소자) 경보신호기는 휴대폰용 LCD관련부품 등이며, 개별반도체소자의 경우 거의 모든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소자임
- ⇒ 휴대폰, 가전제품 등 한국전자제품 강세, iPhone · iPad 등 애플사 제품의 높은 인기로 홍콩을 거쳐 중국으로 들어가는 반도체 증가

2. 홍콩내 중국 관광객 증가에 따른 중국인들 선호 한국 소비재 인기

- 2012년 상반기 홍콩 방문객은 전년 동기 대비 15.5% 증가한 2,232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같은 기간 중국으로부터의 방문객은 22.7%나 증가해 전체 관광객의 2/3가 넘는 1,558만명에 달하고 있음
- 이들은 주로 명품, 화장품, 보석류 등 소비를 하고 있어 해당 품목 홍콩 진출이 유망함

호조 예상 품목

- | | |
|-----------------|-----------------|
| 1. 화장품 | 2. 샴푸 등 헤어제품 |
| 3. 미용기기 | 4. 생활용품 |
| 5. 콘텐츠(모바일, 방송) | 6. 패션의류(액세서리) |
| 7. 유아용품 | 8. 냉장식품 |
| 9. 굴 전복 등 수산식품 | 10. 배 포도 등 신선식품 |
| 11. 김 등 가공식품 | 12. 섬유 |
| 13. 건강보조제 | 14. 전자제품 |
| 15. 주방용품 | 16. 콘택트렌즈 |

부진 예상 품목

- | | |
|-------------|--------------|
| 1. 기계류 | 2. 자동차 부품 |
| 3. 건축관련 부자재 | 4. 케미컬(화학용제) |

2013년도 시장전망 요약

- 미국과 유럽의 재정위기 여파가 2013년까지 이어질 전망으로 특히 대만의 주력 수출시장인 미국과 유럽시장의 수출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중국으로의 원부자재 수출도 감소하여 전반적인 경기전망은 어두운 상황임
- ECFA 체결의 영향으로 2011년에는 對중국 투자 점유율이 2010년 대비 다소 감소했으나, 여전히 대외투자의 80%에 육박하는 금액이 중국으로 투자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2013년에도 계속될 전망
- 한국의 대대만 10대 수출품목 중 반도체 제조장비는 대만 민간투자 경기를 가장 잘 반영하는 품목으로서 경기 변동 추세를 읽을 수 있는데, 금융위기 당시 시장 위축으로 민간투자가 동결된 이후 2010년도에 시장 회복에 따른 민간투자 확대로 반도체 장비 수입이 크게 증가했으나, 2011년 하반기 경기위축이래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내년에도 지속 감소할 전망
- 이런 가운데 임금상승세 둔화와 가계의 실질구매력 약화가 예상되면서 민간소비 증가율은 내년에도 감소할 전망이다

호조 예상 품목

- | | |
|-------------|-----------------------|
| 1. IT전자부품소재 | 2. 반도체/LCD/LED 등 생산장비 |
| 3. 화장품 | 4. 건강식품 |
| 5. 애완용품 | 6. 소형가전 |
| 7. 주방용품 | 8. 문화콘텐츠 |
| 9. 석유화학제품 | 10. 정밀기계부품 |
| 11. 미용기기 | 12. 실버용품 |
| 13. 의료기기 | 14. 친환경 건축자재 |
| 15. 여성의류 | 16. 라면 |
| 17. 수처리설비 | 18. 수산물 |
| 19. 패션악세서리 | 20. 제약 |
| 21. 음료제품 | |

부진 예상 품목

- | | |
|----------|--------|
| 1. 자동차부품 | 2. 공구 |
| 3. 중장비 | 4. 컴퓨터 |
| 5. 원단 | |

북미

미국 - 뉴욕무역관
미국 - 로스앤젤레스무역관
미국 - 시카고무역관
미국 - 달라스무역관
미국 - 워싱턴무역관
미국 - 실리콘밸리무역관
미국 - 마이애미무역관
캐나다 - 토론토무역관
캐나다 - 밴쿠버무역관



2013년도 시장전망 요약

- 최근 미국경제는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성제 성장률이 하락하고 소비, 생산, 고용 등 주요 경제지표들이 부진을 보이면서 경기회복세가 둔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음
- 2013년 미국경제는 유로존 재정위기, 재정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 글로벌 경기둔화 등의 영향으로 2012년 대비 경기하방 위험이 더욱 확대될 전망(메릴린치 등 월가 주요 투자은행들은 2013년 미국경제 성장률이 1.4%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
- 주요 경제지표 역시 회복 모멘텀이 약화되어 소비의 경우, 가솔린 가격 하락 등에도 불구하고 향후 경기 불확실성 확대, 고용부진, 소득개선 미흡 등으로 소비심리가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높음. 생산지표의 경우, 향후 경제여건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신규 고용 및 설비투자에 있어 보다 신중한 입장으로 선회할 것으로 예상. 정부 사이드 역시 경기부양 여력 축소, 재정건전화 정책 추진에 따른 정부지출 감소로 미국 경기회복세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호조 예상 품목

- | | |
|------------------------------|----------------------|
| 1. 폴리에스터 원단 | 2. 실크 원단 |
| 3. 자카드 원단 | 4. PU 원단 |
| 5. SPANDEX 원단 | 6. NYLON 원단 |
| 7. COTTON JEAN 원단 | 8. 오가닉 원단 |
| 9. OUTDOOR JACKET 완제품 | 10. 기능성 원단 |
| 11. 여성 의류 완제품 | 12. 드링크류 |
| 13. 차 | 14. 냉동 가공식품 |
| 15. 여성용 기능성 화장품 | 16. 주름살 제거용 기초 화장품 |
| 17. MANICURE, PEDICURE 관련 제품 | 18. 생활가전 완제품(led 제외) |
| 19. 가족 관련 원단 및 완제품 | 20. 아이디어 IT 제품 |

부진 예상 품목

1. 산업용 기계
2. 자동차 부품 중 생산업체에게 직접 납품해야 할 제품
3. 농업용 기계
4. 농산물 중 곡물류
5. LED 전구
6. 양말

2013년도 시장전망 요약

- 전년도와 크게 다를 것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2011년 말부터 실업률이 하락추세에 있으며 소비자들의 소비심리가 회복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소비회복과 함께 매출증가가 기대되는 품목으로는 각종생활소비재, 자동차,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로 대표되는 전자제품이 있음

호조 예상 품목

- | | |
|---------------------------|---------------------------------|
| 1. 의류섬유직물 | 2. IT 전자 통신장비 및 네트워크 장비 |
| 3. Solar관련 Panel 및 Module | 4. 생활 소비재 중심의 완제품 |
| 5. After Market 용 자동차 부품 | 6. UL 인증을 획득한 LED Module 및 관련제품 |
| 7. 식음료품 | 8. UL 인증을 획득한 전자제품 |

부진 예상 품목

- | | |
|---|------------|
| 1. 건축관련 자재 및 제품 | 2. 유압 브레이커 |
| 3. OEM용 자동차 부품 | 4. 일반 중장비 |
| 5. 화학 원료 | 6. 난방기기 |
| 7. 공장 및 Plant에 필요한 기계류나 산업설비 | 8. 농기구 |
| 9. 미국에서 필요한 인증이 없거나 영어가 제대로 표기되지 않은 웹사이트 및 카탈로그로 홍보해야 하는 제품 | |

2013년도 시장전망 요약

1. 부품소재 아웃소싱 확대

- 미국 기업들의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확산
 - 경기부진이 지속과 미래 불확실성이 확대로 기업들은 신제품 개발, 원가절감, 신시장 진출 확대를 통한 수익성 제고에 주력 → 부품소재 아웃소싱 수요 급증
- 가격대비 높은 품질경쟁력, R&D 및 마케팅 능력 보유한 국내기업과의 협력수요 증가

2. 한미 FTA에 따른 한국제품 수요 증가

- 한미 FTA에 따른 관세인하로 국산제품 가격경쟁력 제고
 -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품목의 95.7%에 대해 5년 내 관세 철폐
- 고관세 품목 및 가격경쟁이 치열한 품목 위주로 수요증가 전망
 - 섬유류, 자동차부품, 중장비부품, 기계류, 석유화학제품 유망

호조 예상 품목

- | | |
|---------------|-------------|
| 1. 공작기계 | 2. 기어박스 |
| 3. 밸브 | 4. 유압부품 |
| 5. 베어링 | 6. 자동차부품 |
| 7. 중장비 상용차 부품 | 8. 엔진부품 |
| 9. 트랜스미션 | 10. 의료기기 |
| 11. 자전거부품 | 12. 발전기 |
| 13. 화물자동차 | 14. 스키용품 |
| 15. 등산화 | 16. 자동제어기부품 |
| 17. 철골구조물 | 18. 스포츠화 |
| 19. 용접기 등 | |

부진 예상 품목

- | | |
|-------------------|-----------|
| 1. 컴퓨터 | 2. 휴대폰 |
| 3. 세탁기 | 4. 반도체 장비 |
| 5. 평판 디스플레이, 냉연강판 | |

2013년도 시장전망 요약

- 2013년 세계 경제 불안과 미국 경제 회복에 대한 불확신으로 느린 성장, 회복세를 보일 전망
- 그러나 텍사스주는 미국 2위의 경제규모(1위 캘리포니아)로 석유화학, 에너지부터 첨단 IT 산업까지 다양한 산업이 발달해 있음
- 타 주에 비해 안정적인 경제상황과 고용시장을 유지하고 있어 그 중요성이 부각될 것으로 전망

호조 예상 품목

1. 첨단 IT 제품 : 미국 최대 IT 클러스터 형성
 - 소비자 전자제품
 - 모바일 액세서리
 - 소프트웨어
 - 네트워크 장비
 - LED 등 조명 Display
2. 생활용품 : 대형 유통기업의 본사가 위치
 - 식품, 주방용품, 화장품 등 기타 생활용품

부진 예상 품목

- 기계, 부품 : 시장미발달로 상담주선 애로

미국 - 워싱턴무역관

2013년도 시장전망 요약

- 오바마 행정부가 제시한 2013년 예산 편성내역을 통해 대략적인 시장의 흐름을 예측해 보면 방위산업과 의료쪽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어 관련부분 산업에 주목할 만함

호조 예상 품목

1. Information Technology 및 에너지절약: 관련시장 Service Provider 집중
2. 방위산업제품: 글로벌 방위산업업체 집중
3. 의료: 보훈청, FDA 등의 영향으로 관련산업 발전

부진 예상 품목

1. 기계, 부품: 생산시설 거의 부재
2. 농수산물: 가격경쟁이 안됨
3. 자동차: 자동차 관련 산업 부재
4. 섬유류: 봉재류 산업 부재
5. 반도체 산업: 생산시설 부재

미국 - 실리콘밸리무역관

2013년도 시장전망 요약

- 자동차, 휴대폰, 컴퓨터, 가전 등의 소비재 IT 산업의 융합을 통한 산업의 규모 확대 및 발전이 예상됨

호조 예상 품목

- 당무역관의 대표 산업인 반도체 장비 산업은 지난 2009년부터 반도체의 대미 수출은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3년 또한 큰 폭의 성장은 아니어도 작년과 같은 흐름은 유지할 것으로 판단
- 휴대폰, 카메라 등의 탑재되는 모듈, 센서 등의 반도체 품목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부진 예상 품목

- 컴퓨터의 경우 기존의 데스크탑, 노트북 대신 테블릿PC, 휴대폰의 비중이 높아졌으며 중국 및 기타 개발도상국들의 낮은 생산가로 인해 주재국 기업의 컴퓨터 완제품 경쟁력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

2013년도 시장전망 요약

- 실업률, 신규 일자리 창출, 신규 건설 프로젝트, 부동산 등 경제 지표 전반적으로 현재까지는 불규칙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어 안정적인 성장세로 전환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됨
- 주식시장 역시 페이스북의 부진 및 유럽의 재정악화 등의 영향으로 뚜렷한 상승 동력을 찾고 있지 못함
- 다만 전문가들은 물론 일반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대체적으로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받아들이고 있음
- 2012년 말의 대선결과 및 이에 따른 미국 정부의 경제 정책 변화가 변수임

호조 예상 품목

- | | |
|----------|---------|
| 1. 의료소모품 | 2. 병원장비 |
| 3. 의료IT | 4. 미용기기 |
5. 가정용의료용품
- [호조요인분석]
- 플로리다주는 미국내 대표적인 은퇴희망지역으로 노후관리 수요가 많음
 - 다수의 의료기기 및 소모품유통망이 마이애미를 중남미진출 허브로 활용하고 있으며 글로벌 제약회사 등도 마이애미에 중남미본부를 두고 있음
 - 의료시장은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수요가 발생하고 있음
 - 마이애미는 미국과 중남미를 동시에 겨냥한 전시회인 Florida International Medical Expo 개최지이기도 함
 - 남부 플로리다에서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등의 노력으로 의료산업은 성장하고 있음
- | | |
|-----------------------|-------------|
| 6. 자동차 Aftermarket 제품 | 7. 자동차 액세서리 |
| 8. 자동차 부품 | 9. 타이어 |
- [호조요인 분석]
- 자동차 분야는 한미FTA 유망품목으로 관세철폐로 인한 가격경쟁력 제고가 기대됨
 - 미국에서는 자동차가 생활 필수품인 만큼 지속적인 수요가 발생하고 있음
 - 경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다수의 소비자들이 신차 구매를 늦추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동차 관리 및 서비스 관련된 제품은 오히려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
 - 미국의 동남부 지역은 조지아주, 알라바마주 등이 자동차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한 결과 자동차 산업 관련 종사자가 매우 많은 지역임.
 - Genuine Auto Parts 등 일부 글로벌 자동차 부품 기업도 플로리다주 및 조지아주에 본사를 두고 있음.
- | | |
|---------------------|----------------|
| 10. 헤어 액세서리 및 관련 제품 | 11. 이미테이션 주얼리 |
| 12. 패션 액세서리 | 13. 안경, 선글라스 등 |
- [호조요인 분석]
- 장기적인 경기불안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미용 및 패션 관련 유통업체는 새로운 디자인과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시장을 공략하고 있음. 이러한 트렌드로 새로운 공급업체 발굴 노력을 전반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마이애미는 특히 중남미의 허브로 중남미를 대상으로 하는 패션 유통업체가 많이 자리잡고 있으며, 중남미 사람들은 패션 및 미용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
 - Global Industry Analysts의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세계 패션 주얼리 시장은 2013년까지 4.63%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함

미국 - 마이애미무역관

14. 보트용 전기/전자 장비

15. 보트 액세서리

16. 보트 부품

17. 선박용 위성 안테나

[호조요인 분석]

- 플로리다는 미국에서 레저용 보트등록 수가 가장 많은 주이며 보트 제조업도 상당히 발달해있음. 이는 플로리다주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있어 해양레저 산업이 발달할 수 있는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임
- 바다는 물론, 플로리다주는 호수도 많아 작은 낚시용 보트부터 대형 요트 및 크루즈까지 모든 종류의 배에 대한 수요가 발생
- 세계 주요 크루즈 회사들의 본사가 모두 마이애미에 소재
- 미국 내 보트 관련 대표전시회 2개가 모두 마이애미에서 개최

18. CCTV

19. 보안장비

20. 경보장치

[호조요인 분석]

- 치안이 불안한 중남미 국가들에서 지속적으로 수요 발생
- 마이애미에 중남미 대상 보안 장비 유통망이 다수 있음
- 플로리다주도 미국 내 4번째 인구가 많은 주이며 마이애미도 미국의 대표적인 거주지역의 하나로 자체적으로도 보안장비에 대한 수요가 많음

부진 예상 품목

1. 산업용 필름(윈도우 필름 등)

- 지사화 등의 사업 수행 결과 시장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 필름의 경우 3M 등 소수의 기업이 독점을 하고 있는 형태이며, 다수의 유통망들은 기존의 거래처와의 관계 악화를 우려하여 신규 공급선을 발굴할 의지가 없음
- 독과점 형태의 시장을 진출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가격 및 품질에 대한 철저한 검증 없이는 진출이 불가능함
- 현지에 관련 제품의 대형 유통망 부재

2. 중장비

- 지사화 등의 사업 수행 결과 시장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 건설 경기 악화로 신규 장비 구매가 많지 않음
- 일본계 및 미국계 회사가 미국 내 대형 유통망을 구축하여 활동하고 있는만큼, 해외로부터 소량의 수입을 희망하는 바이어들이 많지 않음
- 현지에 관련 제품의 대형 유통망 부재

3. 식품(보조식품, 건강식품 등)

- 미국 내 유통 시 FDA가 필요하나 한국은 미인증 품목이 다수
- 기호식품의 경우 우리나라의 취향과 다른 제품이 많으며(예로 우리나라에서는 알로에 제품이 유행을 타면서 수요가 많지만 미국에서는 현재로서는 많지 않음.) 기능성 보조식품에 대한 인식도 우리나라와 많이 다름(예로 인삼제품의 경우 미국에서도 효능을 홍보하는 제품들이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천연 약재료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는 않음)
- 마이애미와 한국 간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유통기한 등의 제한이 많음

4. RFID 및 솔루션 제품

- 미국 내 FCC, UL 등의 인증이 갖추어져야 판매가 가능한 등 제약조건이 많음
- RFID 태그 유형 제품의 경우 일부 대기업들이 독과점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바이어들의 관심을 끌기가 어려움
- 솔루션의 경우도 완벽한 현지언어 지원이 없이는 제품 신뢰도가 떨어지며 AS를 처리할 수 있는 현지 법인 유무가 구매요인의 큰 작용을 함

5. 인테리어 건축자재

- 타일, 변기(비데), 볼라드 등 가정 또는 사무실 건물용 내외부 건축자재에 대한 대형 유통망 부재
- 대부분 희망 상담 바이어로 Home Depot 등 대형 유통망을 원하지만 구매 담당자는 현지에서 만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대형 유통망의 경우 자사의 벤더등록 절차 외에는 별도로 공급업체를 일체 만나주지 않음

2013년도 시장전망 요약

-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경제는 탄탄한 내수에 힘입어 기본적으로 건실한 기초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
- 캐나다 최대은행인 로얄뱅크에 따르면, 2012년도 및 2013년도 국내총생산(GDP)은 2.6% 증가할 전망
- 일자리 증가추세는 향후 2년간 계속되어 2012년 7.3% 수준의 실업률이 2013년에는 6.9%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
- 제조업 분야는 자동차 부품을 중심으로 경기불황으로부터 회복하는 추세를 서서히 보이고 있는 반면 원가인하에 대한 압박은 증가
- 2010년 이후 디트로이트 빅3 기업들의 완성차 생산증가로 인해 캐나다의 자동차 부품 산업도 동반성장을 지속하고 있음
- 예년에 비해 소비자들의 주머니 사정은 상대적으로 얹어져서 가격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긴 했지만, 합리적인 가격을 바탕으로 더욱 높은 품질을 추구하는 '똑똑한 소비자'로 변화

호조 예상 품목

1. 자동차 부품 : 캐나다는 디트로이트, 시카고와 지리적으로 밀접히 연계된 글로벌 1차 벤더 밀집지역
2. IT가전제품(유통) : 토론토 무역관은 북미 지역의 100% 리턴조건 등의 현지 유통여건을 반영, 'KOTRA 벤더 프로그램' 전개
3. 기타 기계류 및 신재생에너지 분야 등

부진 예상 품목

1. 자동차 부품 중 1차 벤더 대상이 아닌 품목들 : 자동차 Prototype 제작, A/S 부품 등
2. IT 제조부품 : 광통신 부품, 반도체 장비 부품 등
 - * 캐나다는 IT제조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
3. 기타 기계부품류 : Shaft, 세륜기, 중장비기계, 유압브레이커 등

2013년도 시장전망 요약

1. 경제성장 회복세로 전환

- 2012년 캐나다 경제 전년도 2.1% 성장에서 다소 둔화한 1.9% 성장 예상
- 2013년 세계경제 안정세 기대 등으로 2.5% 성장으로 회복 전망
- 캐나다 경제 긍정적 요인
 - 장기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견고할 것으로 예상되어 자원중심의 캐나다 경제에 우호적 환경 유지
 - 내수기반이 상대적으로 탄탄함

2. 자원개발 프로젝트 활발

- 오일샌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자원개발 프로젝트 재개 예상
- 이에 따라 기계플랜트, 중소형 기자재를 중심으로 캐나다 진출 유망
- 한국 대기업 캐나다 프로젝트 진출에 따른 우리 중소기업의 동반 진출 기회 확대

3. 한류 인식 확산

- 밴쿠버 중심으로 아시아계 인구 유입 증가
- 한류를 포함한 아시아 문화 및 제품에 대한 인식 개선
- 순수 한국 식품 및 상품에 대한 인식 제고

호조 예상 품목

- | | |
|-------------------------------|--------------------------------|
| 1. 일반 소비재 및 생활용품 | |
| ○ 품질 및 디자인 우수제품 선호(저가품 시장 포화) | ○ 휴대폰 액세서리 |
| 2. 친환경 제품/저 전력 제품 | |
| ○ 현지 환경보호 의식 세계 최고 수준 | ○ LED 등(캐나다 인증 필한 제품), LED 모니터 |
| 3. 식료품 | |
| ○ 냉동식품, 한국산 과일, 한국산 과자류, 음료 등 | |
| 4. 플랜트 기자재 | |
| ○ 밸브, 커플링, 열교환기 등 | ○ 전선, 발전기 등 전력 기자재 |
| 5. 건축기자재 | |
| ○ 디자인이 우수한 제품 선호 | ○ 욕실용 액세서리 |
| 6. 스포츠/레저 용품 | |
| ○ 옥외 스포츠 용품 | ○ 캠핑용품 |
| 7. 중장비 및 부품 | |
| ○ 굴삭기 부품 | ○ 유압브레이크 부품 |
| 8. A/S용 자동차 부품(현대, 기아차 순정부품) | |
| ○ 한국차 진출 확대에 따른 부품수요 증대 | |

부진 예상 품목

- | | |
|-----------------------------------|---------------------|
| 1. 전자부품, 자동차 부품, 금형/기계부품 및 기타 산업재 | |
| ○ 현지 산업생산 기반 취약 | ○ 생산을 위한 부품은 수요처 없음 |
| 2. 의료기기, 전기제품 | |
| ○ 캐나다 인증 취득전에는 바이어 상담 거절 | |
| 3. 의류용 섬유·직물 원단 (산업용 원단 제외) | |
| ○ 관련 생산업체 미미 | ○ 시장 과소 |
| 4. 신발 | |
| ○ 현지 브랜드 제품 선호 | |
| 5. 사무용 가구, 금형, 주방용품 등 | |

중남미

멕시코 - 멕시코시티무역관
도미니카공화국 - 산토도밍고무역관
과테말라 - 과테말라무역관
베네수엘라 - 카라카스무역관
브라질 - 상파울루무역관
아르헨티나 - 부에노스아이레스무역관
칠레 - 산티아고무역관
파나마공화국 - 파나마무역관
페루 - 리마무역관



2013년도 시장전망 요약

- EIU에 따르면, 멕시코 경제는 2011년 3.9% 성장한데 이어, 2012년 3.7%, 2013년 3.8% 성장할 전망이다. 그러나 멕시코 경제의 절대적인 대 미국 의존도로 인해, 미국 경제가 예상만큼 회복되지 않을 경우에는 멕시코 경제도 전망처럼 성장하지는 못할 것임. 실질 임금도 개선되었으나, 내수는 3.7% 이상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멕시코 폐소화는 약세가 지속될 것임
- 높은 범죄율로 인한 관광산업의 피해는 지속될 것이며,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농업생산도 제대로 성장하지 못할 것임. 통신분야도 낮은 경쟁력으로 인해 저조할 것으로 보임. 반면, 에너지 분야는 신정부의 개혁정책이 실행된다는 전제 하에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임
- 멕시코의 수출에서 원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유가와 에너지 가격 하락이 예상되면서 수출둔화가 우려되고 있음. 소비재와 자본재 수입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가 및 에너지 가격 하락이 지속될 경우, 제조업에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2012.7.1 실시된 대선에서 집권당인 국민행동당(PAN) 후보가 패배하고 제도혁명당(PRI) 후보가 승리함에 따라서 조세, 복지, 노동, 에너지 등의 분야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글로벌 경제둔화의 영향을 막기 위한 노력과 현재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임

호조 예상 품목

1. electronic blackboard(whiteboard) for education or publicity
2. low price tablet PC
3. solar panel (finished), batteries for solar power generators, wind power generation, power generation equipments of medium and high tension (e.g. transformers, switches, invertors, etc.),
4. equipments and instruments for automatization (e.g. gas detectors, sensors, test equipments, etc.),
5. food packaging machinery, commercial kitchen equipments & supplies,
6. drug licenses, medical diagnostic imaging equipments (e.g. x-ray machines, CT scanners, MRI, etc.),
7. biometrics security devices (e.g. fingerprint, face recognition, DNA, palm print, hand geometry, iris recognition, etc.)
8. silicon steel (or electrical steel), opto-electronic components (e.g. cables, connectors),
9. cosmetics cases and packaging, chemicals for food and cosmetics
10. 시장 포화로 인해 부진이 예상되나, 상담주선이 가능한 품목
conventional security products (e.g. CCTV, DVR), road safety products, pharmaceutical packaging machines and equipments, plastic injection machinery, LED, specialized fabrics, sports gear, stationery, construction machinery, hydraulic jacks, tools dermatology equipments against the formation of stretch marks, cellulites, wrinkles), flooring for operating rooms, laboratories, clean rooms, electrical cars
11. 시장 개척 가능성은 있으나, 시장이 막 형성단계에 있어서 상담주선이 어려운 품목
eco-friendly products, organic products, kitchen supplies, baby products, promotion items, valves, specialty steel products, hot/cold rolled steel coils/plates, industrial security products, abrasives, components for home appliances

부진 예상 품목

1. 시장성도 낮고 상담주선도 어려운 품목
automotive parts, cutting tools, plastic injection molds, hydraulic breakers and attachmetns, basic steel products (e.g. steel pipes, pipe fittings, steel billets, H-beams, scaffold tubes and couplers), fall protection safety net, software, GPS, server racks, server cabinets, TV programs, online games cosmetics, personal care products, custom jewelry, medical disposables (e.g. syringes, dressings, catheters, non woven disposables, etc.) fertilizers, animal feeds, fumigators, insecticide, veterinary medicines, pet products, furniture, dress rooms, hangers, bathroom equipments, PVC floorings, wall papers, lenses, mirrors, agricultural machinery and equipments, home appliances, cements and additives

2013년도 시장전망 요약

- 2013년에도 주재국 시장은 활기를 띠 것으로 전망되며 GDP성장세도 2012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여 4.5~5.5%의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되는데 이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상위에 속하는 수준임
- 민간 소비분야도 2013년에 5.5%에 육박할 정도의 상승세를 유지할 것이나 정부 지출은 2012년도 7.2%에서 2013년도 4%대의 저조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 수입은 10%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실업률은 금년도 12.4%에서 2013년도 11.9%로 0.5% 줄어듦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소득 증가에 따른 민간 소비로 이어질 것임
- 환율은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할 것이며 RD\$40.7/US\$1.0을 예상하고 있음. 이는 외국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음

호조 예상 품목

- | | |
|------------------------|-----------------------------|
| 1. 자동차 부품 | 2. LED 제품 |
| 3. 컴퓨터 주변기기 및 부품 | 4. 가전기기 |
| 5. 발전기 | 6. 각종 전기 기기 |
| 7. 전선 | 8. 변압기 |
| 9. 스위치 | 10. 건설장비 |
| 11. 의료장비 | 12. 농업기계 |
| 13. 산업용 각종 기계 | 14. 공구 |
| 15. CCTV | 16. 보안장비 |
| 17. 금고 | 18. 인조가죽 등 각종 제조업을 위한 원료 제품 |
| 19. 공장 자동화 시스템(제어 시스템) | 20. 통신용 광케이블 |
| 21. 오토바이 부품 및 주변기기 | |

부진 예상 품목

- | | |
|--|-------|
| 1. 원단 | 2. 의류 |
| 3. 자동차 혹은 주택용 페인트 | |
| 4. 대형 크레인 등 대규모 기계(산업 및 시장규모가 크지 않아 초대형은 시장성이 떨어짐) | |

2013년도 시장전망 요약

- 과테말라의 경제성장률은 2012년 3.2% 정도 예상되며, 2013년에는 글로벌 경기침체 완화 및 최대교역국인 미국경기 호조에 힘입어 3.5%의 경제성장률을 시현할 것으로 전망됨
- GDP 10%를 차지하는 재미교포 송금액의 증가로 내수활성화, 내수투자 증가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
- 전국규모의 발전설비 확충, 송배전설비 확대 등 인프라구축 프로젝트가 확대되면서 건설경기도 서서히 회복될 것으로 예상됨
- 한국산 제품은 승용차, 건설장비 및 기계, 석유화학제품 등에서 호조 예상되며, 전통적 수출품목인 섬유, 섬유기계 등은 수요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호조 예상 품목

- | | |
|----------------|------------|
| 1. 자동차 부품 | 2. 건설장비 |
| 3. 전력기기(변압기 등) | 4. LED제품 |
| 5. 중고자동차 | 6. 중고타이어 |
| 7. 자동차부품 | 8. 합성수지 |
| 9. 의약품 | 10. 정수설비 |
| 11. 병원장비 | 12. 건축자재 |
| 13. 핸드폰 | 14. 감시카메라 |
| 15. 출입장치 | 16. 군경차량장비 |
| 17. 농업용기계 | 18. 미용제품 등 |

부진 예상 품목

- | | |
|---------|---------|
| 1. 식물 | 2. 섬유기계 |
| 3. 건강식품 | 4. 주방용품 |
| 5. 의류 등 | |

베네수엘라 - 카라카스무역관

2013년도 시장전망 요약

- 베네수엘라는 13년차 사회주의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로 강력한 외환통제와 가격통제를 실시하고 있음
- 2012.10.7일 시행되는 대선결과에 따라 급격한 변화가 예상됨
- 차베스대통령이 3선에 성공할 경우 기존정책에서 큰변화는 없을 것이며 석유화학, 전력, 인프라 확충사업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
- 상기선거에서 야당이 집권할 경우는 급격한 정책변화 및 혼란이 예상됨. 즉 외환통제정책에 융통성을 부여하고 외국인투자 유치 활성화를 통해 자국산업 육성에 주력할 것임
- 야당집권의 경우 안정화시 한국산 자동차, 가전제품 등은 2배 이상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고 전체적으로 우리수출은 크게 활성화 될 전망이다

호조 예상 품목

1. 베네수엘라 정부의 석유화학, 전력산업 육성에 따라 전력기자재, 발전기, 변압기, 산업용 밸브 수요 증가예상
2. 외환시장에 융통성부여시 한국산 자동차, 가전제품, 스마트폰, LCD등 수요증가가 예상
3. 아울러 건설붐에 따라 굴착기, 지게차 등 건설장비, 엘리베이터등 기자재 수요증가
4. 기타 의료기기, 의약품, 생활용품 수요도 증가 예상

부진 예상 품목

1. 식품, 농산물, 합성수지 1차 산품은 진출이 어려움
2. 자동차부품은 기존 시장의 포화상태로 신규 바이어발굴이 어려움

2013년도 시장전망 요약

- 브라질 중앙은행에 따르면, 2011년 브라질 경제는 당초기대에 훨씬 못 미친 2.7%밖에 성장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2012년의 경우 연초 브라질 정부가 전년도보다 소폭 상승한 3%의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는 전망을 발표한 바 있으나, 유럽 재정위기 심화로 경제 성장 둔화가 심화되면서 최근에는 성장률이 2%대에도 못 미칠 것이라는 IMF 전망이 힘을 얻고 있음. 한편, 유럽 재정위기가 호전된다는 가정하에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및 2016년 리오 올림픽 개최에 따른 투자확대, 소비심리 개선, 수출회복 등에 따라 브라질은 2016년까지 5%대 경제성장이 전망된다는 의견도 있음
- 2012년 8월 기준 브라질 기준금리는 8%임. 브라질 중앙은행 통화정책위원회는 인플레이 억제를 위해 2010년 4월부터 금리인상 기조를 유지해 오고 있었으나 글로벌 재정위기에 대한 우려감이 심화됨에 따라 2011년 8월 말 정책을 변경하여 금리를 0.5% 포인트 인하하였으며 이후 브라질 정부는 경기부양 및 달러화 대량 유입을 억제하는 목적으로 금리인하 정책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음
- 하락세를 지속하여 한때 1달러=1.5헤알에 근접했던 환율은 유럽 재정위기 발발 이후 2헤알 선을 유지하고 있어 수출업체에게 고무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2012년은 유럽재정위기로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액이 전년도보다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5월까지 FDI 누적액은 200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연말까지 약 500억 달러 상당의 FDI가 유입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브라질 정부는 자동차, 백색가전 등을 대상으로 공업세(IPI)를 감면하는 등 수차례에 걸친 경기 부양 조치를 발표하였으나 소비 진작면에 있어서 큰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브라질 정부는 하반기부터는 경제가 호전된다는 전망에 근거하여 투자에 초점은 맞춘 경기부양조치를 추가 발표할 예정임
- 유럽 재정위기로 인해 소비 감소, 무역 감소 등 경제 성장세는 전반적으로 둔화됐으나 2년 후로 임박한 월드컵과 2016년 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브라질은 스포츠, 교통, 통신 등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건설 중장비 수요도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 또한 국산장비 및 부품 사용 의무로 인해 현재 염전총(Pre-Sal) 심해 유전개발 프로젝트는 진퇴양난에 빠져있는 상황임. 따라서 브라질 정부는 향후 수입산 부품 장비 사용 확대 등과 같은 규제완화를 통해서라도 본격적인 심해 유전개발을 진행한다는 계획을 고려중임

호조 예상 품목

- | | |
|---|----------------------|
| 1. 자동차 부품 | 2. 화학원료 (Resin 등) |
| 3. 친환경 관련 제품들 (재생 에너지, 태양광 패널 등) | 4. 건설용 중장비 및 A/S용 부품 |
| 5. Carbon Steel Sheet/Stainless Steel Sheet | 6. IT 콘텐츠 |
| 7. 네트워크 장비 | |

부진 예상 품목

- | | |
|---|--------------------------------|
| 1. 식품(소비자층이 매우 한정되어 있음) | 2. 화장품(복잡한 수입/유통 허가 및 수입업체 저조) |
| 3. 안경테, 안경렌즈 | |
| 4. 섬유/의류/신발부속품(현지 생산이 매우 활발하며 중국으로부터 대량 수입, Safe Guard 실행중) | |
| 5. 가전제품(다국적 기업들의 대량 현지 생산) | |
| 6. 모조장신구(중국으로부터 장악, 한국산은 타산이 맞지 않음) | |
| 7. 일반 생활용품(예: 목욕 타올 등 - 현지에서는 사용하지 않음) | |

2013년도 시장전망 요약

- 2012년 극심했던 수입규제 및 외환규제 정책이 완화되어 2013년에는 전년대비 점차 경기회복과 수입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됨
- 하지만 정권이 교체될 때까지는 국내산업 보호차원에서 현지 생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는 심할 것으로 전망됨
- 하지만 2013년부터는 남미공동시장 평균 관세가 WTO 최대 허용치인 35%까지 인상될 가능성도 높아짐에 따라 수입규제가 완화되더라도 아르헨티나에서의 현지 제품 대비 수입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현지 생산이 없는 제품들과 높은 기술력 또는 품질을 보유한 제품들만이 시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호조 예상 품목

- | | |
|---------------------------------|-------------------------------|
| 1. 의료기기(X-ray, 심장제세동기, 인공호흡기 등) | 2. 치과용품 |
| 3. 미용기기 | 4. 보안장비(RFID, CCTV, 내화용 금고 등) |
| 5.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등) 관련 제품 | 6. LED제품 |
| 7. 통신기기 및 그 부분품 | 8. 화학제품 |
| 9. 자전거 및 그 부분품 | 10. 원사/섬유/원단 |
| 11. 성형보형물 | 12. 발전기/변압기 |
| 13. 인쇄용 잉크 | 14. 액세서리 |
| 15. 특장차 장비 | 16. 냉동기 |
| 17. 난로 | 18. 낙시용품 |
| 19. 캠핑용품 | 20. 광고용 플렉스 배너 |
| 21. 재봉기 부품 등 | |

부진 예상 품목

- | | |
|-----------------|----------------|
| 1. 자동차부품 | 2. 건축자재 |
| 3. 바닥재 | 4. 농기계 및 그 부분품 |
| 5. 오토바이 및 그 부분품 | 6. 주방용품 |
| 7. 식품 | 8. 화장품 |
| 9. 플라스틱 용기 | 10. 금속기와 |
| 11. 살충제 | 12. 담배 |
| 13. 시계 등 | |

2013년도 시장전망 요약

- 2013년 칠레경제는 2012년과 비슷한 4.3%의 견실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칠레는 1985년 이후 평균 경제성장률이 중남미에서 가장 높음
- (긍정적 요인) 2014년까지 186억 달러 규모의 국가현대화 프로젝트 추진, 2013년 중 120억 달러 규모의 광산 및 전력 프로젝트 투자 지속, 2010. 2.27 강도 8.8의 대지진으로 300억달러의 피해발생으로 2013년까지 지진복구 프로젝트 지속 추진, 세계 59개국과의 지역무역협정을 활용한 농산물 수출확대, 디지털방송법 제정 및 휴대폰 이동번호제로 관련기기 수요증가, 소비자 구매력 향상에 따른 고급제품 선호도 증가 등
- (부정적 요인) 유럽 경제위기로 인한 금융 및 실물경제 불안이 2013년 초부터 악영향을 미쳐 민간소비 및 투자감소 예상, 중국의 구리수요 감소로 연간 수출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구리 국제가격 하락 전망(파운드 당 US\$ 3.5이하)과 수출감소, 2010. 3월 신정부 출범 후 환경영향평가 강화 및 환경단체의 반대로 사회간접자본 및 발전소 프로젝트 입찰 지연 등

호조 예상 품목

- | | |
|------------------|-----------------------------|
| 1. 건설기계 | 2. 광산장비 |
| 3. 건축자재 | 4. 발전기자재 |
| 5. 송배전설비, 변압기 | 6. 에너지절약형 제품 |
| 7. 셋톱박스 | 8. 보안기기 |
| 9. 의료기기, 의약품 | 10. 자동차 배터리, 자동차부품 |
| 11. 위성수신기 | 12. 건설장비 부품 |
| 13. 아연도금 강판 | 14. 합성수지 |
| 15. 선박 엔진 | 16. 케이블전선 |
| 17. 열교환기 | 18. 밸브 |
| 19. IT제품, 전기전자제품 | 20. 오폐수처리장비, 대기오염측정장비, 환경설비 |
| 21. 난방제품 | 22. 사무용가구 등 |

부진 예상 품목

- | | |
|--------------|----------------|
| 1. 제조기계 | 2. 식품 |
| 3. 의류 | 4. 직물 |
| 5. 제조용부품 | 6. 신발 및 부자재 |
| 7. 단순소비재 | 8. 중고자동차(수입금지) |
| 9. 유압브레이커 | 10. 정수기 |
| 11. 폴리에스터 직물 | 12. 비누 |
| 13. 화장품 | 14. 미용장비 |
| 15. 안경테 등 | |

2013년도 시장전망 요약

- 파나마운하 확장공사를 비롯한 다수의 프로젝트가 당분간 지속되어, 2013년에도 7%대의 양호한 경제성장을 유지 예상(EIU 전망)
 - 주요 프로젝트 : 파나마 제2운하 확장공사, METRO경전철 1호선 도입사업, TOCUMEN공항확장사업, 공공병원 신축사업 등
- 특히 공공부문 인프라사업에 힘입어 건축자재를 위시한 관련 장비 구매수요가 꾸준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낮은 실업률로 이어져 내수 소비시장 진작에도 한몫할 전망

호조 예상 품목

- | | |
|--|---------------------------------|
| 1. 건설기계 : 중소형건설장비 | 2. 건설기자재 부속품 : 각종 건설장비의 부속품/소모품 |
| 3. 건설자재 : 인테리어자재, 지붕재, 철강류 | 4. 보안장비 : CCTV, DVR, 금고 등 |
| 5. 자동차부품 : 애프터마켓 소모품 또는 부속류(지사화 품목과의 중복 방지를 위해 사전 협의 요망) | |
| 6. 중고버스 : 건설중장비(지사화 품목과의 중복 방지를 위해 사전 협의 요망) | |
| 7. 아이디어상품 : 아이디어 생활용품 | 8. 의료기기 : 휴대용/가정용 의료(보조)기기 |
| 9. 의료용품 : (당뇨)진단시약, 일회용주사기 | 10. 의료장비 : 병(의)원용 모니터링기기 |
| 11. 제네릭의약품 | 12. 재생타이어 |
| 13. 솔라패널 | 14. LED전구(가로등) |

부진 예상 품목

1. 산업장비 : 제조용 기계류/장비 일체(제조업 전무)
2. 각종 원부자재 : 제조업용 중간재 및 부품류(제조업 전무)
3. 일반생활용품 : 범용플라스틱제품, 의복류(중국산 경쟁치열)
4. 중고차 : 중고승용차(인근국인 미국에서 저렴하게 공급가능하여, 가격경쟁력 없음)
5. 섬유/원단류(중국산 경쟁치열)
6. 선박기자재 : 선박부속품(수요는 많으나 오리지널 또는 고가브랜드 선호)
7. 식품품 : 가공식품류

2013년도 시장전망 요약

- 근래 5년간 페루의 GDP 성장률은 연평균 6%로 '13년에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
- 광업 관련 소요사태 및 치안악화로 인해 고정 투자는 소폭 감소하나 산업생산 증가율은 6.1% 로 '12년 대비 2.1% 상승할 것으로 전망
(자료원: Economist Intelligence Unit)
- 지속적인 경제 성장으로 인해 페루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고 있으며 이는 고용 증대로 이어져 가계소득이 올라가고 민간소비는 연평균 5% 성장 예상

호조 예상 품목

1. 자동차 및 관련 부속품
2. 제조산업 원자재, 기계 등
3. 화학

부진 예상 품목

1. 광업관련 기자재
2. 섬유

구 주

독일 - 프랑크푸르트무역관
그리스 - 아테네무역관
네덜란드 - 암스테르담무역관
덴마크 - 코펜하겐무역관
루마니아 - 부쿠레슈티무역관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불가리아 - 소피아무역관
스웨덴 - 스톡홀름무역관
스위스 - 취리히무역관
스페인 - 마드리드무역관
영국 - 런던무역관
오스트리아 - 빈무역관
체코공화국 - 프라하무역관
크로아티아 - 자그레브무역관
폴란드 - 바르샤바무역관
프랑스 - 파리무역관
핀란드 - 헬싱키무역관
헝가리 - 부다페스트무역관

2013년도 시장전망 요약

1. 시장전망

- 2013년 독일경제 유럽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2.0%이상, GDP 1% 성장예상
 - 제조업분야의 성장둔화가 예상되나, 건설업 및서비스업분야 성장에 힘입어 2.0% 경제 성장예측
 - EU 및 EU외 지역 수출 증가예상
 - 노동시장 안정과 임금인상으로 개인소비 증가

2. 시장특징

- 독일에너지정책 전환으로 신재생에너지 시설확충: 특히 해상풍력 및 송전망 시설 현대화 가속화
- 친환경 공법 및 친환경제품에 대한 관심 급증: 단열재, LED관련제품

3. 소비트렌드

- 공유소비(Collaborative Consumption : 협력적 소비) 트렌드 확대
 - 상품이나 서비스를 소유가 아닌 공유하는 신 개념 트렌드 확산
 - 숙박시설, 카메라, 악기, 자동차(car Sharing), 책, 장난감 등 다양한 상품군으로 확대
- 모바일(Mobile Shopping)트렌드
 - eBook, 음악, 영화게임 등, 서적, CD 및 DVD를 비롯한 전자미디어, 온라인 티켓, 의류나 신발 장신구류 등에 대한 모바일 쇼핑 확대
- 공정소비(Fair-Trade) 확대

호조 예상 품목

1. LED 전구 및 관련제품

- 독일정부의 백열전구 단계별 판매금지실시 및 LED선도시장 이니셔티브 발족으로 독일내 공공 및 일반분야 LED조명관련 품목수요급증

2. 전기자동차관련 제품

- 독일정부는 제2차 전기자동차 개발계획('11.5월)발표로 2020년 까지 최소 100만대의 전기자동차 보급예정
- 전기 저장기술(배터리), 리튬이온전지, 구동기술(모터), 차량, ICT 및 생산기술, 교통 및 에너지시스템통합관련 소프트웨어
- 자동차 경량소재 부품 : 탄소소재 부품 등

3.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를 비롯한 모바일 솔루션 및 관련부품

- SNS, 클라우드컴퓨팅, 멀티스크린 솔루션, 인증 및 보안관련 SW
- 휴대폰 관련 액세서리 등

4. FTA수혜품목

- 디지털 셋톱박스('12.4월 아날로그 위성수신의 디지털 전환), 산업용장갑(고가의 신소재제품 시장 중심으로 경쟁력 강화), 스테인리스 강재(플랜지, 조선, 자동차화학 분야에서 풍력발전 분야로 확대), 자동차부품(FTA최대수혜품목), 기능성 섬유, 프리미엄가전, 디스플레이, 에너지절약전구 등

부진 예상 품목

1. 품목별 필요 인증(EU DIN, TUEV) 미보유 제품
2. 특별한 기술력 미보유 제품으로 아시아제품 대비 가격경쟁력이 낮은 제품

2013년도 시장전망 요약

- 그리스 경제위기가 장기화, 불안정한 정부 구성으로 소비가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태임. 경제 전문가들은 그리스 경제 위기 및 침체가 2015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유로존 탈퇴 가능성 또한 염두하고 있음
- 현재 소비자 심리는 신 제품 구입 보다는 수리/유지할 수 있는 곳의 지출을 하고 있으며 불필요한 지출을 자제하고 있는 상태임. 불경기에서도 소비자들의 구매 증가를 보인 제품은 자전거, IT/통신 제품 및 액세서리임
- 현지 기업들의 경우 정부 주요 정책 및 개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해당 분야는 재생에너지, IT, SW, SI, 의료기기 및 의료도구임
- 수입에 의존하는 수입국가로서 주로 독일 제품을 기준으로 기타 유럽 생활필수품을 수입하고 있으며 카르푸, Aldi 등 주요 대형슈퍼마켓이 그리스 시장에서 하나둘 빠져나가고 있음. 이 외 외국기업 주요 유통망이 그리스 시장 공급 중단 및 물량을 줄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지 유통기업들은 다른 생활필수품 공급사/유통업체를 모색할 것으로 예상됨(샴푸, 린스, 세탁용 세제, 치약, 생리대 등)
- 현지 유통업체들의 공산품 자사브랜드(화장지, 세제, 샤워젤 등) 유통이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타 브랜드 제품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 또한 증가를 보이고 있음. 앞으로 자사브랜드 제품은 생활소비자제품목에서 식음료 및 IT 및 통신 분야로 확장될 것으로 예상

호조 예상 품목

1. 재생에너지 관련
 - 태양광 패널, 인버터, 풍력 터빈, 블레이드
2. IT/통신 제품
 - 광통신 관련 기기, WiFi 공유기
 - PC 및 관련 액세서리
 - VDSL기기, USB, 휴대폰 액세서리
 - WiFi 공유기, 광케이블
3. 자동차 배터리 및 기타 자동차 부품(브레이크파트, 램프, 타이어 등)
4. 자전거
5. 플라스틱가공제품
6. 폴리에스테르, 면, 레이스 등 의류 원단 및 자재
7. 생활소비재 품목 (공산품)

부진 예상 품목

1. 건축자재(경기침체에 따른 건축경기 하강)
2. 식음료, 건강식품 및 기능성식품
3. 기계류/금형(제조업 미발달)
4. 신발/섬유 및 의류 완제품(저가 중국산 가세)
5. 문구 및 완구(저가 중국산 가세)

2013년도 시장전망 요약

- 유럽 경기회복 지연이 전망됨에 따라 일반 대중의 소비회복이 늦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소비재는 품질보다는 가격에 치중한 소비성향 확대 전망
- 이러한 소비성향과 맞물려 친환경 제품이나 소비절약 제품의 소비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품목의 수출확대 기대
- 또한 한국산 자동차 점유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자동차 부품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호조 예상 품목

1. IT제품(인터넷 통신, 방송 송수신, LCD 모니터, LCD 패널)
2. LED 관련제품(판넬, 조명)
3. 절전기능제품(지능형 절전 콘센트 등)
4. A/S용 자동차부품(배터리, 카오디오 등)
5. 소형고급 소비재(스마트폰 액세서리 등)
6. 선박기자재(전기조향장치, 밸브류)
7. 유아용품(자동차 카시트 등)
8. 지능개발용 장난감: 친환경 나무로 된 장난감 등 현재 원목으로 된 장난감 등은 스칸디나비아 제품이 시장을 점유하고 있으나, 시장가격이 너무 높아 한국산의 품질을 갖고 좋은 품질을 갖고 있다면 승산이 있다고 보며 자석으로 된 LEGO 형식의 장난감도 승산이 있음
9. 각종 Wireless 인터넷 관련 제품- Wireless 보급확대에 따른 Egg등의 네트워크 관련 아이디어 제품
10. 세탁용품: 세제 가격이 상당히 고가이어서 친환경 세제 등 아이디어 상품
11. 각종 원예관련 제품: 가정용 원예 제품의 액세서리 등
12. 태양광 패널(창고용)
13. 인터폰, 비디오폰(아파트용)
14. 굴삭기 및 Hydraulic hammer 관련 소모품(건설용)
15. BB크림, 마스크팩(기타 화장품은 어려움)
16. 의약품용 원료(주사용 정제 등)

부진 예상 품목

1. 대형 장치 품목(열교환기, 산업용 보일러 등 프로젝트성 품목)
2. 제조업 관련 기계부품
3. 금형(기계, 전자)
4. 자동차 핵심 부품(엔진 블록, 주요 사출부품 등 자동차 제조에 사용되는 주요 부품)
5. 소형가전(믹서 등 소형 가전제품)
6. 식음료
7. 의류

2013년도 시장전망 요약

1. 최근 시장 동향

- 덴마크는 재정위기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고 있어, 재정위기로 인해 시장 구조가 변화하였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움. 단, 세계적인 시장 확대 추세이며 덴마크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풍력발전기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커지고 있음
- LED전구 등 에너지 절약형 상품, 첨단 IT, 전자기기 제품 등이 소비자로부터 최근 지속적인 관심을 받고 있으며 덴마크 국민들이 전통적으로 선호하는 식기, 도자기 등 각종 주방용품, 디자인 가구 등의 소비 지출이 높음
- 최근 몇 년간 개인 소비는 글로벌 금융위기 위축되는 양상을 보임. 세제감면, 임금 상승, 이자율 하락 등 소비 증가 요인들이 있었으나, 소비 심리 불안으로 저축이 크게 늘어 소비 증가율은 낮은 증가세를 보임

2. 기업 동향 및 소비 전망

- 세계 최고 수준의 높은 인건비로 인해 덴마크 제조 기업의 해외 이전이 가속화 되고 있음
 -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 의료바이오분야, 홈 인테리어 제품 등 덴마크 강점 산업 분야에서도 해외 이전이 진행되고 있음
 - 고부가가치 기술제품을 제외하고는 생산원가 절감 효과가 크고 대규모 신흥 시장이 인접해 있는 동유럽 및 아시아 시장에 대한 덴마크 기업의 분산이 커지고 있음
- 덴마크 내수시장의 수입품 의존 비중이 매우 크므로 소비재를 중심으로 수출 공략 노력 요망
 - 덴마크는 기계, 설비 제품은 독일, 스웨덴 등 유럽 국가 의존도가 매우 높으나 소비재는 유럽과 중국, 한국 제품으로 다원화되어 있음. 한-EU FTA체결로 시장 확대 가능성이 높아졌으므로 한국 기업의 적극적인 수출 노력 전개 요망

호조 예상 품목

- | | |
|--------------|------------------|
| 1. LED 전구 | 2. CCTV |
| 3. 피부미용기구 | 4. 각종 실버용품 |
| 5. 건강식품 | 6. 액세서리 |
| 7. 자동차용 배터리 | 8. DIY 용품 |
| 9. 정원 관리용 장비 | 10. 풍력발전기용 각종 부품 |
| 11. 태양광 패널 | 12. IT기기 |
| 13. 전선케이블 | 14. 보안기기 등 |

부진 예상 품목

- | | |
|-----------|-----------|
| 1. 자동차 부품 | 2. 의류 |
| 3. 일반 식품류 | 4. 산업용 설비 |
| 5. 의료용품 등 | |

2013년도 시장전망 요약

1. 유로존 경제 불안정으로, 경기 침체 지속 우려
 - 금융권 신용대출 급경색, 실물경제 크게 위축 우려, 경상수지 적자 확대, 내수 소비 정체현상 예상
2. 전반적 민간산업 침체 속에 공공재정투입을 통한 경기부양 본격 추진
 - 정부재정, EU FUND 활용 개발 프로젝트 추진
 - 주요 (예상) 프로젝트 : 에너지(발전설비 현대화, 신재생), 환경설비(생활쓰레기, 폐수처리), 개발프로젝트(도로, 교통, 항만), IT산업협력(디지털 시티, 스마트카드), 기타(민간 병원 설립) 등
 - 중전기, 태양광, 폐수처리 관련 기계 및 기자재 수입 증가
3. 의료기기, 농기계, 휴대폰 시장 등 불황속 수출유망품목 부상
 - 농기계 매년 40% 고속성장, 2011년 불황속에서도 잘나가
 - 제약산업(10% 성장), 의료기기(20% 성장)
 - 스마트폰 중심의 휴대전화(40% 성장)
4. 한-EU FTA 수혜품목 수출확대
 - 루마니아 임가공 수출품의 원부자재로 한- EU FTA 수혜품목
 - 가격경쟁력 강화에 따른 한국산 제품 선호(섬유사, 직물 등)
5. 루마니아 수출산업 위축, 수출용 원부자재 수입 감소
 - 루마니아 수출, 대 서유럽 시장 70% 절대적 의존, 서유럽 경기 절대적 의존
 - 중소형 조선 신규 주문량 감소, 루마니아 자동차 브랜드의 대 서유럽 선적 대수 감소
6. 경기침체로 인한 내수시장 동반부진
 - 유럽 경기침체로 인한 해외 체류 근로자의 송금 감소, 구매력 위축
 - 한국산 신제품 구매력 감소, 중저가 위주의 수요 소비행태

호조 예상 품목

- | | |
|------------------------|-------------------------------|
| 1. 건설 기기 | 2. 건축 자재 |
| 3. 중전기 | 4. 신재생에너지관련 기기 및 제품(특히 태양광발전) |
| 5. 생활쓰레기 처리관련 기계 및 기기 | 6. 폐수처리관련 기계 및 기기 |
| 7. 폐기물 리사이클링관련 기계 및 기기 | 8. IT제품 |
| 9. 농기계 | 10. 농업용 장비 |
| 11. 의료기기 | 12. 제약관련 기기 및 제품 |
| 13. 건강관리용 기기 및 제품 | 14. 섬유사 |
| 15. 직물 | 16. 생활용품 |
| 17. 포장기계 | 18. 섬유기계 |
| 19. 산업기계 | 20. 자동차부품 |

부진 예상 품목

- | | |
|------------|--------|
| 1. 철강제품 | 2. 선박류 |
| 3. 석유화학제품 | 4. 가전 |
| 5. 일반/정밀기계 | |

2013년도 시장전망 요약

1. 경제여건

- 정부 부채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추가 긴축조치가 예상되는 바, 자원부족에 따른 경기부양의 한계로 경제상황이 단기간에 개선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됨
- 민간 소비는 계속 침체될 것으로 전망되며, 건설업(-0.9%)과 제조업(-0.4%) 생산 위축이 예상되는 가운데 건설자재 및 중간재, 투자재의 수입 감소 예상
- 특히 2012년 10월 지방선거 전 증가(예상)한 공공분야 투자가 2013년에는 다시 위축될 것으로 예상됨
- 제조업 생산 및 기업투자 축소, 내구재 소비재의 구매 연기 등의 영향으로 수입 부진 전망

2. 시장여건

- 구매욕구와 구매력을 절충한 low-cost 제품에 계속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유통분야에서 고유 브랜드(private brand) 제품 판매 비중이 증가
- 일부 FTA 수혜 품목, 특히 화학(합성수지, 정밀화학원료) 및 섬유(인조 및 기술섬유) 제품은 관세 인하로 인해 품질대비 가격 경쟁력이 더욱 상승하여 수출 증가 기대
- 그러나 전반적인 경기 침체 및 유로가치 하락으로 한국기업 수출 여건은 2012년보다 악화될 전망

호조 예상 품목

- | | |
|--------------|-------------------|
| 1. 석유화학제품 | 2. 의료기기 |
| 3. 천공시추기 | 4. CCTV |
| 5. DVR | 6. 디지털 도어락 |
| 7. LCD 디스플레이 | 8. 피부미용기기 |
| 9. 산업용 접착테이프 | 10. 농업용 기계 |
| 11. 전기자전거 | 12. X선 및 방사선기기 부품 |
| 13. 윈도우 필름 | 14. PVC 호스 |
| 15. 자동차배터리 | 16. 광커넥터 |
| 17. 위성방송수신기 | 18. 모바일 프린터 |
| 19. 혈압측정기 | 20. 변압기 |
| 21. 합성섬유 | |

부진 예상 품목

- | | |
|------------------|-----------------|
| 1. 1차 시장용 자동차 부품 | 2. 한국식품류 |
| 3. 전자기기 부품 | 4. 차량내 설치 디스플레이 |
| 5. LCD테스터 | |

2013년도 시장전망 요약

1. 한-EU FTA로 수출여건 개선

- 관세폐지 및 면제품목의 수출증대 예상
- 섬유류(4-8%), 화학수지(6.5%), 승용차(10%) 등 한-EU FTA관세면제 품목의 큰 폭의 수출증대 예상
- 섬유와 화학수지는 가격탄력성이 커서 시장 확대가능성이 높음
- 비관세 장벽철폐와 수출절차의 간소화로 중고차, 기계부품 등의 수출여건 개선

2. 가격대비 품질경쟁력을 보유한 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

- 의료기기의 경우, 단순 저가 중국산을 찾던 시장에서 가격대비 품질경쟁력을 보유한 제품을 찾는 형태로 바뀌어가고 있음
-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듯 한국산 의료기기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무엇보다 의료기기에 포함되는 피부, 비만 관리기기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음
- 현지에서 한국산 의료기기는 품질대비 가격경쟁력이 우수한 제품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저가의 중국산과 고가의 유럽산의 대체품으로 각광받고 있음
- 또한 2010년부터 불가리아 정부의 의료현대화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한국산 의료기기 수출확대 가능성이 고조됨

호조 예상 품목

1. PET(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 불가리아는 PET 원료를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매년 수입규모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여전히 불가리아 시장에서는 음료용기로 PET 병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 당분간 PET 수요는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보임
- 한-EU FTA 체결에 따른 관세 하락으로 한국으로부터의 수입 규모는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분석됨
- 아울러 2012년 초부터 한국이 ANTI-Dumping 관세 대상국에서 제외됨으로 한국으로부터의 수입 규모 확대에 크게 기여함

2. 혈압측정기

- 혈압측정기 시장은 300백달러 규모로 시장이 작지만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임
- 2011년 혈압측정기 수입 규모는 중국(44%), 네덜란드(20%), 독일(11%)의 순으로 나타남
- 주로 저가인 중국산이 시장으로 주도하고 있고, 네덜란드, 독일 제품이 고가 시장군을 형성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가격대비 품질경쟁력을 갖춘 우리제품이 틈새시장으로 겨냥해 볼 만한 시장임

3. 피부·비만 관리기

- 불가리아는 소득수준 증대에 따라 피부 미용에 대한 관심과 소비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피부관리, 마사지, SPA 용 기기들의 수요가 급증세를 보이고 있음
- 고주파 지방분해기, 피부박피기, 마사지기, 사우나 스파시설, 스트레이트 고대기, 화장품 팩 등 미용관련 장비 및 기기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 ○ 특히 한국산 고주파 지방분해기 수요가 늘고 있으며, 국내업체의 대리점 업체도 점차 늘어나고 있음
- 한국산 고주파 지방분해기 수입규모는 약 10만 달러 수준이며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4. 편직물

- 불가리아는 의류생산에 필요한 직물과 원단의 수입이 많은 편이며 극심한 불황이 해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2008년도 이전의 수준으로 섬유류 수입이 회복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편직물의 경우 한-EU FTA 체결로 8% 관세 철폐에 따른 가격경쟁력 제고로 한국산 편직물의 급격한 수요 증가 전망

- 대부분의 섬유 식물 수입상들은 한국과의 거래 경험이 거의 없으며 한국산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은 편임. 그러나 한국산을 취급한 경험이 있는 바이어들은 한국산을 선호하며 장기간 지속적인 거래를 하는 편임

- 2011년 한국산 편직물 수입은 1백만 달러를 기록하였고, 전년대비 50% 증가함

5. 폴리에스테르직물

- 불가리아의 직물시장은 유럽 메이저 의류유통업체의 하청생산을 하고 있는 대규모 수요자에 의해서 좌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불가리아는 비교적 중고가의 의류를 주로 생산하고 있어 수입품목 역시 이에 상응하는 중고가 제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
- 폴리에스테르직물의 경우, 한-EU FTA 체결로 4% 관세 철폐에 따른 가격경쟁력 제고로 급격한 수요 증가 전망
- 특히 직물은 가격탄력성이 높아 관세철폐에 따른 수출증대 예상
- 2011년 한국산 폴리에스테르직물 수입은 250만 달러를 기록하였고,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함
- 이는 한-EU FTA 관세철폐에 따른 가격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수입증가세는 지속될 전망

6. 통신용 동축케이블

- 불가리아 통신용 동축케이블 시장은 약 4천만 달러로 추정됨
- 불가리아의 가장 큰 케이블 TV운영자는 Blisoo사이며 기타 Msat Cable, BBC Cable TV등이 있음
- 아울러 순수 위성방송 사업자들도 대량 수요처중의 하나이며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방송은 Bulsatcom이며 이 밖에 Satellite BG, Vivacom TV 등이 있음
- 이처럼 케이블 TV 및 위성방송 가입자 수가 증가하면서 통신용 동축케이블의 수요도 동반 증가하고 있음
- 2011년 한국산 동축케이블 수입규모는 약 6백만 달러를 기록함

7. 광케이블

- 불가리아 2011년 광케이블 수입규모 1350만 달러를 기록 전년대비 87% 증가함
- 이는 매년 인터넷 가입자수와 브랜드밴드 서비스 시장의 성장에 따른 광케이블 수요 증가로 분석됨
- 브랜드밴드 가입율은 2012년에 30%를 넘어설 것으로 보임

8. CCTV

- CCTV, DVR 등 보안장비 수요 크게 증대
- SW를 탑재한 보안 솔루션과 장비의 통합판매시 지속적인 서비스와 기자재 납품으로 향후 수출효과 증대가능
- 한국산 CCTV 수입규모는 50만 달러 수준임

9. 브레이크 패드(자동차부품)

- 불가리아의 브레이크 패드 시장규모는 3500만 달러이며, 한-EU FTA 체결로 4.0%였던 관세가 0%로 없어짐
- 경기침체로 신차시장은 줄어들고 있는 반면 중고차 시장이 전체 자동차 시장의 85-90%를 차지하면서 자동차부품에 대한 수요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임
- 불가리아의 브레이크패드 수입물량은 독일(32%), 이탈리아(17%), 터키(8%)의 순으로 나타남. 전체 수입물량의 90%가 EU국가들로부터 수입되고 있음
- 2011년 한-EU FTA 발효에 힘입어 전년대비 150%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현지 수입업체들도 한국산 브레이크패드에 대한 관심과 수입물량이 매년 조금씩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10. 위성방송수신기

- 2010년 말을 기준, 불가리아 위성방송 수신기의 수입액은 830만 불이었으며 전체 시장규모는 1천만 불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됨
- 불가리아의 디지털 TV시장은 타 서유럽국가에 비해 매우 뒤쳐진 상태임. 시장 형성의 초기단계로 향후 3-4개월 내에 많은 변화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EU는 각 가입국에 대해 의무적으로 2012년 12월말로 아날로그 방송을 종료하고 2013년부터는 디지털 방송만을 송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불가리아도 금년 내로 디지털 TV방송을 일반화해야 할 상황임

- 디지털 위성방송이나 디지털 케이블 TV등 다른 형태의 디지털 방송은 매우 활성화되어 있고 가입자수도 많은 편임. 이러한 이유로 과거 15년간 케이블TV수신기나 위성방송 수신기의 시장은 꾸준히 팽창해왔음
- 따라서 불가리아의 위성방송 수신기 시장은 향후로도 유망한 시장으로 간주되고 있음
- 2010년 기준 한국산 위성방송수신기 수입액은 4백만 달러를 기록하였고, 2011년에는 1백만 달러로 크게 감소하기는 하였지만 과거에 보급한 위성 방송수신기의 교체수요가 발생하고 있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각 방송사들의 신규 구입이 예상되고 있어 시장성이 좋음

11. 베어링

- 불가리아는 산업화 과정을 겪지 않은 몇 안 되는 유럽국가로 산업설비와 교통수단에 필수 부품인 베어링 시장규모는 연간 1억 불 내외로 타 국가에 비해 적은 편임
- 불가리아에서 유통되는 베어링의 종류는 크게 산업용과 자동차용이 있으며 약 8천여가지의 베어링이 유통되고 있음. 가격대별로 고급, 중급, 저가품 시장으로 3분 되어 있으며 고가 시장에서는 유럽 및 일본, 미국 브랜드가 중가는 러시아, 체코, 슬로바키아 브랜드가 저가는 중국산이 강세를 보이고 있음
- 현지 수입상들의 평가에 따르면 한국산 베어링도 중가브랜드 군에 속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마케팅 활동이 거의 없어 이렇다할 시장 진출을 보이지 못하고 있음
- 전체 베어링 시장에서 한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대에 불과하지만 국내업체들이 중가 브랜드 시장을 집중 공략한다면 수출 확대가 가능함
- 현지 시장에서 한국산의 인지도가 약하고 사용 경험이 적어 시장 확대에 걸림돌이 되지만, 한국산 품질을 알리기 위한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함

12. 타이어

- 2010년 말을 기준으로 한 불가리아의 신차판매대수는 약 3만대로 매우 협소한 시장이나 중고차는 연간 20만대 이상이 수입되고 있어 중고차 위주의 차량시장이 형성되어 있음
- 불가리아의 타이어 시장은 연간 2억~3억불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연간 평균 120만 개의 타이어가 판매되고 있음
- 2010년 말을 기준으로 한 불가리아의 연간 타이어 수입규모는 1억 2천8백만 달러를 기록함
- 불가리아는 소득수준이 낮아 가격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극심한 불황의 여파로 고급품질에서 가격이 저렴한 중저가로의 소비이동이 뚜렷해지고 있으며 이틈을 타 저렴한 중국산이 크게 시장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임
- 우리나라는 매년 200~250만 불 내외의 타이어를 불가리아에 수출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비중은 한국산의 시장점유율 10% 대로 낮은 수준으로 추가적인 시장 확대 여지가 많음을 보여주고 있음
- 특히 2011년 7월1일부터 발효된 한-EU FTA로 인하여 그동안 평균 4.5%의 수입관세가 향후 3년 동안 폐지될 예정이어서 가격경쟁력 제고가 예상되므로 이러한 이점을 최대한 활용할 경우가 수출확대의 가능성이 높음

13. 소형 가전 및 전자제품

- 불가리아의 가전제품 시장규모는 약 14억 달러로 추정됨
- 2010년 이후 지속적인 경기불황과 내수 침체로 가전제품 판매에도 고전이 지속되고 있고 가격이 중요시되는 가운데 브랜드의 이미지를 고려하는 소비자들의 구매행위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음
- 관련 업계전문가 및 종사자들은 2013년부터 경기침체에서 조금씩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2014년까지는 불가리아 전자제품시장 규모가 18억불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 진공청소기의 경우 약 20개의 국제적인 브랜드들이 치열한 각축을 벌이고 있음. 이중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브랜드는 한국의 삼성(30~40%) LG (8~12%), 대우 (약 8~10%) 이며 그 다음으로 독일의 Zanussi(2.5~9%), Zelmer(2.5% 내외) 등임. 한국산 제품이 불가리아 가전제품 시장 점유율의 우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음
- 이러한 한국산 브랜드에 대한 높은 인지도를 십분 활용하여 중소형 가전 · 전자제품의 시장진입을 위한 불황기 시장 확대정책이 필요함

14. 휴대용 컴퓨터

- 불가리아 시장에서 한국산 소형 가전제품의 인지도는 매우 높음
- 이에 따라 한국산 휴대용 컴퓨터의 수요도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2011년 수입규모는 1백만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대비 3배 정도 증가함
- 경기침체라는 상황 속에서도 소형 가전제품 시장에서 한국산 브랜드가 강세를 보이고 있음

15. 중고차

- 불가리아의 차량 보유대수는 약 220만대로 중동부유럽 국가들 중에서는 비교적 높은 차량보유비율을 기록하고 있음. 그러나 대부분의 차량이 7년 이상 노후차량으로 잦은 고장과 차체 결함으로 차량상태는 매우 불량한 상태임
- 2010년 말을 기준으로 한 불가리아의 신차판매대수는 약 3만대로 매우 협소한 시장이나 중고차는 연간 20만대 이상이 수입되고 있어 중고차 위주의 차량시장이 형성되어 있음
- 특히 현지에서 현대차 택시가 많이 보급되어 있고 한국산 차량이 내구성이 좋기로 소문이 나 있어 인지도가 매우 높은 수준임
- 그러나 택시회사들의 한국산 신규 택시 수요를 재고 물량이 따라가지 못해 중고차를 찾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보통 2~3년 된 택시용 중고차를 선호하고 있으며 대금결제 조건이 맞는다면 실질 오더의사를 밝히는 바이어들도 있음
- 그러나 2~3년간에 걸친 할부 납부가 걸림돌이 되어 실질 오더로의 연결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국내업체들이 보험회사를 통한 할부 납부의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한국산 중고차의 수출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한-EU FTA 체결로 3년간 단계 철폐에 따른 가격인하 효과가 있어 중고차 수입상들의 한국산 차량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16. 건설중장비 및 관련 부품

- 불가리아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건설경기도 동반 침체되어 당분간 급격한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EU펀드 지원에 따른 대형 건설공사와 소규모의 관광 및 주택시설 건축으로 전년도에 비해 20% 내외 회복할 것으로 보임
- 이에 따라 수요가 많지는 않지만 건설중장비 및 소모성 부품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세
- 특히 유압브레이커의 경우, 바이어들이 한국산에 대한 사용경험이 적고 인지도가 낮아 수요가 많지 않으나 일부 바이어들은 한국산 유압브레이커를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품질에 대해 만족해함. 속도는 느리지만 조금씩 건설중장비 수요 및 관련 부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전망임

17. 특수 기능성 직물

- 최근에는 스포츠 의류, 등산복, 수영복등에 소요되는 특수 기능성 직물의 수요가 크게 늘고 있음
- 기능성 직물 역시 현재는 시장 수요가 크지 않지만 향후 성장가능성이 크며, 한-EU FTA 관세철폐에 따른 특혜품목인 바, 수입 증가 기대
- EU 또는 한국에서 개최되는 섬유 의류전시회, 무역사절단 참가를 계기로 동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폭넓은 마케팅 활동이 필요함

18. X선 및 방사선기기

- 또한 2010년부터 불가리아 정부의 의료현대화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X ray 장비에 대한 수입 수요 증가세
- 불가리아 주요 병원들이 X-ray 및 방사선 기기가 노후화되어 교체 필요
- 특히 X-ray 및 방사선 기기 구매는 대부분 정부주도형 입찰인 바, 입찰참가에 대한 장벽이 높은 것이 현실임
- 그러나 병원들이 고가의 독일산 보다는 가격대비 품질경쟁력을 보유한 제품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어, 기존 GE, SIMENS 가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기는 하나, 지속적인 한국산 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 마케팅 활동이 필요함
- 또한 국내업체들이 KOTRA 와 협력하여 정부 입찰 담당자 및 병원 관계자들과의 휴먼네트워크를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함

19. 철삭공구

- 불가리아의 드릴, 엔드밀, 탭 등 철삭공구 시장 규모는 약 2천만불 규모로 추정
- 불가리아의 철삭공구시장은 크게 고가품과 저가품 시장으로 양분되어 있으며 고가품 시장에서는 독일산이 저가품 시장에서는 중국산이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음
- 대부분의 철삭공구 수입상들은 마진율의 극대화를 위해 가격경쟁력을 중요하게 여기며 저가품인 중국산이 상대적으로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음. 반면에 철삭공구의 최종 소비자들은 가격 못지않게 품질을 중요시 여기며 보수적인 소비행태를 보이고 있어 신규 거래선을 개발하기 위한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이 요구됨
- 2009년부터 한국산 엔드밀도 수입되고 있으며 현지 시장의 15% 내외를 차지하고 있음
- 엔드밀의 특성상 경도와 내구성이 중요시되며, 기술과 품질경쟁력이 있는 한국산 제품이 보다 지속적인 마케팅 활동을 전개한다면 현재보다는 높은 시장점유율 확보가 가능
- 다만 현지 시장규모상 오더 물량이 작다는 점에 신축적인 대응이 필요함

20. 스틸와이어로프

- 불가리아에서 스틸와이어로프는 주로 엘리베이터용과 기중기용으로 대별해서 사용되고 있음. 용도에 따라 엘리베이터용이 30%, 기중기용이 70% 정도의 분포를 보이고 있음
- 불가리아의 와이어로프 시장은 2008년 말을 기준으로 약 2천만불 규모로 추정되며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
- 불가리아의 스틸와이어로프는 크게 독일, 오스트리아 산으로 대표되는 고가제품과 한국, 루마니아, 터키, 헝가리산의 중저가 제품, 러시아, 중국산으로 대표되는 저가 제품 등 3등분 할 수 있으며, 중국산은 2007년부터 중국산에 대한 반덤핑 관세부과로 수요가 거의 없음
- 오스트리아산 스틸와이어로프는 사양과 용도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1Kg 기준으로 5.3 US\$정도이며 루마니아 산은 2.61US\$, 터키 2.66US\$, 한국 2.24US\$, 러시아 1.32US\$, 중국 1.73US\$ (2008년도 수입단가 기준)으로 많은 가격 차이가 나고 있음
-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 유럽산은 내구성이나 브랜드 인지도, 탄성 등에서 월등히 앞선 고품질을 자랑하나 가격이 증가대비 2배 저가 대비 4배나 비싸 수입 물량이 줄어들고 있음
- 불가리아 시장이 가격에 매우 민감한 바, 현지 시장에 맞는 가격조건을 맞추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진다면, 중저가 시장에서의 수요 증가가 가능함

부진 예상 품목

1. 한국 전통식품류

- 아직 한국전통 음식에 대한 현지인들의 기호와 관심이 널리 확산되지 않아 수요가 극히 미비함
- 제과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는 초콜릿류로 2010년 말을 기준으로 4억5천8백만 레바 (2억3천4백만 유로)로 전체 제과류 시장의 65.9%를 차지하고 있으며 뒤를 이어 비스킷과 스낵류가 2억1천8백만 레바 (1억1천2백만 유로)로 31.4%, 기타 껌 류가 1천8백만 레바 2.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불가리아 인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에 비해 짭짤과 진한 단맛을 선호하여 우리나라의 제과류의 맛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과자를 즐겨하며 이러한 까닭에 진하고 깊은 맛의 초콜릿류를 선호함

2. 기계류 부분품

- 불가리아 시장 규모가 작아 기계류를 비롯한 자동차 부품의 경우 부분품을 수입하여 수리 및 조립하지 않고 완제품 부분품을 수입하여 설치하는 after market 시장임
- 또한 제조업 기반이 열악하여 전문 기계 부분품 제조업체가 세분화되어 있지 않음
- 예를 들어, 자동차 컴프레서가 고장난 경우 대부분 컴프레서 전체를 교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컴프레서 부분품을 수입하여 수리하지는 않음
- 이러한 이유로 인해 일부 부분품을 취급하는 수입업체가 없고 일부 업체가 수입하기는 하나 그 수요가 매우 미비함

3. 문구류

- 현재 불가리아에는 office 1(USA), Plesio(Greece) 등 유럽 기업들이 기 진출하여 유통망을 선점하고 있음
- 여기에 불가리아 로컬 업체(Office Express, Ronos)들도 불가리아 주요 도시들에 유통 매장을 두고 마케팅을 활발하게 하고 있어 경쟁이 매우 치열함
- 문구류의 경우, 불가리아 로컬 업체들의 강세가 시장에서 두드러지고 있어 타 브랜드의 시장진입이 사실상 어려움

4. 가구 및 주방용품

- 현재 불가리아 가구산업이 경기침체로 인해 도산하는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고 가구 수요가 크게 감소하여 기존 재고를 할인판매하는 상황임
- IKEA, ARON, LABRINT, COMO 등 대형 매장들이 들어서 있어 이들 매장을 중심으로 한 판매가 주를 이루고 있음
- 불가리아 로컬 가구 제조업체는 소수이며 대부분 소비자들로부터 주문을 받으면 폴란드 본사에 주문·제작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 전통적으로 주방 가구 및 용품은 이탈리아산이 시장에서 브랜드 입지도를 굳게 지키고 있어 타 브랜드에 대한 관심이 저조함
- 가구 산업의 침체로 인해 주방가구 및 용품에 대한 수요 역시 크게 감소함

5. 건축기자재

- 현대 불가리아는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건축 기자재 수요도 동반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건설경기의 지속적인 불황에 따라 일부 건축기자재는 덤핑판매나 특별할인 판매가 횡행하고 있음. 특히 PVC 건자재나, 지붕재, 내장재 등은 정상가의 10-12%의 가격 할인이 일반적임
- 2009년 이후 건축자재 가격은 정체된 상태이며 거래량도 2008년 이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불가리아는 대형 인프라건설이나 빌딩 및 주택건설에 주로 철근과 시멘트를 혼합한 자재를 사용하고 있으며 형강이나 보드와 같은 고급자재의 사용은 매우 드문 편임
- 경기회복까지는 향후 2-3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국제적인 원자재 가격의 급등에도 불구하고 철강재, 철근, 시멘트, 내장재, 플라스틱 건자재 등의 가격과 수요는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또한 Praktiker, Mr. Bricolage 등 전문 매장을 통해 제품이 판매·유통되고 있어, 한국산 자재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극히 저조함
- 금속 기와와 같이 일부 품목에 있어 한국산 제품에 관심이 있어도 가격이 비싸다는 점과 40일이 넘는 딜리버리가 큰 제약이 되어 실질 수출로의 연결은 거의 어려운 실정임

2013년도 시장전망 요약

1.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 늘고 신규교체 수요 감소

- 스웨덴의 신규차량 등록대수는 금년5월의 경우, 전년 5월 대비 14.9% 감소하였으며, Lorries의 경우는 20.1%나 크게 감소하였음
- 소비자들이 지출을 줄이면서 가능한 한 자동차, 가전제품 등의 구매 교체주기가 길어지고 점점 더 가격에 민감해지고 있음

2. 대형유통업체간 침체된 소비시장 속에서 경쟁가속화

- 스웨덴 소매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대형유통업체는 소매시장이 침체한 가운데 소비진작을 위한 대형유통업체간 가격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음
- 특히 생활용품, 전기 및 전자제품 유통업체간 경쟁이 치열함

호조 예상 품목

- | | |
|-----------------|---------------|
| 1. LED | 2. 네트워크 통신장비 |
| 3. 광통신 장비 | 4. 소형 백색가전 |
| 5. 알코올측정기 | 6. 사무용 의자 |
| 7. 식품포장기기 | 8. 모니터 |
| 9. 차량용 배터리 | 10. 산업기기 부품 |
| 11. 산업용 밸브 | 12. 휴대기기 액세서리 |
| 13. TV | 14. 소형 전자기기 |
| 15. 아시아 식품 | 16. CCTV |
| 17. PCB | 18. 시추장비 |
| 19. 전동/접이 식 자전거 | 20. 풍력발전 |

부진 예상 품목

- | | |
|-------------|------------|
| 1. 자동차 부품 | 2. 목재 건설자재 |
| 3. 일반 모조장신구 | 4. 안경 |
| 5. 콘택트렌즈 | |

2013년도 시장전망 요약

1. 유로지역 재정위기와 스위스프랑 강세에도 불구하고 소폭의 성장세 예상

- 스위스의 최대 무역대상지역인 유로지역의 재정위기 지속과 스위스프랑 강세에 기인하여 수출의 고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견조한 내수시장 덕택으로 1.4%의 성장이 예상됨
- 더불어 국제외환시장에서 유로, 달러화 대비 스위스프랑이 상대적으로 선호되면서 스위스프랑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며, 스위스 수출 가격경쟁력 약화의 요인이 되고 있음

2. 스위스 경제성장 둔화로 우리나라의 대스위스 수출 마이너스 성장

- 유로지역 재정위기와 스위스프랑 강세에 영향으로 스위스 수출이 2012년 들어 마이너스 성장 중에 있으며, 무역의존도가 높은 스위스경제 구조의 특성으로 수입수요도 감소추세임
-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 핸드폰 등은 스위스시장 내에서의 우리 메이커 시장점유 확대에도 불구하고 해외 현지 생산 및 수출 증가로 우리나라로부터의 직수출은 감소하고 있음. 반면 글로벌기업의 아시아로의 소싱 수요 증가 등에 기인하여 기계류, 자동차부품, 반도체 품목 등은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3. 시계, 금괴 등 일부품목의 선전으로 수입 증가 예상

- 스위스로부터 시계, 금괴, 귀금속 장식품 등 기존의 인기제품군의 수입 호조로 의약품, 산업기계 등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2012년 전체적으로 5% 내외의 성장이 예상됨

호조 예상 품목

- | | |
|----------------|------------------------|
| 1. 자동차부품(A/S용) | 2. 열교환기 |
| 3. 전동기 모터 | 4. 인쇄회로 |
| 5. 시계부품 | 6. 스테인리스 등 특수 가공철강류 |
| 7. 의류 | 8. 그림 및 예술품 |
| 9. 섯톱박스 | 10. 비료 |
| 11. 광섬유케이블 | 12. LED/LCD |
| 13. PCB | 14. 화장품 |
| 15. CCTV | 16. IT 전자제품 및 컴퓨터 주변기기 |
| 17. 편직물 | 18. 플라스틱 가공품 |
| 19. 태양광 모듈 | 20. 의료기기, 의약품 원재료 등 |

부진 예상 품목

1. 완제품 기계류
2. 건설장비 등(스위스가 워낙 강한 분야이며, 지리적 원거리 등에 기인한 AS 문제로 바이어가 매우 기피하는 품목)

2013년도 시장전망 요약

- 스페인 심각한 재정적자로 긴축 정책안 발표
 - 긴축안으로 경제 침체 심화 우려
 - 부가세 인상, 공무원 보너스 삭감, 실업수당 감축, 공과세 인상, 개인 의료비 부담 증가
 - 소비심리 위축 심화 예상됨
- 동 긴축안은 2014년말까지 시행할 예정으로 위축된 소비 시장 회복은 부정적 전망

호조 예상 품목

1. 절전 및 에너지 효율 제품: 전기요금 인상, 비용절감 추진
2. 의약품: 긴축재정, 약가 개인부담 상승으로 유럽산 대체 제네릭 의약품 수요 증가 예상
3. 의료기기: 긴축재정으로 정부의 유럽산 대체재 수요 증가 예상
4. 가정용 레저, 스포츠용품: 경기침체로 가정에서의 여가활동 증가
5. 중저가 기능성 화장품: 한국산 화장품에 대한 인지도 상승중(BB크림 등)
6. 음주측정기, 블랙박스, 방범필름 등 차량용 안전제품
7. AS용 자동차 부품: 수요 꾸준(시장 규모는 작음)
8. 임플란트, 치과 기자재: 경제위기로 유럽산 고가품 대체재 수요 증가
9. 배터리: 자동차용 배터리 및 2차 전지 수요 증대
10. 헬스케어 제품: 고령인구 증가로 실버시장 수요 꾸준함
11. 애니메이션: 유럽/중남미시장 겨냥 등 공동제작 수요
12. 모바일 콘텐츠: 스마트폰 이용인구 증가
13. 이러닝 콘텐츠, S/W: 경기침체, 실업증가로 직업훈련 등 수요 증가
14. 원단: FTA로 가격경쟁력 제고, 아직까지는 자국내 의류 제조기반 있음
15. 철강제품: 제3국 진출 엔지니어링 기업 조달 수요 일부 존재
16. 폴리프로필렌: 타 품목에 비해 수입감소폭이 작고 수요가 꾸준함

부진 예상 품목

1. 기계류 : 경기하강으로 설비 등 자본재 투자 위축
2. 산업용 원자재: 경기하강으로 인한 제조업 위축
3. 가전제품: 경기침체로 인한
4. 가공식품류: 한국과 다른 식문화로 바이어 발굴 애로
5. 건축자재: 부동산 위기에서 경제위기 촉발, 미분양 80만채 이상

2013년도 시장전망 요약

- 영국 정부의 초대형 IT 프로젝트의 일환인 영국 4G 주파수 관련 경매가 2013년 상반기에 있을 예정이며 2013년 내로 4G 주파수 상용화 서비스가 시행될 예정임. 이에 관련 영국 정부와 민간 기업들의 정보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와 지출이 많아 질것으로 예상됨. 또한 4G 네트워크 관련 이동통신사들이 주파수 확보를 위해 경쟁하고 있는 상태이며 확보시에는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케이블 및 관련 부품들의 수요가 높아질 것이라 예상함
- 영국 및 EU국가는 '그린 뉴딜' 정책에 천문학적인 액수를 지원할 계획을 밝혔으며 영국내의 그린사업에 관련된 대기업 및 중소기업들은 풍력 발전기, 태양전지, 스마트 그리드, LED 등 친환경 그린비즈니스 부문에 꾸준한 투자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음
- 현재 영국의 경제는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한 상태이며 영국 정부는 런던 올림픽을 경제회생의 기회로 삼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 기관 투자 및 지출이 늘어날 것이라 예상됨

호조 예상 품목

- | | |
|-------------------|---------------------------|
| 1. 태양광 부품 | 2. 자동차 부품 |
| 3. 철강 | 4. 풍력 발전기 부품 및 풍력발전 관련 부품 |
| 5. 보안 카메라 | 6. 섬유 |
| 7. 운송관련 품목 | 8. 화학제품 |
| 9. 의약품 | 10. 화장품 |
| 11. IT 제품 | 12. 문화 콘텐츠 |
| 13. 통신 장비 | 14. 컴퓨터 주변기기 |
| 15. 알루미늄 | 16. 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 |
| 17. 스마트 그리드 관련 부품 | 18. 전구류 |
| 19. 타이어(페타이어 포함) | 20. 스마트폰 관련 부품 |
| 21. 자전거 | 22. 식료품 |

부진 예상 품목

- | | |
|------------|-------------------|
| 1. 조선 품목 | 2. LCD TV |
| 3. 의류 | 4. DIY용(가정용 하드웨어) |
| 5. 건축관련 제품 | 6. 게임 |

2013년도 시장전망 요약

- 유럽 재정위기 및 이와 관련한 오스트리아 정부의 재정건전화 정책의 시행으로 2012년에는 보험 내지 소폭의 경제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한-EU FTA 발효효과의 경우에도 자동차(부품), 무선통신기기(부품)를 제외한 중소기업 FTA 수혜 품목군의 경우에는 그 수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바 한국의 對오스트리아 수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까지 크지 않은 상황임
- 따라서 유럽재정위기라는 외부적 요인과 이에 따른 내수회복 부진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

호조 예상 품목

1. LED 제품(에너지 고효율 제품)
2. 보안장비 및 보안용 기기
3. 스포츠용품(다기능/고기능 운동복, 전기스쿠터, 웰빙기기 등)
4. 의료용기기(신기술적용 중 소형 제품군) 등
5. 친환경 포장재, 폭발방지 되는 고성능 LED 전구 제품, 친환경 전자 제품, 리튬이온 배터리, 바이오닉스 기술 적용한 하이테크 신기술 제품 등

부진 예상 품목

- | | |
|------------|-----------|
| 1. 자동차용 부품 | 2. 선박용 기기 |
| 3. 화학제품군 | 4. 화장품 |
| 5. 화장품 용기 | 6. 건강식품 |
| 7. 정수기 등 | |

2013년도 시장전망 요약

- 최근 체코 재무부, 중앙은행 등은 잇달아 체코 올해 및 내년도 경제성장 전망을 하향하고 있는 상황
 - 2012년 8월 3일, 체코중앙은행(CNB)은 경제성장률을 2012년 0.0%에서 -0.9%, 2013년 1.9%에서 0.8%로 하향 전망하였음.
 - 재무부 및 OECD는 금년 경제성장률을 -0.5%로 전망한 바 있음.
 - 한편 체코중앙은행은 2014년에 체코경제가 2.5% 성장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하였음.
- 한편 최근의 경제상황 악화에 따라 건설 등 일부 산업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으며, 지나긴 침체에 빠져있는 것이 사실임
- 통계로 나타난 체코와의 교역관계는 비약적인 상승을 기록하고 있으나, 이는 현대자동차 공장의 활황으로 인한 한국으로부터의 자동차 부품 수입증가가 가장 큰 원인임
 - 즉 이는 체코의 시장상황보다는 전 유럽의 자동차 시장에 대한 현대차/기아차의 선전으로 파악되어야 하는 것으로 자동차 경기의 여부에 따라 대 체코 수출액이 크게 변화할 수 있음
- 대부분의 산업이 침체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에서도 첨단 제품으로 손꼽히는 제품들은 여전히 시장기회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반면, 기존 중국산의 저가공세가 예상되는 품목은 시장진입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호조 예상 품목

- 전반적으로 첨단 방송통신 분야, IT/HW, SW, 자동차, 에너지, 기타 등의 분야가 2013년에도 유망할 것으로 판단되며 대부분 이러한 품목들은 중국산 저가제품과 경합도가 낮은 품목임. 특히 첨단 기술분야에서 에너지절약형 산업 또는 기술/제품은 여전히 시장진입 기회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이러한 품목들은 서구의 유수 플레이어와 경쟁해야 할 것이나, 가격경쟁력이 뒷받침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는 경우가 많음
1. 레저: 레저용 장비 및 피복제품(leisure time equipment and clothing)
 2. 방송통신
 - 데이터센터 및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HW(서버 등) (datacenters + cloud computing – servers (big data – big increase of volume))
 - DVB-T2 관련 장비
 - 인터넷 장비(와이파이, 광 등)(internet connection – wifi, optical network)
 - 스마트홈(가전제품간 커뮤니케이션, 미니센서, detector)(smart houses – communication of home appliances, minisensors, detectors (PIR = passive infra red))
 3. 부품소재: 센서류
 4. 에너지
 - 에너지 스토리지 및 배터리
 - 초고압변압기(blackouts – transformers for ultra high voltage)
 - 코제너레이션(cogeneration – boilers, technology etc)
 - CNG(CNG – network development)
 - 전기차 및 관련 충전소 관련 품목
 - 스마트그리드 관련 장비/기계 등(스위치 등, smart grids – switches)

5. 자동차

- 자동차 infotainment 부품
- 자동차 telematics 관련 솔루션 또는 부품
- 자동차 engine 관련 핵심 부품

6. IT/HW

- 와이파이 LOUD SPEAKER(wi-fi loudspeakers)
- 플래시 메모리(flash memories in different devices)
- 내장 PC
- 로봇 관련 제품
- E-reader

7. SW

- 모바일 및 클라우드 관련 정보보안(IT security – mobile phones and cloud)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 NFC(모바일결제, 사진인식)
- 의료용 SW

부진 예상 품목

○ 주로 중국산과의 치열한 가격경쟁이 예상되는 품목들임

- | | |
|------------|------------|
| 1. 커피머신 | 2. 멀티탭 |
| 3. 보청기 | 4. 치과용의료기기 |
| 5. 피복(일반) | 6. 정원도구 |
| 7. LED조명 | 8. CCTV's |
| 9. Cameras | |
10. 친환경 제품으로 중국산 대비 혁신적이지 않으나 가격경쟁력이 없는 경우(Eco Coating, No Worries Herbal Tea, Eco-Friendly writing materials (recycle paper pencil) & stationery (recycle paper pencil, Eco-friendly grass))

2013년도 시장전망 요약

- 2013년 7월 EU 가입 예정에 따른 한-EU FTA 관세 혜택 품목 호조 예상. 주요 조선소 민영화 추진 탄력시 조선기자재 수요 확대-소형 선박 유 지 보수 제품 및 요트 기자재 관련 문의 급증
- 전통적 수요 품목인 IT 인기 지속.
- 자동차 부품- 현지 국산차 점유율 17%, 국산 SUV차량 및 소형차 판매 강세로 관련 부품 수요 증가 예상 EU가입에 따른 외부 경기 여건 호전시, 생활소비재 수입 증가 기대
- 관광산업 발달에 따른 시즌 상품 및 호텔 기자재 수요 증가 예상
- 관할지인 세르비아를 거점으로 제조업 설비 증가하고 있어, 관련 기계류 산업 확대 전망

호조 예상 품목

- | | |
|-----------------------------|----------------------------|
| 1. 조선기자재(밸브, 피팅, 조인트 관련 품목) | 2. 자동차 부품류(국산 자동차 판매율 호조) |
| 3. 철강 액세서리 | 4. IT 제품(IT 가전 및 S/W, H/W) |
| 5. 보안장비(카메라 및 금고, 캐비닛) | 6. 섬유(세르비아-의류제조업체 다수) |
| 7. 의료장비 | 8. 생활 소비재(아이디어 상품 제외) |

부진 예상 품목

- | | |
|-----------------|---------|
| 1. 플랜트 및 기계류 제품 | 2. 금형 |
| 3. 국산 농산물 | 4. 화학제품 |

2013년도 시장전망 요약

- 폴란드는 2012년 1분기에 3.8%의 경제 성장을 이룬 것으로 나타나, 최근 심화되고 있는 유로존 내 경제위기 가운데서도 건실한 폴란드의 경제 상황을 입증함
- 2012년 하반기에는 경제 성장이 다소 둔화될 전망이지만, 대다수의 경제 예측 기관들이 2012년 한해 다른 주요 유럽국가들의 두 배가 넘는 2% 중반대의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EU 재정 위기가 악화되지 않는다면 폴란드는 향후 몇 년간 꾸준한 경제 성장 예상
 - 유로존 경제의 악영향을 벗어날 순 없지만 내수시장의 잠재성, 금융 분야의 안정성을 비롯한 건실한 기초 경제 여건을 바탕으로 최소 2015년까지 폴란드 경제 성장률은 EU 국가 평균 경제 성장률을 상회할 전망
- 폴란드 경제성장의 주요 동력으로 꼽히고 있는 내수는 2011년 3.8% 성장에서 2012년에는 1.9%로 잠시 주춤하다가 2013년부터는 다시 3%대 중반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전문가들은 2013년부터는 기업 투자의 재활성화와 노동 시장 개선으로 인한 소비심리의 회복으로 2016년까지 연평균 3.6%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무역 또한 2012년에는 외부 수요의 감소로 인해 더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2013년부터는 기존 성장세를 회복하여 수출과 수입이 각각 연 4~5% 및 5~6%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한편, 폴란드 전체 수출에서 EU 국가들의 비중이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독일에 대한 의존도가 수출 25%, 수입 20% 이상으로 매우 높아 이들 국가에서의 경기 둔화로 수요가 감소할 경우 폴란드의 경제 성장 전반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소지도 있음

호조 예상 품목

- | | |
|------------------------------------|---------------------------|
| 1. 디지털 TV | 2. 스마트폰 |
| 3. 과속 감시 카메라 | 4. 와인 |
| 5. 신재생 에너지(태양열, 풍력에너지 관련 품목 및 시스템) | 6. 에어컨 |
| 7. 테블릿 | 8. e-book reader |
| 9. 보드게임 | 10. 산업용 제습장치 |
| 11. LED 모듈 | 12. 피부 및 미용관리 장비 |
| 13. 비만관리 장비 | 14. 자전거 완제품 및 부품 |
| 15. 소형가전(MP3 Player 등) | 16. Longboard(스케이트보드의 일종) |
| 17. 특이한 디자인의 주상용품 및 생활용품 | 18. 기타 의료기기 및 장비 |
| 19. IT 하드웨어/네트워크 관련 제품 | 20. 섬유원료(Fiber, yarn 등) |

부진 예상 품목

- | | |
|-----------------------------|-----------------|
| 1. 단순자동차부품 | 2. CCTV(경쟁치열) |
| 3. 화장품(현지생산업체 강세) | 4. 철강(가격경쟁력 약함) |
| 5. 식품(유통기간 관리 및 통관, 등록 어려움) | 6. 의약품 원료 |
| 7. 금형 | |

2013년도 시장전망 요약

1. 침체된 내수경기

- 최근 유로존 경제위기로 프랑스 경제상황은 상당히 침체되어 있음. 2012년 경제성장률은 0.3%로 예상되어 지난 2009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이후 최악의 경제성장률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됨. 2013년 전망은 올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또한 지난 6월 출범한 신 정부는 재정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긴축재정 운영, 세금인상 등의 정책을 펼치는 한편,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법정최저임금 2% 인상, 교육공무원 6000명 증원과 같은 정책은 연기할 것으로 보여 내년도 프랑스의 내수경기는 좀처럼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2. 고용악화

- 프랑스 실업률은 2012년 1분기 기준 10%를 기록하고 있으며 2011년 4분기보다 0.2% 증가하는 등 일자리가 점차 감소되는 추세. 이와 같은 고용악화는 내수 침체를 더욱 부추길 것으로 보임
- 또한 프랑스 최대의 자동차 생산업체인 PSA(푸조-시트로엥)사의 8,000명 감원계획 발표와 이에 대한 기업과 정부간의 신경전으로 전체적인 고용시장 분위기 침체현상을 보이고 있음

3. 프랑스 정부의 보호무역정책 강화

-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경상수지 적자와 더불어, 최근 한국산 자동차 점유율 증가로 인한 제재 움직임이 포착되는 등 한국산 상품의 현지 진출이 점차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음
- 다만, 일부 품목에 한해서는 저렴한 소싱 업체를 찾는 경향도 강해진다는 관측이 있으며, 이미 한-EU FTA체결함에 따라 타 국가에 비해 국내기업이 현지 진출에 유리한 조건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음

호조 예상 품목

1. IT 관련제품

- 보안기기
- LED 램프
- Home automation (domotics) 제품
- 스마트폰 액세서리

2. 한류-문화컨텐츠

- 애니메이션
- 게임

3. 일부 생활소비재

- 가공식품 (라면, 양념류 등)
- 아이디어상품

4. 산업기자재

- 전력기자재
- 신재생에너지 발전관련 제품

5. 고급 섬유제품

부진 예상 품목

1. 한방관련 제품 일체 (한방화장품, 돌침대 등)
2. 저가 이미테이션 주얼리 제품
3. 기계부품류 : 한정된 바이어로 진출 어려움
4. 정부 조달시장용 제품 일체 : 도로관리용품(아스팔트, 맨홀, 등)
5. 기타 한국문화상품 : 한복, 공예제품 등

2013년도 시장전망 요약

- 유럽중앙은행이 이자율을 0.75%까지 내린 상황에서 핀란드 소비자들의 소비심리는 놀랄 만큼 안정세를 보임. 주택대출로 갚아야 할 이자가 내려가면서 이 돈을 여타 소비에 사용하는 소비자들로 인해 1/4분기에는 작년 동기 대비 소매가 4.2%나 성장하였고, 가을 이후에도 예상을 뛰어 넘는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그러나 산업계의 신규주문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어 2012년 4~6월 사이 소매 분야에서만 8,000명의 감원이 있었고, 2013년이 되어도 나아질 가능성은 매우 희박
- 그러므로 최대의 소비철인 연말 크리스마스 시즌을 지난 후 2013년부터는 소비심리가 가라앉을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여타 유럽국가들에 비하면 그 하락세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됨

호조 예상 품목

-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각종 세금인상안을 내놓고 있는데, 그 중 특히 전기, 연료 등에 대한 세금을 큰 폭으로 올리고 있어 에너지 절약형 상품에 대한 소비가 급성장하고 있음
- 에너지 절약형 가전, 난방 제품, 건축 자재 등에 대한 꾸준한 인기가 예상됨

부진 예상 품목

- 노키아가 회복 가능성이 불투명할 정도로 추락을 하고 있는 가운데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강세를 보이던 모바일 부품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음
- 또한, 기계산업의 신규 주문이 감소하고 있어 기계 부품에 대한 수요도 부진을 면치 못 할 것으로 예상됨

2013년도 시장전망 요약

- 2009년 경제 위기 이후 수출산업(제조, 전자 위주)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반면 내수경기는 침체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음
 - 2012년 GDP 성장률에 대해 주요기관들은 1% 내외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음(헝가리 정부만이 0.5% 수준 성장 기대)
- 2013년에는 경기가 회복세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
 - 2012년 부진으로 인한 기저효과가 작용하여 2013년에는 플러스 성장세 전환 전망
 - 현지 설문기관 조사에 따르면, 현지업체들은 2013년도에 4% 수준의 매출 신장을 기대하고 있음(순이익 2% 수준 증가 기대)
 - 지지부진했던 IMF/EU자금 지원에 대한 협상이 2012년 10월 경 마무리 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이에 따른 헝가리 경제신뢰도 상향 전망
 - 2013년 치러질 대선을 통한 특수 기대
 - 자동차 산업 위주 헝가리 경제의 기동역할을 하는 수출용 제조산업의 지속적인 활약 기대

호조 예상 품목

1. LED 관련 전반 : 관련 수요 지속, 가격 경쟁력 확보 시 진입 가능
 - LED 전구류, 모듈류, 사인보드류
2. 치과 임플란트 : 세계 최고 치과의료관광유치국
3. 보안장비 : 도어락 류 제외
 - CCTV 관련 수요 지속
 - 디지털 보안시스템, 단 네트워크 보안S/W는 검토 필요
 - VIP 개인보안장비 : 정부조달차원 수요, 전자봉 등 무기류 제외
4. 자동차부품 : 1차 벤더 대상 일부 품목 호조 - 중견기업 적합, A/S 시장은 작은 편
 - 콤프레셔, 센서 등
 - 차량시트, 차량릴, 렉바 등 현지수요가 적은 분야는 제외
5. 의료분야 : 단순 소모품 제외(글러브, 용기 등)
 - 의료용 카메라
 - 진단기
 - 시약 검사기 등
6. 기타의료/건강제품 : 아직 초기단계라 시장은 크지 않지만 증가 기대
 - 지압, 혈액순환, 마사지, 원적외선 등 제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추세
 - * 건강기구로 갈지 의료용품으로 갈지 진입전략 신중히 검토 필요, 후자의 경우 CE 포함 인증 및 연구자료가 필요함
7. 산업용 안전장비 : 특수장갑 등 긍정적, 일반제품은 저가 경쟁 대처 어려움
8. 기계, 장비
 - PVC 포장류 교체 수요
 - gas, chemical 산업 프로젝트용 밸브류
 - 차단기 등

부진 예상 품목

1. 코스메틱류
 - 화장품, 화장용품, 미용용품 관련 진입 매우 어려움. 무명 화장품 사용을 꺼리며 소모품의 경우 저가 선호. 시장 자체도 규모가 작아 소량/저가로 우리업체가 대처하기 어려움
2. 식품류 및 주방용품/ 가구류/ 의류 및 액세서리, 패션류/생활용품 전반
 - 낮은 브랜드/국가 인지도, 또는 불리한 가격경쟁력으로 인한 높은 진입장벽
 - 문화적 특이점을 활용한 제품의 경우(홍삼, 흑마늘, 김, 김치/튀김기, 국수제조기 등)는 아직 시장이 형성 안됨
3. 유아/아동용 제품
 - 해당 품목은 아이의 안전/건강을 고려하여 매우 뛰어난 인지도가 필요하므로 진입장벽이 매우 높음 분야임. 또한 출산율 저하 등 구조적 요인도 불리하게 작용함
4. 광산업 관련 전반 : 해당 산업 부재
5. 해양/선박산업 전반 : 해당 산업 부재

C I S

러시아 - 모스크바무역관

러시아 - 블라디보스톡무역관

러시아 - 노보시비르스크무역관

러시아 - 상트페테르부르크무역관

아제르바이잔 - 바쿠무역관

우크라이나 - 키예프무역관

카자흐스탄 - 알마티무역관

우즈베키스탄 - 타슈켄트무역관



2013년도 시장전망 요약

1. 주요 경제 지표 추이 및 전망

가. 경제성장률

- 고유가, 외국인투자 증가로 견실한 성장세 지속
 - 세계 경제위기로 인한 2009년의 경기 침체를 제외하고 2000년대 이후부터 4~7%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음
 - '04년 7.1%, '05년 6.4%, '06년 6.7%, '07년 8.1%, '08년 5.6%, '09년 -7.9%, 10년 4.0%, '11년 4.3%
- 러시아는 에너지자원 의존 경제구조로 급격한 경기 침체로 유가가 폭락이 없는 한 경제성장은 지속 예상됨

나. 인플레이션

- 러시아의 물가는 2006년까지 두자릿수 이상의 상승률을 보일 정도로 물가 상승률은 매우 가파름. 2009년부터 한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으나 여전히 물가 상승률은 매우 높아 최근 러 정부는 물가안정 대책을 세워 인플레이션을 낮추고자 노력중임

다. 대외무역(수출입동향)

- WTA(World Trade Atlas) 통계에 의하면, 2011년 러시아의 무역수지는 990억 달러의 흑자를 달성
 - 전년대비 수출은 8.65% 증가(301억 달러), 수입은 31.81%(672억 달러) 증가
 - * 동 수치는 러시아 관세청 자료를 기준으로 한 WTA 자료로, 위 2) 주요 경제 지표 및 추이 상의 DATA와 차이 있음
- 2011년 러시아의 주요 수출국은 네덜란드, 우크라이나, 중국, 터키, 이태리 순이며 한국은 13위를 기록
- 한편, 수입국의 경우 중국, 독일, 우크라이나, 일본, 미국 순이며 한국은 8위를 기록
 -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는 중국으로부터의 공산품 수입, 독일, 일본으로부터는 자동차, 정밀기계, 산업용 장비 등이 많았음
- 2012년 올해에도 고유가 및 산업 발전으로 수출입 모두 증가 예상

2. 주요경제이슈

가. 에너지자원 의존형 경제

- 러시아 경제구조의 가장 큰 특징은 에너지자원 의존형 경제로 GDP에서 석유, 가스 등 에너지자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0%이며 총 수출에서도 차지하는 비중은 65~68%를 차지하고 있음

나. 수입 중심의 소비구조

- 국내시장의 40% 이상을 수입품이 점유
 - 일부 산업을 제외한 자국 제조업 경쟁력의 낙후, 고유가로 인한 수출 증가와 4%대의 견실한 경제성장률로 인한 실질임금 증가. 그리고 중산층의 인구 확대 등으로 외국산 제품에 대한 소비 증가에 기인함
- 한편, 러시아 정부는 경제현대화 정책을 수립하여 자국 제조업의 육성과 자국제품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음. 최근 WTO 가입 역시도 자국산업 효율화 및 투자 유치를 통한 경제 체질을 변화시키기 위한 목적

다. 중소기업 경쟁력 상실

- 러시아 중소기업(SMEs)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년 기준 약 10~13%로 조사되고 있는데, 서구 선진국 50%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임
 - 통계에 따르면 러시아내 중소기업의 수는 2010년 9월말 현재 22만개 수준(전년대비 약 3.6%가 감소한 수치)
- 현재 러시아에서 중소기업 활성화 부재의 원인은 사업자 등록상의 어려움과 과도한 세금 부과, 자금조달의 어려움 등 높은 진입장벽에 기인함

3. 시장환경 및 특성

가. 수입시장구조

○ 매력적인수입시장

- 체제전환 이후 자체 제조업 기반 붕괴로 소비재의 40% 이상을 수입산으로 충당
- 경제위기 이전까지는 7년 연속의 성장호조로 내수증가
- 수입대체산업 육성정책으로 기계설비, 플랜트 등 자본재 수요증가

○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기

- 시장경제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인프라 미흡
 - WTO 가입추진에 따라 시장경제 중심의 개혁진행 中
- 복잡한 법체계 및 법령의 대폭적인 개혁 추진(단, 제도화와 집행간의 차이 존재)
- 운송, 통신, 금융 등 주요 기간 서비스 미비

나. 소비자특성

○ 소비의 이중구조

- 소수의 부유층(인구의 10% 수준)과 다수의 빈곤층(40% 수준)
- 부유층은 고가의 서구 최고급 브랜드 선호, 빈곤층은 자국산 및 저가의 수입제품 구매
- 그러나 2001년 이후 소위 '중산층'계층이 형성되고 있고 이들이 소비 주체로 떠오르고 있으며, 최근 경제호황세에 따라 점차 중산층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임

○ 구매결정 요인

- 최종소비자는 가격요인 중시에서 브랜드를 중시하는 추세로 급격히 변하고 있으나, 바이어는 기본적으로 품질보다 가격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강한 편임

호조 예상 품목

1. 산업용 제품생산 완성장비, 생산라인 등
2. 각종 건축기자재 용접기 등: 고가유럽제품 대비 품질 및 가격 경쟁력 보유
3. 첨단 의료기기(단, 인증 취득 기간 상당 소요): Xray, MRI, 골밀도측정기 등
4. 치과기자재
5. AS 자동차부품
6. 밸브류(러시아 산업발달과 인프라 개발 수요가 증가추세로 밸브 수요 점증)
7. 냉동기구(차량용 냉동탑 등): 에너지 효율 관련 및 저온저장고와 같은 첨단기술을 통한 제품으로 유럽업체와의 경쟁에서 기존의 시장지배력 확대가능
8. 폴리에스터 섬유- 의류용은 대폭감소 대비 산업용,가정용의 수입 비중 증가
9. 의약품 원료, 화학원료제품
10. 첨단IT제품(보안장비 등)
11. LED조명 제품

부진 예상 품목

1. 일반 소비재(각종의류, 일반화장품, 액세서리, 생활용품, 문구류 등)
2. 자동차 및 각종 장비의 OEM부품(일회성 사절단을 통한 상담주선 가능성 매우 저조)
3. 일반편직물: 중국-터키산과의 치열한 경쟁으로 가격경쟁력이 최대 관건, 또한 최근 수입비중 대폭 감소

2013년도 시장전망 요약

- 블라디보스톡을 중심으로 한 극동러시아 지역은 제조업이 취약하고, 수산업/농업/무역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경제구조임
- 수산업의 경우, 현지에서 어획한 수산물을 거의 전량 일본/한국/중국 등의 시장으로 수출하고 있음. 최근 수산물 임시저장을 위한 냉동창고건설 수요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어, 창고 건설자재 및 냉동기기에 대한 수입수요가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 농업의 경우, 대부분의 작물을 자체적으로 재배할 수 있으나,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저가의 중국산 농산물이 강점을 보유하고 있어, 중국산 농산물 수입이 크게 이루어지고 있음. 한국산 농산물은 일부 수입기업이 있으나, 우선 가격면에서 중국산에 비해 10배 이상 고가인 관계로 시장이 크게 형성되고 있지는 않음
- 2013년도에 가장 주목할 만한 시장은 건설 중장비와 자동차 관련 품목임
- 2013년부터 블라디보스톡 LNG 플랜트 건설이 시작될 예정이며, 석유화학단지 건설도 추진될 예정임. 따라서 2013년 이후 향후 수년간 건설중장비(특히 크레인) 수요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됨. 아울러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중장비 부품교체 수요도 높을 것으로 전망되어 건설중장비 수출 및 부품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보임
- 2011년도에 극동러시아 지역으로 약 3만대 가량의 한국산 중고자동차(상용차/승용차)가 수입되었으며, 승용차 수입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당장에는 자동차 부품수요가 높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자동차 부품보다 튜닝용 자동차 액세서리 수요가 클 것으로 보임

호조 예상 품목

- | | |
|------------------------------------|---------------------------|
| 1. 중고자동차(승용차 위주) | 2. 냉동/냉장탑(봉고트럭 탑재용 탑) |
| 3. 자동차 액세서리 | 4. 자동차 부품(소모성 부품 위주) |
| 5. 건설 중장비(중고 포함) | 6. 건설 중장비 부품 |
| 7. 도로건설용 장비 | 8. 도로용 장비(주차차단봉 등) |
| 9. 계측기(플랜트용 온도조절계 등) | 10. 플랜트용 각종 설비(매직그레이팅 등) |
| 11. 중고 의료기기 및 의료용품 | 12. 가공식품 |
| 13. 팬시용품(일반 문구류보다 포장지, 비닐백 등 팬시용품) | |
| 14. 아동용 의류 및 잡화 | 15. 각종 생활용품(세제, 생활편의용품 등) |

부진 예상 품목

1. 샌드위치 패널(경쟁포화 상태, 중국기업뿐 아니라 한국기업 다수 진출)
2. 단열재 등의 건설자재(경쟁포화 상태)
3. LED 조명(경쟁포화 상태)
4. 농산물, 화훼류 등(시장성 취약 품목)
5. 특장차(과거에 비해 수요가 줄어들고 있어 시장성 취약)

2013년도 시장전망 요약

- 러시아 경제는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한 유럽 러시아지역, 노보시비르스크를 중심으로 한 시베리아 지역, 블라디보스톡을 중심으로 한 극동 러시아지역으로 구분됨. 2000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시베리아 지역은 단순히 모스크바나 블라디보스톡의 딜러로 부터 제품을 구매 · 판매하는 수준에 머물렀으나, 2000년대 중반부터 직수입 형태의 거래를 시작하기 시작하였음. 특히 노보시비르스크 지역은 지리적으로 중국과 가까운 관계로 일부 제품의 경우 물류비 감안시 한국산 제품이 경쟁력이 높지 않은 상황임
- 노보시비르스크는 자원, 대형기업 등이 위치하고 있지는 않으나, 시베리아를 총괄하는 러 정부 전권대표가 주재하고 있는 곳이며, TSR(시베리아 횡단 철도)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물류 중심지로 각광을 받고 있음. 최근에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앙아시아, 몽골시장 등을 겨냥한 투자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 노보시비르스크를 중심으로 한 시베리아 경제는 2008년 경제위기 극복 이후 견실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2011년 노보시비르스크 GRP(Gross Regional Product)는 전년대비 5.2% 증가한 5,579억 루블(약 179억 달러)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음
- 시베리아 전체적으로는 건설경기가 호황을 보이고 있고 현지 공장의 설비 현대화와 관련된 기계류도 수요가 많아지고 있음. 2012년 1-5월간 무역액은 968.4백만 달러를 보였으며 이 중 수출은 457.1백만 달러, 수입은 511.3백만 달러를 기록하였음. 또한 2011년 금융분야를 제외한 외국인의 대 시베리아 투자는 49억 달러를 기록하여 외국인투자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호조 예상 품목

1. Raw materials for plastics manufacturing: LDPE, HDPE, LLDPE and ABS
2. Car parts, car accessories
3. Electric tools (drills, cutting, saw)
4. Transformers
5. Power generators: diesel, gaz
6. Construction equipment: concrete pump
7. Industrial motors
8. Equipment for manufacturing, supply & distribution of energy, smart energy systems
9. Special equipment: heavy equipment, lights equipment
10. Home chemistry, detergents
11. Repair & decoration products: new & modern materials only
12. Heating cables, warm floor
13. PE pipes
14. Air condition: lines & full set of equipment (not just parts or separate parts)
15. Heating supply systems & equipment: lines & full set of equipment (not just parts or separate parts)
16. Medical equipment: Ultrasound equipment (modern models), surgery equipment, dental equipment & materials, medical consumable materials
17. Fire alarm systems: new developments & new modern systems
18. Fire prevention materials
19. Road construction equipment
20. Boiler equipment
21. Car chemical & care products
22. Dishes, food containers, bento
23. Refrigerating & cooling equipment
24. Heat insulation materials
25. Tires, wheels disks for passenger cars, trucks, special equipment

부진 예상 품목

1. Cosmetics
2. Simple security equipment, simple CCTVs
3. Chemical raw materials
4. Any kind of clothes, footwear, hats, gloves and so on
5. LED lamps (like table lamps) or companies with small product range
6. Golf products
7. PC, laptops, parts, accessories
8. Mobile phones, parts, accessories
9. IT decisions, IT developments
10. Products, equipment any products for microelectronics, home appliances

2013년도 시장전망 요약

- 러시아의 2012.8월 WTO 가입 예정에 따라 러시아가 시장경제로의 전환 및 글로벌 스탠더드로의 진입이 가속화될 전망
 - 이는 러시아 시장에 대한 외국기업간 경쟁심화로 이어질 전망
- 러시아는 국제원유가의 등락에 따라 경제가 좌우되는 상황으로 수입시장도 국제원유가 80불 이하로 하락될 경우 위축될 것으로 보임
- 건축자재, IT, 의료, 자동차 및 부품, 식품, 기계류 분야의 경우 수입수요가 꾸준할 것으로 전망됨
- 러시아 북서지구는 인구 규모대비 한국의 시장개척이 미진한 지역으로 신규시장 개척이 필요한 지역임
- 러시아 중산층의 확대와 고급 소비재에 대한 선호도 증가 추세가 이어져 수입시장은 지속 증가할 전망임

호조 예상 품목

- | | |
|--------------------------------------|-----------------------------|
| 1. 자동차 부품(중고 부품 포함) | 2. 핸드폰 액세서리 |
| 3. 산업용 원단류(타포린 등) | |
| 4. 의료기기(러시아 인증 보유시, 다양한 제품 보유 업체 선호) | |
| 5. 의료용 소모품(치과용 소모품) | 6. 발전기류(디젤, 가스) |
| 7. 자동차 정비기기 | 8. 드라이클리닝 기기 |
| 9. 전력 수도 계량기 | 10. LED 제품 |
| 11. 의약품 | 12. 가공식품(된장, 고추장 등 전통식품 제외) |

부진 예상 품목

- | | |
|----------------------|---------|
| 1. 휴대폰 부품 | 2. 보안기기 |
| 3. 한국전통식품(된장, 고추장 등) | 4. 건축자재 |

2013년도 시장전망 요약

1. GDP(현황과 전망)

- 월트뱅크, 2012년 GDP 성장률을 3.1%로 하향 전망('12.6.24)
- '12년도 GDP 성장률을 종전 6.1%('11년말 전망)에서 3.1%로 하향 전망. 요인은 원유 가격 하락 및 오일 산업 정체
- 2013년은 3.5%, 2014년은 4.5% 전망

2. 아제르바이잔 수입 및 우리의 수출동향

- 2012년 상반기 수입은 \$44.6억불(3.14% 증가)
- 같은 기간 한국의 대아제르바이잔 수출은 1.48억불로 전년동기비 50.3% 증가

3. 기타 환율 등 주요 거시경제 지표

- '12년 상반기중 재정 수입은 8,134백만 마나트(GDP의 31.5%), 재정 지출은 7,109백만 마나트(GDP의 27.5%)
- 같은 기간 상반기 에너지 생산량은 원유 22.16백만톤(6.8% 감소), 가스 8,84bcm(billion cubic meters, 8.2% 증가)
- OPEC에서는 2013년 아제르바이잔 원유 생산량을 0.96백만배럴/일(2012년 0.97백만배럴/일)로 안정적인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
- 대달러 환율은 최근 수년간 변동이 없이 유지되고 있음(고정환율제)

호조 예상 품목

1. 의료기기

- 진단용 의료 장비 및 관련 소모품
- 초음파 검사 장비, ECG(심전계), 엑스레이 및 유사 진단 장비
- 치과 의자, 치과 장비
- 수술 장비, 인공호흡 장비
- 의료 소모품(test glass, 카테테르, 붕대 등)
- * 최근 수년간 아제르바이잔에서는 치과 및 특수수술(예 : 레이저 눈수술) 전문 클리닉이 증가 추세

2. 전기설비/장비

- 배선관련 품목
- 스위치, 스위치 보드
- 조명
- * 아제르바이잔은 최근 수년간 건축이 활발한 편으로 전기 설비 등 건축관련 품목 수요가 많음. 또한 중소 산업시설 건설도 활발하여 전기관련설비 수요 증가

3. 농산물 및 식품 가공기계

- | | |
|--------------------|------------|
| ○ 육류 및 생선 가공 시설 | ○ 온실설비 |
| ○ 점적관수 시스템 | ○ 통조림 제조설비 |
| ○ 제빵 장비 | ○ 낙농업 장비 |
| ○ 식물성 동물성 기름 생산 설비 | ○ 제과 설비 |
| ○ bottling 설비 | ○ 포장/패킹 설비 |
| ○ 냉장 장비 | ○ 슈퍼마켓 장비 |
| ○ 저온 저장 장비 | |
- * 농업은 석유가스를 제외하면 아제르바이잔의 중심산업임. 아제르바이잔은 농업 및 농업관련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따라 농업의 성장이 빠르며 농업관련 설비의 수요도 많음

아제르바이잔 - 바쿠무역관

4. 건축자재

- Sanitary ware(변기 등)
- 창호
- 마루
- 건축 공구
- 실내 장식용품(벽지 등)
- 타일, 건축용 stone
- 페인트

5. 가구

- 부엌용, 거실/침실용 가구
- 사무용 가구

6. 컴퓨터 부품/부속품

- 데스크톱 및 노트북 PC
- 하드드라이브
- 모니터
- 관련 부품 및 부속품

7. 가전기기

- 식기 세척기
- 진공 청소기
- 냉장고
- 피복 세탁기
- 오븐

부진 예상 품목

1. 부품 및 소재류

2. 자본재

2013년도 시장전망 요약

- 우크라이나 경제는 다소 침체가 예상되나 우리의 주종수출품목은 호조 전망
 - 대형이벤트 종료에 따른 건설경기 위축, 민간소비 둔화로 경제성장률 둔화, 금년 GDP 성장률 2.5%에 그칠 전망
 - 그러나 소득양극화 및 지하경제 규모가 커 고급품에 대한 민간수요는 지속
 - 우리의 주종수출품목인 승용차, 자동차부품, 철도차량의 대폭증가로 전년대비 약 30% 증가 예상
- 한국산 자동차, 전자제품의 평판이 좋아 기술, 품질이 요구되는 제품이라면 시장진출 가능성이 높음
 - 반면 품질이 다소 좋더라도 가격경쟁력이 우선시되는 품목의 경우, 낮은 소득수준으로 인해 중국산, 터키산 등과 경쟁이 어려운 실정임.

호조 예상 품목

- | | |
|----------------|--------------|
| 1. 치과장비 | 2. 자동차 부품 |
| 3. 자동차용 필터 | 4. 타이어 |
| 5. 자동차용 배터리 | 6. 엘리베이터 |
| 7. 의약품(원료) | 8. 동물약품 |
| 9. 스마트폰 | 10. POS(포스) |
| 11. 화장품 | 12. 벽지 |
| 13. 제약기계장비 | 14. 의약품(항생제) |
| 15. 바이오 의약품 | 16. 냉동기기 |
| 17. 종이제품 | 18. 마사지기 |
| 19. 의약품(간염치료제) | 20. 가정용 전자제품 |

부진 예상 품목

- | | |
|-------------|----------|
| 1. 손목시계 | 2. 소프트웨어 |
| 3. 골프 시뮬레이션 | 4. 자전거 |
| 5. 건축재료 | 6. 의류 |
| 7. 원단 | 8. 가스계량기 |
| 9. 정온전선 | 10. 호스 |

2013년도 시장전망 요약

- 카자흐스탄 경제 전망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룰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금융위기이후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점진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그러나 국제유가가 크게 하락할 경우 국가 경제의 근간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는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음
- 한국에서 진출할 때에는 카자흐스탄의 넓은 영토를 볼 것이 아니라, 적은 인구(16백만)라는 특성을 감안해야함. 대부분 바이어들이 영세한 수준이기 때문에, 소량 다품종 구매 특징을 보이고 있음
- 자국의 제조업 기반이 없기 때문에, 각종 설비 혹은 기계용 부품 등은 전망이 어두운 편이며, 일반 완제품, 기본적인 보건관련제품 등 범용 제품을 중심으로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바람직함
- 러시아의 WTO 가입이후 카자흐스탄의 WTO 가입도 논의중이지만, 큰 영향은 있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호조 예상 품목

- | | |
|----------------------------|--------------------------------|
| 1. PE and PVC raw material | 2. heating equipment |
| 3. innovative electronics | 4. security systems |
| 5. packing machines | 6. Digital locks for doors |
| 7. contact lenses | 8. interactive equipment |
| 9. Fiber Optic Components | 10. alternative energy sources |
| 11. printing equipment | 12. Set Top Box |
| 13. Baby products | 14. Baby shoes |
| 15. Baby clothes | 16. Solar panels |
| 17. Multimedia mini PC | 18. Glasses |
| 19. energy-saving products | |

부진 예상 품목

- | | |
|---------------------------------------|--|
| 1. Automobile spare parts (all kinds) | 2. gear boxes |
| 3. equipment for thermal power plants | 4. furniture |
| 5. paper production | 6. Pharmaceutical products (excepting oncological) |
| 7. dental handpieces | 8. special technical equipments |
| 9. fire doors | 10. Ginseng tea |

우즈베키스탄 - 타슈켄트무역관

2013년도 시장전망 요약

- 2013년 우즈베키스탄 경제는 전반적으로 금년과 비슷한 약 8%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정부 주도 하에 행해지고 있는 2011-2015 산업 현대화 및 인프라 개발 계획이 금년에 이어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외 자본 투자유치, 해외기업직접투자 등도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 교역분야에서도 우즈베크의 최대 교역국인 러시아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룰 것으로 보임에 따라 우즈베크의 역시 안정적 수출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해외 근로자의 송금 증대뿐 아니라 면화, 자동차 등 우즈베크의 주요 수출품의 경쟁력 확보가 우즈베크 경제 성장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금융위기 이후 우즈베크의 주요 수출 품목인 면화, 석유, 가스 등의 원자재 가격은 큰 폭으로 떨어졌으나 2013년에도 2005-2009년보다는 높은 가격이 유지될 것임
- 고 인플레이션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EU는 우즈베크 정부의 수출촉진정책에 따라 현재 1불당 1,785숨에 달하는 공식 환율이 2013년 말에는 약 2,012숨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 2013년 우즈베키스탄의 독립국가연합 관세동맹에의 가입이 논의되고 있는 실정임
- 하지만 해외 송금 문제 및 기타 원활하지 못한 금융 체제는 여전히 해외 투자자들이 가지게 될 가장 큰 리스크로 작용하게 될 것임

호조 예상 품목

- | | |
|--|--|
| 1. Medical equipments | 2. Pharmaceuticals |
| 3. PE, PVC and other plastic raw materials | 4. Automotive spare parts |
| 5. Tires | 6. Automotive batteries |
| 7. Engine oil | 8. Dental tools and materials |
| 9. CNG cylinders | 10. Textile machineries |
| 11. Galvanized steel roll sheets | 12. Diesel generators |
| 13. Various construction and road building equipments | |
| 14. Office equipments (PC, monitors, printing equipments, servers and accessories) | |
| 15. Synthetic textile fabrics | 16. Various steel products |
| 17. Alternative energy sources | 18. Air conditioning and ventilation systems |
| 19. Heating equipments | 20. Veterinary medicine |

부진 예상 품목

- | | |
|-----------------------|-------------------------|
| 1. Seafood | 2. Furniture |
| 3. Plastic pipes | 4. Ginseng tea |
| 5. Cable products | 6. Frozen food products |
| 7. Hydraulic breakers | 8. Cosmetics |
| 9. Wristwatches | 10. Clothes |

중 동

UAE - 두바이무역관
사우디아라비아 - 리야드무역관
모로코 - 카사블랑카무역관
알제리 - 알제무역관
오만 - 무스카트무역관
요르단 - 암만무역관
터키 - 이스탄불무역관
이스라엘 - 텔아비브무역관
이집트 - 카이로무역관
쿠웨이트 - 쿠웨이트무역관



2013년도 시장전망 요약

1. 긍정적 요인

- 정부의 산업다각화정책으로 인한 비석유부문의 지속적인 성장 및 정부주도의 대규모 투자계획 확대로 내수소비는 더욱 증가할 전망
- 관광객 증가에 따른 소비시장 확대
- 건설프로젝트 재개로 건설 중장비와 건설자재 등 건설관련 분야의 지속적인 성장 전망
- 소비수요 확대로 자동차, 휴대폰 및 TV 등 수출호조 예상
- 중동지역으로의 중계무역 증가로 UAE내 무역활성화 전망

2. 부정적 요인

- 석유부문 성장세 둔화로 인해 GDP 증가율이 감소 전망
- 자국산업 우대 분위기 확대. 특히 건설 분야의 경우 외국기업의 자국업체 또는 현지법인 업체의 참여를 적극 유도
- 유로화 약세에 따라 유럽업체의 경쟁력 상승 → 현지진출 확대

호조 예상 품목

- | | |
|-------------------|------------------------|
| 1. 전력기자재(열교환기 등) | 2. 건설/플랜트기자재(펌프, 밸브 등) |
| 3. 보안장비(CCTV 등) | 4. 의료기기 |
| 5. 자동차부품 | 6. 건설중장비 |
| 7. IT제품(POS 장비 등) | 8. 철강류 |
| 9. LED | |

부진 예상 품목

- | | |
|----------------------------------|---------------------|
| 1. 섬유류, 선박류, 보석류, 액세서리 | 2. 단순 소비재 제품, 식음료 등 |
| 3. (중국산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없는) 저부가가치 공산품 | 4. 건설기자재 중 단순 부품류 |

2013년도 시장전망 요약

- 세계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2012년 사우디 경기는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음. 이는 다년간 지속된 고유가로 인해 국가 재정이 풍부한 상황에서 사우디 정부의 적극적 투자 정책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됨
- 2012년 유가가 다소 하락한 상황이나, 사우디 입장에서는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2013년에도 현재 유가 정도를 유지할 경우 사우디 경기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됨
- 사우디 경제의 중심은 국가 주도의 프로젝트이며, 현재 건설 인프라, 전력, 담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중인 각종 프로젝트가 큰 어려움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013년 계획된 프로젝트도 정상 진행이 예상되어 사우디 경기는 안정을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기업들의 대사우디 수출도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호조 예상 품목

- | | |
|----------------------|------------------|
| 1. 건설기자재 | 2. 중소형 건설장비 |
| 3. 대형 건설장비 | 4. 플랜트기자재 |
| 5. 소형 플랜트 설비(석유화학분야) | 6. 보안기기 |
| 7. 소방관련 기기 | 8. 발전기자재 |
| 9. 송·배전 기자재 | 10. 통신장비 |
| 11. 통신기기 부품 | 12. 자동차 부품 |
| 13. 의료기기 | 14. 의료용 소모품 생산설비 |
| 15. 의료 IT 소프트웨어 | 16. 의약품 |
| 17. 플라스틱 성형 기계 | 18. 플라스틱 성형틀 |
| 19. 섬유류 | 20. 미용기기 |

부진 예상 품목

- | | |
|-----------|-------------|
| 1. 식품류 | 2. 플라스틱 가공품 |
| 3. 의류 | 4. 생활소비재 |
| 5. 소형전자기기 | |

2013년도 시장전망 요약

1. 무역적자 증가로 거래다각화 추진

- 유럽발 재정위기에 따른 모로코 수출 감소
 - EU와의 교역량(프랑스 20.3%, 스페인 18.1%)이 수출의 60%를 차지하는 만큼 재정 위기와 밀접하게 연관
 - 유럽기업들의 투자 및 진출이 주춤한 상황인 반면, 모로코 정부는 공공사업 및 기업 활동을 최대한 독려하여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을 총력을 기울임

2. 소득증가에 따른 보건·위생·보안 제품 수요증가

- 고소득 계층을 중심으로 개인 건강과 위생에 대한 관심 증가
 - 선진국형 고부가 의료 및 보건 제품 수요 증가
- 첨단 IT기술을 접목한 주택, 사무, 교통 보안장비의 도입 대두

3. 전략산업분야 부품, 소재, 장비 수요증가

- 정부의 제조업 집중 육성전략에 따라 섬유, 농수산물가공, 전자, 건설 등 분야의 소요되는 부품, 소재와 기계 장비의 수요 증대
 - 가격, 품질경쟁력을 보유한 우리제품의 진출 가능성 타진

호조 예상 품목

1. 보안기기: 보안관련 장비 및 시스템
2. 전기/전자: 전기/전자제품 전반, IT제품(품목에 따라 시장성 상이)
3. 전력기자재: 발전 및 송전기, 담수화 관련 품목
4. 건축중장비
5. 기계류: 섬유기계, 디지털 직조기계, 식품 포장기계, 플라스틱 사출기계 등
6. 농업관련 기자재
 - 농업 관련 소규모 장비 및 공구
 - 거대 경작지 장비 관련 수입 : 트랙터, 수확기
 - 고도 기술 제품 : 자동경작기, 수확기, 탈곡기
7. 산업용 벨트 및 컨베이어
8. 화학 원료: Dioctyl phthalate, Acetone 및 기타 화학/석유 관련제품
9. 금속 방적사
10. 자동차부품: OEM 부품

부진 예상 품목

- | | |
|---------------|------------|
| 1. 군사관련 제품 | 2. 섬유 제품 |
| 3. 포장식품 | 4. 종묘 및 종자 |
| 5. 생활 플라스틱 제품 | |

2013년도 시장전망 요약

1. 알제리 정부, 고유가를 등에 업고 민생 안정에 지속 관심 경주

- 고유가에 기인한 경제 안정세 : 알제리는 2013년부터 향후 2016년까지 평균 5%의 경제 성장률(실질 GDP 성장률 기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 이는 고유가기조에 따른 석유 수익 증가에 기인
- * 2012년의 경우는 2.6%의 경제성장률을 보이나, 이는 주요 정유공장의 보수를 위한 가동 중단으로 기인한 것이며, 2013년부터 다시 정상 가동 예정

2. 높아져가는 물가에 대한 고민

- 2011년 중동 민주화 사태의 촉발 원인이 주요 식료품 가격의 급격한 인상이었던 것을 감안, 민생 안정을 위해 밀가루, 우유, 식용유, 설탕 구매시 정부 차원의 보조금 지출 지속
-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8.5%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알제리의 최대 수입품목인 밀가루 수입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는 등 주요 식료품의 가격이 폭등한 것에 기인, 정부의 물가 안정에 대한 고민이 깊어져가고 있음

3. 정부의 민생 챙기기로 인한 소비 심리 확대 기대

- 2011년 들어 공무원 임금인상(34%)을 비롯하여 경찰, 의사, 교사 등 사회 각계각층의 급여 인상 요구가 적극적으로 표출되면서 정부가 거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는 상황이며
- 2011년 물가상승률이 4.5%였던 것에 반해 2012년의 경우 8.5%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전년대비 높은 수치를 보임에 따라 추가적인 임금 인상 요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올 여지가 있음
- 정치적 소요사태로의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임금 지출 확대로 소비 여력이 늘어난 가계의 지출 또한 늘어날 것으로 예상
- 2012년에 주 40시간 근로자의 최저 임금이 15,000 디나르에서 18,000디나르로(US\$ 약 204에서 244로) 인상되었음

호조 예상 품목

- | | |
|-------------------|-----------|
| 1. 자동차 부품 | 2. 건설 중장비 |
| 3. 중장비 부품 | 4. 도어락 |
| 5. 의료장비 | 6. 의약품 원료 |
| 7. CCTV | 8. 선박 부품 |
| 9. 건설 자재 | 10. 공구 |
| 11. PET 등의 합성수지 등 | |

부진 예상 품목

- | | |
|--------------|------------------|
| 1. 가공 식품 | 2. 중고차 |
| 3. 중고 자동차 부품 | 4. 일부 보안 및 방산 제품 |
| 5. 화학 비료 등 | |

2013년도 시장전망 요약

1. 최저임금 인상, 실업수당 지급 등으로 한국수출기업에 호기

- 정부가 오만인에 대한 최저임금을 2011년부터 기존 U\$364에서 U\$520으로 42% 인상하였고, 이후 신규 일자리 5만개 창출(예산 U\$26억 투입), 구직자에 대한 실업수당(매월 U\$390) 지급, 연금인상 등의 경기부양책이 발표되고 있어, 한국 수출기업들에게 호재가 되고 있음(2012년 8월 현재에도 오만 자문평의회(하원)에서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추가인상을 검토중)

2. 대 오만수출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 및 건설자재/장비시장 현황예상

- 2012년 1-6월까지 한국의 대 오만수출 중 자동차와 건설자재/장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59%, 35%에 달함
 - 자동차의 경우 젊은이들(오만 인구의 중간값은 17세~19세로 매우 젊은 국가에 해당)의 자동차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2012년 4월 기준 현대/기아차의 오만 판매물량이 전년동기대비 무려 59.5% 늘어나 재고가 부족한 상황임
 - 오만의 2012년 프로젝트 시장도 U\$100억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Sur IPP 프로젝트 (U\$12억불)등 한국기업이 2011년에 수주한 건설공사가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인 바, 한국산 전선, 석유화학원료, 냉난방기, 철강파이프 및 철강판, 정전기기, 건설기계, 합성수지, 펌프, 주단조품 등 건설자재/장비의 수출도 크게 늘어날 전망임

3. 소비재의 수출의 경우 전체대비 비중은 낮으나 2013년에도 성장세 지속예상

- 오만의 경제성장률은 2009년(1.1%)을 제외하고는 매년 4% 이상을 기록하고 있고, 오만 정부가 일자리 창출정책(U\$26억 소요), 최저임금 인상(42%) 등 민생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한국산 소비재의 수출도 늘어날 전망임
 - 한국의 대 오만 수출 중 소비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전제품에 있어서, 세탁기 수출이 2012년 1-6월 기준 전년대비 각각 24% 늘어난 바 있음
 - 오만도 최근 들어 건강과 식품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바, 이와 관련된 한국산 고급소비재(주방기기, 화장품 등)의 수출도 유망할 것으로 판단됨

호조 예상 품목

1. 자동차 부품류 (배터리, AS용 일반부품, 윈도필름 등)
2. 의료용품 (일회용품, 초음파 장비, 의료용 소프트웨어 등)
3. 건설장비 및 자재(중장비, 펌프, 밸브, 공기조절기, 전선 등)
4. 건강용품 (노인 및 장애인 용품 등)
5. 안전장비 및 소방용품
6. 어업관련 제품(어구, 항만용품)
7. 절삭공구 등 제조용품에 필요한 자본재(소비규모는 적은 편)
8. 각종 전기제품 및 절전 관련 제품 (LED 등)
9. 전자정부 관련 소프트웨어
10. 한국산 고급 소비재 (주방용품, 인테리어 용품 등)
11. 시위진압용품 등 무기/비무기체계 제품
12. Waste Management 관련 플랜트

부진 예상 품목

1. 전통적 한국식품, 공예품
2. 한류관련 제품은 오만에서 다소 시기상조임

2013년도 시장전망 요약

- 요르단은 총 인구 620만의 작은 나라로 작년 국내총생산(GDP)은 약 \$US 288.4억이고 1인당 국내 총생산은 US\$ 5,900으로, 개방적 경제 풍토를 지니며 이러한 분위기는 요르단 주요 경제 정책의 중심이 됨
- 최근 요르단 경제는 GDP 성장과 외국 투자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 유럽 재정 위기와 세계 경제 위기로 인해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으며, 시리아, 이집트 그리고 리비아를 위시한 중동 지역의 정치적 불안요소로 인하여 요르단의 관광 및 건설 부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음
- 또한 이집트- 요르단 간 천연가스 파이프의 연쇄 폭탄 공격으로 인해 요르단 정부는 기존의 가스보다도 전자 기기 및 일반 전기를 가동하는데 필요한 고가의 중유를 수입하기로 함. 이는 요르단 경제에 부담을 증가시키는 계기가 됨
- 요르단은 2012년과 2013년에 발생할 적자를 메우기 위해 외국의 원조와 재정적 지원에 계속하여 의존할 것이고 세금 증가와 기본 상품 및 물품들의 정부 지원을 삭감할 예정임
- 한편, 요르단은 요르단을 포함하여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를 아우르는 레반트지역 국가중 정치, 종교적으로 안정된 국가로서 주요한 중계무역의 중심지이며, 많은 이라크 바이어들이 요르단에 거점을 두고 사업활동을 하고 있음

호조 예상 품목

- | | |
|---|-----------------------|
| 1. CCTV(보안 장비) | 2. X-ray 장비(의학 장비) |
| 3. 엘리베이터 | 4. 유황 가루(화학 원자재) |
| 5. 지게차(운반용 장비) | 6. 금고(사무실 물품) |
| 7. 항생제 및 항암제(의약) | 8. 탄산칼슘(화학 원자재) |
| 9. 위성 수신기(전기) | 10. 엑세스 제어 시스템(보안 장비) |
| 11. 세탁 장비(Catering supplies) | 12. 식품 가공 장비(기계류) |
| 13. LCD TV(전기) | 14. 가격표 & 전자저울 |
| 15. 온라인 & 모바일 게임 개발 및 퍼블리싱 | 16. 자동차 배터리(자동차 부품) |
| 17. 원심 펌프(기계 장비) | 18. 전기 변압기(전기 장비) |
| 19. 소화기(기계 장비) | 20. 폴리에스테르 섬유(섬유) |
| 21. 벨브 : Gate, Diaphragm, Butterfly, Ball, Check, Globe, Plug(기계 생산품) | |
| 22. 회로 차단기(전기) | |

부진 예상 품목

- | | |
|----------------------------------|-------------------------|
| 1. 인삼 및 허브 등 한국 식품류 | 2. 취사도구 및 주방용품 |
| 3. 알코올 음료 및 기타 연관 액세서리(와인 오프너 등) | 4. 선박 건조 부품, 기계 및 공장 장비 |
| 5. 렌즈 및 안경 등 | 6. 실크 직물 |

2013년도 시장전망 요약

- EU발 재정위기의 영향이 가시화 되어 주요 수출산업 타격전망
 - 기계, 원부자재, 부품 등 품목 수입수요 감소 전망
- 그러나 수출산업용 중간재 및 원자재의 상당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터키 산업구조상 한국산 제품 중에서는 동 품목의 수요는 상대적으로 여전히 높을 전망
- 완제품 소비재의 경우 일부 대기업제품(IT, 가전제품 등)을 제외하고는 한국산에 대한 브랜드 인지도가 전무하여(화장품, 식음료류 등) 시장진출은 시기상조임
- 한-터 FTA가 내년 상반기중 발효예정으로 즉시 수혜품목(기계류, 섬유류, 전자제품류 등) 중심으로 수출확대 전망

호조 예상 품목

- | | |
|--------------------|---------------------|
| 1. 산업용 기계류(섬유기계 등) | 2. 건설기계 |
| 3. 자동차, 기계 부품 | 4. 전자부품(가전제품 부품 포함) |
| 5. 섬유원단 및 원사 | |

부진 예상 품목

- | | |
|--|----------|
| 1. 한국산 식음료품 | 2. 건강식품류 |
| 3. 화장품류 | |
| 4. 저부가가치 공산품(단순 소비재, 범용용도의 부품, 기자재 등 포함) | |

2013년도 시장전망 요약

- 전체적으로 유럽 경제난의 여파가 이스라엘 경제에 성장 둔화, 수출입 감소 등의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정부 재정 확보를 위해 정부 부처 예산의 긴축에 더불어 부가세, 소득세 등 주요 세금의 인상안이 승인되면서 전체적인 가격지수가 상승하여 개인 지출이 억제될 것으로 예상됨
- 이스라엘의 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이스라엘 중앙은행은 달러 환율을 상반기보다 절상된 1\$=4세켈 수준으로 당분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수입 품목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이스라엘의 상품 물가는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 한국의 對 이스라엘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의 경우 2013년부터 오염배출량이 적은 승용차를 대상으로 실시하던 Green Tax 혜택이 변경되면서 전체적인 가격이 상승할 것임. 이는 부가세의 인상('12.9월 시행: 16%→17%)과 경제 성장의 둔화로 인한 소비 억제 등과 더불어 시장 수요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가전제품 등도 2012년 연말부터 달러의 절상으로 인해 5~10%의 가격 상승이 예상됨

호조 예상 품목

- | | |
|------------------------------|---------------------|
| 1. 자동차 부품 | 2. CCTV |
| 3. 광커넥터, 광송수신기 등 광통신 관련 제품 | 4. 에너지 절약 전구 |
| 5. 충전배터리 | 6. 철관, 밸브, 펌프, 열교환기 |
| 7. 엘리베이터 | 8. 오토바이 액세서리 |
| 9. 표 자동판매기 | 10. 스마트계량기(물, 전기) |
| 11. 가스, 전기 등 인프라 관련 원부자재, 장비 | |

부진 예상 품목

1. 인삼, 홍삼 등 한방 제품(한방제품에 대한 인식 부족)
2. 의료기기(혁신적인 신규 제품 제외, 현지 의료기기 기술)
3. 목공, 섬유 가공 기계(생산업 부재)

2013년도 시장전망 요약

- 2011년초 발발한 이집트 민주화 혁명으로 한국기업의 이집트 진출이 최근 다소 부진한 상황이나, 최근 총선 및 대선을 통한 민간 권력 이양이 안정적으로 마무리되어 향후 정국 안정 및 시장 진출기회 확대가 기대됨. 2012년 8월중 신정부 초대 내각이 확정 발표됨
- 민주화 혁명으로 지연되었던 각종 국책 프로젝트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발주 예정이며, 투자 및 소비심리 회복으로 한국산 제품의 수입 수요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정치적 불확실성 감소에 따른 생산 및 투자심리 회복으로 한국의 주재국 주요 수출 품목인 현지 생산용 원부자재 수입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석유화학 제품, 철강, 프로젝트 기자재 등)
- 이집트는 마지막 미개척 시장인 아프리카 진출의 관문으로서, 아랍국가중 최대, 아프리카 국가 중 2위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고, 향후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으며, 경쟁국의 진출이 상대적으로 미진하여 시장선점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중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장임

호조 예상 품목

1.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한국차 시장점유율 40% 수준. After Market용 부품 수출 유망
2. 기계류(화학기계, 섬유기계, 디지털 직조기계, 식품 포장기계, 플라스틱 성형기계 등)
 - 중급기술(Mid-Tech) 기계류 제품에 대한 전반적인 시장성 높음
 - 미국, 유럽제품 대비 가격 경쟁력이 있으면서 중국산 대비 품질 경쟁력이 있는 한국산에 대한 수요 증가 추세
3. 건설 장비(지게차, 로더 등): 현지 생산이 미약하고 수입 의존도 높음. 중고제품의 시장점유율 50% 수준. 한국산 선호도 높음
4. 전력 프로젝트/플랜트 기자재
 - 전력 프로젝트(보일러, 변전소 등) 및 플랜트(정유공장 등) 한국기업 수주확대
 - 관련 프로젝트 기자재 추가 진출 가능성 높음
5. 의료기기: 한국산 의료기기에 대한 선호도 높음
6. 화학제품(합성수지,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원료, 석유화학제품)
7. 철강(열연, 냉연, 아연도강판)
8. 전기/전자제품
9. IT제품(보안 시스템, 내비게이션 등)
10. 이 · 미용품 (화장품, 염색제)
11. 냉동 어류: 2012년 이후 냉동 고등어 수입 급증 추세

부진 예상 품목

1. 생활 소비재 (생활용품, 주방용품, 장난감, 애완용품 등)
2. 의료 완제품 (백신, 일반 의약품)
3. 식료품 (인삼, 홍삼 제품 등)
4. 의류

2013년도 시장전망 요약

- 쿠웨이트는 세계 경제침체에도 불구하고 고유가에 의한 원유 판매 수입 증가로 13년 연속 대규모 재정흑자를 지속
- 쿠웨이트는 2010년부터 1,200억 달러 규모의 경제개발계획을 추진중으로 이에 따른 대규모 프로젝트 진행중
- 2013년에는 대형 플랜트 프로젝트인 제 4차 정유공장 건설 및 기존 정유공장 현대화 프로젝트가 예정되어 전력/플랜트 기자재 수요가 크게 증가할 전망
- 이에 따라 한국 제품의 경쟁력이 높은 전력 및 플랜트 기자재, 기계류의 수입수요가 크게 증가할 전망

호조 예상 품목

1. 오일 및 가스 관련 제품 : 밸브, Fittings, flanges, Pressure Vessel, 열교환기, 펌프 등
2. 발전 및 담수 관련 전력 기자재 : 변압기, 스위치 기어, 케이블, 발전기 등
3. 의료장비 및 소모품 : 소변검사 / 임신진단용 키트, 콘택트렌즈, 일회용 주사기, 혈당검사기 등
4. 건축기자재 및 건설 관련 기계류
5. 자동차 부품, 보안장비 및 시스템 등

부진 예상 품목

- 농산물 및 전통식품, 저가 일반 생활소비재, 중고제품 등

아프리카

남아공 - 요하네스버그무역관

수단 - 카르툼무역관

케냐 - 나이로비무역관

가나 - 아크라무역관

에티오피아 - 아디스아바바무역관



2013년도 시장전망 요약

1. 자동차

- 현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완성차 업체들이 현지에 조립라인을 두고 있음. 현대는 완제품 전량을 수입하고 있어 "란드화 환율 인상에 따른 가격인상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전반적으로 시장 환경 이 악화되고 있음. 2012년 상반기 한국산 차량 수입액 30% 성장하였으나 하반기 이후 민간 구매력의 악화로 성장세가 악화될 것으로 전망. 전반적으로 전년 수준 유지 전망

2. 자동차 부품

- 랜드화 환율부담과 소비자들의 구매력 저하로 2012년 하반기 이후 수입물량은 감소될 것으로 전망

3. 석유화학

- 주 시장인 유럽의 경기 및 국내 건설경기의 동반 침체로 금년 2분기에는 전년대비 비슷한 수준의 거래를 유지하겠으나 3분기 이후 랜드와 평가절하와 민간수요의 감소 예상되어, 전반적으로 수입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

4. 전력기기/기계

- 전반적으로 물가 및 인금인상으로 주요 남아공의 프로젝트 진행이 다소 지연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 수입 물량 예측이 어려움. 다만, 정부의 주요 전력인프라 개선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오히려 수입이 증가할 수도 있음

5. 보안장비

- 남아공은 치안이 매우 위험한 국가로서 오피스, 상점, 헬스장, 카지노 및 여러 공공기관에서의 사용이 매우 높고 CCTV의 경우, 은행에서 많이 떨어진 ATM이 강도들에 의해 폭탄 설치로 많은 ATM이 털리고 있어 수요 증가

6. 의료장비

- 의료용품 뿐만 아니라 장비 및 건강보조 식품의 관심도는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및 의료기술 발달 등으로 인해 의료 장비 및 부품, 용품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
- 정형외과용 의료보호대의 총 수입액은 2009년도에는 42.657백만달러, 2010년도에는 53.381백만달러, 2011년도에는 62.009백만달러로 꾸준한 증가를 보이고 있음

호조 예상 품목

- | | |
|-------------------|-----------------------|
| 1. 자동차부품(A/S용) | 2. 자동차 배터리 |
| 3. 철강제품 | 4. 합성수지, 윤활유 등 석유화학제품 |
| 5. 정밀화학 원료 | 6. 건설장비 |
| 7. 전력기자재 | 8. CCTV 등 보안제품 |
| 9.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 | 10. 시스템 소프트웨어 |
| 11. 통신기자재 | 12. 태양광 발전설비 |
| 13. 태양열 온수기 | 14. LED 조명기기 |
| 15. 의료장비 | 16. 정밀기기 |
| 17. 산업용 펌프 | 18. 휴대폰 |
| 19. 변압기 | 20. 철도부품 등 |

부진 예상 품목

- | | |
|------------------------------|----------|
| 1. 중고자동차(수입금지) | 2. 중고제품 |
| 3. 김치, 고추장, 된장 등 한국인 위주의 식품류 | 4. 섬유류 |
| 5. 저가 소비재 | 6. 농산물 등 |

2013년도 시장전망 요약

- '13년~'16년 중에는 원유 수출 수입 및 인구 감소 충격을 흡수한 후 '12년 대비 2.7%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수단 정부의 재정적자 규모는 '13년 이후 GDP의 연평균 2.9%를 기록할 것으로 보임(남부수단이 금년 하반기 중 원유 생산을 재개한다는 것을 전제)
- '13년~'16년 중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긴 하나 점차 하락될 것으로 보이며 환율 안정에 따라 12.0%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환율의 경우 현재 미달러당 6파운드 정도의 암시세를 보이고 있으며 남부수단과 합의된 송유관 사용료 수입이 개시될 경우 2013년 중 이 수준 혹은 이보다 조금 약세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12년 중 경상수지는 GDP의 2.4%에 해당되는 US\$27억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수단과 남부수단 간에 수단경유송유관 사용료에 대해 합의가 이행될 경우
- '13년 중 경상수지폭이 줄어들었다가 이후 수입 증가에 따라 다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호조 예상 품목

- | | |
|------------------------------|-----------------|
| 1. 자동차 부품(중고 자동차 및 중고 부품 제외) | 2. 의약품 |
| 3. 의료기기 | 4. 건축자재(지붕재 제외) |
| 5. 건설중장비 | 6. 전기 전자 제품 등 |

부진 예상 품목

- | | |
|-------------|-------------|
| 1. 석유류 | 2. 중고자동차 |
| 3. 식품류 | 4. 전통공예품 |
| 5. 중고자동차/부품 | 6. 석유화학제품 등 |

2013년도 시장전망 요약

- 케냐정부는 '13년도 3월 4일 대선 일자를 확정하였으며, 대선일자를 전후로 정국이 혼란해질 가능성이 예상됨
- 실례로 '07년도 대선 정국은 부정선거 의혹 등으로 유혈사태까지 발생한 전력 있으며, GDP 성장률도 06년도 6%에서 '07년도 1%로 급격하게 하락하는 등 경제적 혼란도 발생함
- 미국 힐러리 국무장관도 7월 케냐를 방문하여, 케냐의 공정한 대선을 케냐 대통령에게 요구하였으며, 공명정대한 선거에 대한 국민적 열망도 높은 편으로, 대선이 무난하게 진행될 가능성도 높음
- 따라서 정치적 환경에 따라 '13년도 경제 전망 예측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나, '12년도 대한항공 인천-나이로비 직항 취항에 따라 한-케냐간 경제 협력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안정적인 대선정국으로 정권이 이양되면, 케냐 시장 성장률에도 탄력을 받아 '13년도에도 계속되는 경제성장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도 또한 예측 가능함

호조 예상 품목

1. LED 및 태양광 제품(전력이 불안정하여 동제품 수요 높음)
2. 보안장비(출입문 통제, 금속탐지기, CCTV)
3. 자동차 관련 일반적 부품
 - 케냐는 운전석이 반대인 특성에 따라, 일본 중고차 시장이 큼
 - 또한 도로가 정비되어 있지 않아, 자동차 고장수리가 많이 발생하여 자동차 부품에 대한 수요가 많음
4. 플라스틱 관련 원자재
5. 건축자재(인테리어 등)
6. 화장품, 건강보조식품(인삼 관련 제품)
7. 전력기자재
8. 플랜트 산업
9. 커피 관련 산업

부진 예상 품목

1. 냉난방장비: 케냐는 날씨가 연중 초가을날씨로 일정하여 냉난방 수요 없음
2. 중장비(유압브레이커, 크레인): 동종품목 지사화 사업 진행중
3. 철재기와: 동종품목 지사화 사업 진행중(동양산기)
4. 공공조달품목: 앰볼런스 등 공공조달 성향의 품목

2013년도 시장전망 요약

- 최근 US달러 대비 가나 시디화의 큰 평가 절하폭은 수입단가를 높이고 있어 대가나 수출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나 2013년에는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
- 가나 정부의 인프라 개발 노력은 교역 확대에 긍정적 영향
 - 최근 외국인 투자 세미나, 정부민간협력방식(PPP) 건설프로젝트 발표
- 건설 경기 활성화로 건설관련 품목 수요 증가 지속
 - 건설 중장비, 시멘트, 기계류 등
- 주택 건축관련 품목 수요 증가세
 - 전기자재, 건축자재, 절전형 LED 전구 등
- 승용차, 화물자동차, 중고차 등 수요 증가 지속
- 산업기계류, 기타정밀화학 수입 추세 강세

호조 예상 품목

- | | |
|---------------|----------|
| 1. 축전지 | 2. 원동기 |
| 3. 전기강판 | 4. 타이어 |
| 5. 건설중장비 | 6. 칼라TV |
| 7. 승용차 | 8. 화물자동차 |
| 9. 기타 섬유제품 | 10. 합성수지 |
| 11. 자동차부품 | 12. 시멘트 |
| 13. 기타 정밀화학원료 | 14. 광산기계 |

부진 예상 품목

- | | |
|---------|----------|
| 1. 의약품 | 2. 표면활성제 |
| 3. 윤활유 | 4. 시멘트 |
| 5. 기타어류 | 6. 무선전화기 |

2013년도 시장전망 요약

- 에티오피아 정부는 내외국인 투자 증가와 전력, 도로, 통신 등 국가 인프라 확충, 농산물 상품화 등에 힘입은 농업 생산성 증가, 제조업 및 서비스업 투자 확대로 지난 5년간 평균 11%에 이르는 경제 성장을 하였으며, 2010 7월 ~2011년 6월 에티오피아의 실질 국민소득 증가율도 11%대에 이릅니다
- 2010년 말 에티오피아 정부는 국가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Growth and Transformation Plan), 동 기간 중 최저 11.4%의 경제 성장을 목표로 정했다. 2025년까지 중진국 진입을 목표로 정책 시행
- 에티오피아는 만성적 무역적자를 보이고 있으며 2011년의 경우 97억불을 수입하고 29억불을 수출 68억불의 무역적자를 기록하였고, 주요 수출품은 커피, 오일 종자 금 등의 1차 상품이고, 주요 수입품은 오일, 기계, 금속제품, 비료, 의약품 등 공산품임
- 2012년 에티오피아는 물가 불안, 멜레스 총리의 건강 악화로 인한 정국 불안, 세계 경제 침체 등의 불안 요인이 있으나, 지속적인 국가 인프라 확충, 투자 확대 등으로 인해 7-8%의 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되며, 2013년의 경우도 농업생산 및 산업화 진전에 따라 최근의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호조 예상 품목

1. 건축자재 : 토목공사, 상업 및 주택 건설 붐으로 인해 건축자재 수요 증가, 중고가 건축자재 수요 증가
2. 건설, 광산용 장비 및 기계 : 한국산 중장비의 진출이 활발하며, 댐, 도로, 철도 인프라 확대 및 건설 붐으로 인해 이들 장비에 대한 수요는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
3. 산업용 기계, 소형 플랜트 : 에티오피아는 산업화 초기 단계에 있으며, 정부는 섬유산업, 피혁산업, 농산물 가공산업, 금속산업 등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고 있어 기계, 소형 플랜트 시장 유망
4. 의약품(백신, 진단키트 등) : 90% 이상의 제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아프리카 국가의 보건에 대한 투자 확대와 함께 시장 진출 유망. 백신 및 진단키트의 경우 한국산 제품의 진출이 활발함
5. 석유화학제품 원료 : 농업용 관개 파이프 생산 투자 확대, 플라스틱 제품현지 생산 확대 등으로 인해 석유화학제품 시장 진출 유망
6. 섬유 및 피혁 관련 화학제품 : 에티오피아 정부는 섬유산업 및 피혁산업에 대한 국내외기업의 투자 확대를 장려하고 있으며, 이들 산업의 발전을 통한 고용 창출, 산업기반확대를 추진하고 있어 섬유 및 피혁용 화학제품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 이들 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가 예상됨
7. 자동차 A/S 부품(타이어, 배터리) : 자동차 증가, 노후화 및 현지 생산 기반 부족으로 인해 시장 확대 예상
8. 자동차(승용차, 화물자동차) : 우리나라의 주종 수출품목의 하나로 소득 증가 및 농업의 상업화, 산업화 진전과 함께 자동차 수요도 지속 증가 예상
9. 식품가공기계 : 농업 생산물 부가가치 확대, 식량 자급자족 노력으로 인해 시장 성장 예상
10. 의료기기 : 병원 증설 및 신설 확대 추세 및 기존의 의료기기 노후화로 인한 대체 수요로 인해 의료기기 수요의 확대가 예상되며, 향후 우리 의료기기 시장 진출 확대가 예상됨

부진 예상 품목

- 일반 생활 소비재
 - 중국 제품과의 경쟁이 불가피한 소비재의 경우, 일부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수요가 제한적
 - 두바이 등 중동으로 수출한 소비재가 일부 간접수입되어 유통되고 있으나, 브랜드 인지도가 약한 중소기업 소비재의 경우 진출이 용이치 않은 실정임